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자신보다 남을 더 잘 되게 하기

(Greater Than Yourself · 번역논문)

제주대학교 통역대학원

한 영 과

강 안 나

2012년 2월

자신보다 남을 더 잘되게 하기

(Greater Than Yourself · 번역논문)

지도교수 김 재 원

강 안 나

이 논문을 통역번역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2 년 2 월

강안나의 통역번역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통역대학원

2012 년 2 월

Greater Than Yourself

An-Na Kang

(Supervised by Professor Jae-Won Kim)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2012. 2.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Korean-English
GRADUATE SCHOOL OF INTERPRET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thesis is a translation of the book 「Greater Than Yourself」 by Steve Farber.

Expand Yourself, Give Yourself, and Replicate Yourself. This book is based on the experience of Steve Farber. He buys a guitar at Vintage Brothers Guitars and finds a handwritten note from the guitar case. And he wants to see people behind the note. The story starts from that point. He first meets Charles Roland and learns GTY(Greater Than Yourself) principles: Expand Yourself, Give Yourself, and Replicate Yourself. To do these, people should give freely of not their knowledge but all their resources: connections, network, experience, insights, advice, counsel and time.

Farber shows that the goal of a genius leader is to help others—teammates, employees and colleagues—become more capable, confident and accomplished than they are themselves.

Greater Than Yourself is filled with actionable principles, innovative ideas and a wonderful message. I am sure leaders can experience new insights for helping other people.

The author Steve Farber is the president of Extreme Leadership, Incorporated—an organization devoted to the cultivation and development of Extreme Leaders in the business community. A subject-matter expert in business leadership and a frequent guest on news-talk shows around the country, he is a senior-level leadership coach and consultant who speaks 90 to 100 times a year to a wide variety of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s in virtually every arena, from the tech sector to financial services, manufacturing, health care, hospitality, entertainment, retail, and even the US government.

목 차

제 1 장	1
제 2 장	4
제 3 장	6
제 4 장	12
제 5 장	15
제 6 장	20
제 7 장	24
제 8 장	30
제 9 장	34
제 10 장	39
제 11 장	42
제 12 장	44
제 13 장	46
제 14 장	49
제 15 장	54
제 16 장	58
제 17 장	65
제 18 장	67
제 19 장	72
제 20 장	76
제 21 장	79
제 22 장	85
제 23 장	87
제 24 장	91
제 25 장	94
제 26 장	104

제 27 장	106
제 28 장	109

제 1 장

모든 일들이 저절로 잘 풀려가는 경우를 뭐라고 불러야 할지 잘 모르겠다. 마치 누군가가 내 삶의 조각들을 끼워 맞추려고 미리 짜놓은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 듯한.... 그런 걸 뭐라고 해야 하나? 업보? 숙명? 우연의 일치?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고 대개는 잘 풀려 나간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스승들을 만나게 되서 그런 것인가.

나는, 비즈니스 리더십 분야에서의 세계적 대가들인 탐 피터스, 짐 쿠제스 등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며 여태껏 정말 축복받은 삶을 살아왔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전 책들의 독자에겐 친근한 이름일지 모를 윌리엄 메리타 임과 아그네스 골든 그리고 테드 케리슨과 같은 익스트림 리더십을 통해 알게 된 대가들 중 몇몇에게서 직접 배웠다. 그들 모두는 나름의 방식을 가지고 진정한 리더십이란 자신을 “리더”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진짜 리더십을 발휘하여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을 말하며, 다시 말해 회사든, 부서든, 이웃이든, 가족이든 무엇이든 간에 진정한 리더십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하는 바램과 사랑에 뿌리를 둔 극단적 행동이며 명분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간단히 말해, 진정한 리더십이란 익스트림 리더십이다.

배웠던 대로 익스트림 리더십을 꽤나 잘 전파했고, 이런 이유로 이 분야에서 이름을 다소 떨치게 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스티브 파버라는 이름을 지도력 권위자라는 말과 같은 문장에 사용했는데, 비록 뿌듯하기는 했지만, 양말 속에서 축축한 지렁이들이 기어가는 것 같은 창피함이 느껴졌다.

딱 맞는 선생님. 적절한 시기. 이상한 상황.

여러 번 되풀이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명함에 이런 일들을 박아 넣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샌디에이고 미션비치 만에 있는 아파트로 돌아왔다. 서쪽으로는 바다와 정신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거리가 두 구역 떨어진 곳에 있고, 내 아파트 건물 동쪽으로는 조용하고 평온한 미션 베이에 몇 야드 떨어진 곳에 있어서, 거실 창문을 통

해 관광업서에서나 불만한 전망이 펼쳐진다.

두 시간 전 칼스배드에서 돌아와 몇 가지 시간이 정해진 업무를 처리하며 일정을 정리했고, 이제야, 내 새로운 친구와 친해질 귀중한 시간을 보낼 준비가 됐다.

나는 조심스레 50년이나 되어 낡을 대로 낡고 얼룩덜룩한 갈색 기타 가방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기타가방의 걸쇠를 열고 곡선부분은 와인색상인 기타의 윗부분을 들어 올려 가만히 살펴보았다.

높은 의자에 앉아 기타를 무릎에 받쳐 튜너기로 음을 맞추고, E음에서 빠른 리듬의 블루스 두 곡을 연주했다. 나중에 앰프와 연결시킬 거여서, 우선은 브라질 산 장미나무 지판의 부드러운 감촉과 증폭되지는 않았지만 단풍나무에서 나오는 절제된 풍부한 소리를 즐겼다. 두 시간 동안 진지한 연주(모순처럼 들리겠지만)에 심취하려는 때에 기타 가방 속에 뭔가가 눈에 띄었다. 기타를 스탠드에 세워두고는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 일어섰다.

기타가방 안쪽 아랫부분에 있는 분홍색 벨벳 솔기가 약간 뒤로 젖혀있었다. 노란색의 쪽지가 천 밖으로 비어져 나왔다. 모서리를 비틀고 조심스럽게 종이를 뺐다. 종이는 쉽게 빠졌고, 그건 친필편지였다.

고고학자가 어느 시대에 그 시대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는 유물을 발견했을 때 느꼈음직한 두근거림이 느껴졌다.

“제시카에게”로 편지는 시작됐다. “이 기타는 당신에게 드리는 나의 선물입니다. 당신과의 첫 수업보다 31년이나 더 오래된 1959년에 제작되었소. 5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당신은 대단한 연주가가가 되었소. 이제 투표도하고, 학교에도 진학해 성인으로 여러 일을 겪을 나이가 되었으니, 당신의 멋진 음악적 재능을 생각나게 해줄 이런 기타가 필요할 것이요. 내가 바랐던 거보다도 더 훌륭한 연주가가가 되는 데 이 기타가 도움이 되길 바라요.”

“당신은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즐거움을 이 늙은 선생에게 주었소. 내가 당신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 지 알아주길 바라요.”

“당신의 친구이자 선생, GZ.”

“여기 어딘가에 게시겠죠, 그렇죠?” 기타에게 말했다.

다시 한 번 그 편지를 읽으면서 선생님과 제자, 그리고 분명 그들 사이에 존재

했던 끈끈한 유대감을 상상하고자했다. 그런 류의 관계는 흔치 않았다. 직업상 제자와 선생님사이의 유대감을 경험할 기회이며, 이러한 일이 얼마나 드물고 대단히 소중한 일이 될지 알기에 자연 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굳이 말하자면 기타리스트로서 제시카의 삶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은 여전히 연주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 졌다.

내가 알아낸 건 이 편지가 1995년에 어디선가 쓰였고, 제시카가 그 당시 대학에 막 입학을 했다면, 지금은 30대 초반이다.

GZ의 자량은 잘 지내고 있을까? 그가 바랐던 대로 제시카가 그런 어른이 되었을까? 그리고 만일 그들의 관계가 편지의 글귀에서 풍기듯 특별했다면, 제시카는 왜 이런 멋지고 감상적인 선물을 팔았을까? 만일 그녀가 선생님의 애정에 조금이라도 보답을 한다면 최소한 이 편지는 간직했어야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든 이런 갑작스럽고 강렬한 호기심으로 나는 두 갈래 길에 마주서게 되었다. 이런 질문들에 상상의 답을 주거나, 제시카와 GZ의 실제 이야기를 밝힐 수는 없지만 알아보려고 기웃거릴 수는 있다.

내가 어느 길을 택할 지는 여러분의 추측대로다.

제 2 장

분명, 제시카란 이름과 GZ라는 이니셜만으로는 알아낸 게 없어서 그 시점에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일을 했다. 빈티지기타는 기타에 문외한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자주 사고 팔리고 거래된다. 말 그대로 제시카가 그냥 기타 가게에 가서 업자에게 기타를 팔았을 것 같지는 않았다. 기타가게 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기타의 이전 주인이름을 말해줄 수 있는 지 물었다.

그가 “죄송합니다.” 라고 했다. “그거라면 도움이 못되겠습니다.”

“이해합니다.” 나는 실망감에 대답했다. “고객 비밀을 보장하셔야죠.”

그가 웃었다. “네, 그래야겠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다른 기타 판매업자의 지역 기타 쇼에서 그 기타를 구매했습니다. 기타 주인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언급이 없었습니다. 누가 가장 최근에 그 기타를 소유했었는지에 대해 말하라며? 글썄요, 행운을 빈다는 말씀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에게 감사인사를 하고 막 전화를 끊으려던 찰나에 그가 잠시만 기다리라고 했다.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일전에 어떤 남자가 그 기타에 대해 물어왔어요. 그런 기타를 사용했던 친구가 있었다고 하면서 관심을 보였죠. 다시 들르지는 않았습니다.” 심장이 콩닥콩닥 거렸다. 드라마 *뱀과 질서*의 주인공들이 이겼을 때 그들에게 일어났던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지 궁금했다.

“혹시 그의 이름을 아시나요?”

“그럼요.” 주인이 말했다. “내가 어떤 사람 같소? 물론 이름을 받았지요. 잠시 만요....”

수화기 너머로 몇 분간 종이 뒤적이는 소리가 들렸다.

“여기 있네요. 찰스 롤랜드.”

“잘 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에게 다시 한 번 이름을 확인했다.

“전화번호도 알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당신 너무 맘에 드는데요.” 내가 대답했다.

제 3 장

나는 찰스 롤랜드의 음성사서함에 메시지를 남겼다. 기타와 편지에 관해 간단히 말하고는, 이에 대해 아는 게 있다면 전화를 주거나 메일을 달라는 부탁도 했다. 연락이 올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으면서도 모든 연락처를 남겼고, 잠깐의 탐정 노릇이 끝일거란 생각도 들었다.

자 이제, 내 공상은 기타에 고이 담아놓고, 쪽지를 접어 셔츠주머니에 넣은 채 해안을 따라 경치가 좋은 드라이브 길을 달리며 석양을 즐기기로 했다. 차를 타고 라 졸라를 지나 곧 텔 마르의 호화스럽고 멋진 작은 마을에 들어섰다. 한참을 서쪽 지평선 너머로 지는 해의 장관을 본 후, 일 포르나이오에서 늦은 오후의 가벼운 식사를 하고, 텔 마 플라자의 위층에서 마더 네이처의 공연을 보기로 했다.

차를 주차하고 석양에 비쳐 밝게 빛나는 푸른 바다의 장관이 내려다보이는 야외 테라스가 있는 꼭대기 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레스토랑에 있는 야외 바에 가서 오징어와 레몬을 곁들인 다이어트 콜라를 주문하며, 유리로 된 바람막이 쪽으로 오픈 테이블이 있는 걸 보았다.

아이폰으로 이메일을 잠시 살펴다 새로운 메시지를 발견했다. “찰스 롤랜드로부터.”라는 제목에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는 공손하고 정중한 투로 그 쪽지얘기를 듣고 “놀랍고 기뻐다”면서, 그 인물들을 알고 있고, 직접 그 쪽지를 보기위해 나를 만나겠다고 했다.

그래, 그렇게 쓰여 있었다. 식은 죽 먹긴 곱하고 생각했다.

몇 차례 찝막한 이메일을 주고받은 후, 내일 아침 집에서 미션 대로를 따라 위쪽으로 1마일 거리에 있는 퍼시픽 해안의 한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했다.

그리하여, 나는 다음날 아침 핏 커피숍 야외 테이블에 앉아 이른 아침 오가는 자동차들을 보며 진한 모카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한 구역정도 거리에 바다가 있어서인지, 바다내음이 매연보다 더 강한 게 감사했다. 햇살이 바다안개를 걷어내듯 카페인이 몽롱한 정신을 깨우자 잠시 후 있을 만남을 생각했다. 제시카

와 GZ에 관한 얘기를 듣게 되어 얼마나 흥분됐는지 놀랄 따름이었다. 여러분은 내가 친구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파머 씨.”

찰스 롤랜드인 것 같은 사람을 올려다보았다.

“찰스 롤랜드 씨 되십니까?” 나는 자리에서 공손히 일어서며 물었다.

“그렇습니다.” 그가 악수를 하며 답했다.

찰스의 외모는 특이할 만한 게 없어서 특이했다. 그는 샌디에이고 해변의 전형적인 옷차림이 아니라 출근길 회사에 어울리는 옷을 입은, 40대 넥타이 부대에 더 어울리는 그런 류의 사람이었다.

단정히 손질된 그의 짙은 갈색머리는 2주에 한 번꼴로 이발을 한다는 인상을 주었다. 내 셔츠들과 달리 그의 하얀 셔츠는 풀을 먹여 뽀뽀하게 다림질 되어 있었다. 그는 왼손 약지에 금반지를 끼고 있었다. 그의 회색 정장과 어두운 무늬가 들어간 넥타이로 보건데 찰스 롤랜드는 융통성이 없는 회사원 정도 일 것이다. 번듯한 양모 옷만 걸쳐 입은 게으름뱅이이거나.

변명 같지만 나는 원래 비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다.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말하자면, 여러분이 이제껏 만났던 솔직한 사람들 가운데 한명일거란 생각이 든다. 바꾸어 말하면, 여기에서 성급한 판단을 내리려했던 건 전적으로 나답지 않았다. 이제와 돌이켜보면, 찰스 롤랜드의 태도에서 너무도 분명하게 나타났던 몇 가지 미묘한 낱새를 놓치고 있었다.

커피를 권하자 그가 사양했다.

“자, 롤랜드 씨,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일종의 로맨스가 아닐까요?”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거의 기계적으로 답했다. “그리고 저를 찰스라고 불러주십시오. 그 쪽지를 좀 봐도 될까요?”

쪽지를 건네고 그가 읽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눈썹을 조금 치켜뜨는 것 외에 감정변화가 없었다.

그는 말없이 쪽지를 돌려주었다.

“그럼...” 나는 이 자의 표정을 읽을 수 없었다. “제시카와 GZ에 대해 말해 줄게 있나요?” 어색한 침묵을 깨고 물었다.

“스티브 씨, 솔직히 말을 할까요?” 내 대답을 기다리지 않는 걸로 봐서 이 말은 그냥한 말 같다. “제가 그들의 얘기를 할 준비가 되어있는지 확실치 않습니다.”

내가 기대하던 말이 아니었다. “무슨 뜻인가요?” 나는 깜짝 놀라 물었다. “그들의 얘기를 하기위해 절 만나러 온 거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준비가 되었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라고는 안했습니다.”

그가 계속 말을 하길 기다렸다.

“간밤에 스티브 씨, 당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웹에서 당신이 쓴 기사와 저서에서 발췌한 부분을 읽어봤습니다. 직업면에서나 다른 면에서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제 일이 이것과 뭔가 관련이 있나요?”

“말하자면, 당신이 그 자료에 말하는 사람이 맞는다면 모든 게 그 일과관련 되었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좋습니다.” 나는 짜증이 났지만 여전히 흥미로워 대답했다. “왜 모호하게 말하십니까? 제가 그들에 대해 알게 되는 건가요? 아님 아닌가요?”

“과버씨, 애매하게 말씀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사정이 있어서요. 하나는 관련 당사자들, 특히나 그 둘 중 한명이 저와 일을 하고 있어서 사생활을 보호해야 합니다. 당신이 이해해주리라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가 답했다.

“저는 그러니깐... 음 ... 호기심 많은 사람을 데리고 그들의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들과의 어떤 상호작용이 있어야하고 ... 저는 그걸 ... 그들에게도 의미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미 있는 이라.” 나는 그 말을 되풀이 했다.

“네. 제게 연락했을 때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당신에게도 가치가 있는 일이라 믿습니다.”

“그래요, 어떤 식으로 말입니까?” 이제는 상당히 회의적인 투로 말했다.

“우선 그들의 관계를 그렇게 특별하게 만든 원리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GZ라 불리는 사람과 그의 어린학생 사이의 관계를 훨씬 뛰어넘어 삶의 철학으로

발전한 뭔가가 그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하고 있는 이런 리더십을 고려해 볼 때, 그들과의 만남 전에 그 원리를 이해하고 배우는 건 해 볼만한 일 이죠. 그리고 사실, 당신이 이런 원리를 이해한다면 제게 그들의 이야기를 나눌 의사가 있다는 말을 할 자격이 생긴답니다. 관심 있으세요, 스티브?” 그는 또 내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관심이 있다면 내가 그 원리를 기꺼이 가르쳐 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일 관심이 없다면...”

“네?” 그가 어떤 말을 할 지 알면서 내가 물었다.

“만일 관심이 없다면, 이만 작별인사를 고해야겠네요. 흔히들 말하잖아요, 내게 피해가 안 된다면 상관없다는 얘지요.”

내 얼굴에서 뭔가를 알아챈 것 같았다.

“그게 힘들 것 같습니까?” 그가 물었다.

“네, 조금 이상한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마도, 장담컨대 그게 그들이 원하는 바입니다. 받아들이던가 아니면 그만 두던가 그게 거래입니다.” 그가 말했다.

나는 거의 일어나서 자리를 뜰 참이었다. 멍세컨대 이 모든 일을 없었던 일로 할 참이었다. 도대체 이 자는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는 건가? 그럼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알다시피, 나도 바쁜 사람이다. 내가 나랑 상관도 없는 일에 시간이 남아돌아 처치 곤란한 줄로 생각하는 것 같다. 그리고 나를 가르치려는 그는 누구인가? 내가 세상 이치를 그에게 가르쳐 줄 수 없는 것처럼 그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분한 마음이 다소 진정되자 한 가지 분명하고 부인할 수 없는 감정이 남았다. 내 연약한 자아에 모험심을 불어넣은 이 이야기, 이 모험을 생각하면 심장이 내려앉았다.

“좋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대답했다. “하죠. 당신이 말하는 인생을 변화 시키는 ‘원리’를 뭐라 하나요? 비말이 아니면 당장 알려주시죠.”

그는 들떠서 자세를 바로잡고 깜짝 놀랄 만큼 큰 소리로 손뼉을 쳤다.

“우린 그걸 자신보다 남을 더 잘되게 하기(Greater Than Yourself)라고 부릅니다.” 시체와 다름없던 사람이 생기가 돌며 외향적인 사람으로 변신하여 소리를 내질렀다. “아니면 간단히 GTY라고도 합니다.”

내가 그의 제안에 응하자마자 그는 전에 없는 코믹한 기운이 넘치는 목소리와 열정이 담긴 얼굴과 요란한 손짓으로 성격이 갑작스레 변했다. 그의 변신이 당혹스러웠다. 분명, 찰스 롤랜드는 회사밖에 모르는 인간일거란 성급한 판단은 완전히 빗나갔다.

“그래, 다음은 뭐죠?” 가까스로 물었다.

그루초 막스¹⁾처럼 코믹하게 팔꿈치를 실룩거리며 “당신을 학교에 모시고 갈 겁니다.” 라고 했다.

그는 투미 가죽서류 가방에서 메모지와 펜을 꺼내 놓았다.

“아무런 준비 없이 어떤 학교에 간다는 거죠?” 하고 물었다.

“GTY 학교이고, 여기 의제가 있습니다.”

그는 왼쪽 손가락 세 개를 펴고는 오른손 검지로 한 번에 하나씩 짚어나갔다.

“첫째, 제가 GTY의 세 가지 신조에 대해 개괄적으로 알려주고, 둘째 그 주제를 실천하고 있는 진정한 전문가를 방문하는 현장학습을 진행하며 마지막은 숙제를 줄 것입니다.”

“숙제요? 정말이세요?” 나는 영 맘에 안 들었다.

“네. 오늘밤 숙제가 있어요.”

“근데, *아메리칸 아이돌* 방송이 있어서.”

그는 내 말을 무시했다. “그리고 나서 뜨거운 석탄 위를 걸어 최종 단계를 통과하여 당신의 가치를 만천하에 드러내면, 그들과 만나게 할 작정입니다.”

모든 일이 너무 극적이고 너무나도 꾸민듯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찰스가 그 일을 진행하는데 열심인 것 같아서 그저 숨죽이고 있다가 끼어들었다.

“물집 잡히는 건 사양하지만, 그들과 만나려면 등록하죠.”

“훌륭한 선택은 뛰어난 지적 안목을 보여줍니다.” 그는 메모지의 구겨진 맨 첫 장을 찢어냈다.

“찰스, 실제로 이 과정에 돈을 받나요?”

“그럼, 돈을 받지 말아야하나요?” 그가 물었다. 그는 깨끗한 새 종이 상단에 자신보다 남을 더 잘되게 하기를 적고는 메모지를 보여줬다. “자, 당신도 수완

1) 미국 코미디언이자 웃음의 대가로 알려진 영화 스타. 잔뜩 빈정거리며 속사포같이 퍼붓는 대사에 많은 팬을 확보.

가로서의 능력은 접어두고 내게 생활비를 보태주는 건 어떤가요?” 그가 날카롭게 말했다.

학교에서의 첫날을 선생님의 세고 매정한 볼기짝 맞기로 시작하는 거만큼 좋은 것은 없다.

제 4 장

“GTY의 근본적이면서도 역설적인 진실을 보면 인생에서 진정으로 위대한 리더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보다 더 뛰어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위대해졌습니다.” 찰스 롤랜드가 말했다.

그 단어들이 친숙하게 들렸다. “누가 한 얘기죠?” 찰스에게 물었다.

“글쎄요, 당신이 안했다면, 제가 했겠죠.” 그가 짓궂게 답했다.

얼핏 보기에, 자신보다 남을 더 잘되게 하기는 감동적인 신념이었다. 그러나 그건 또한 엄청나게 많은 의문을 불러 일으켰다.

“황금률 같은데요, 아닌가요?”

“딱 좋은 출발점입니다.” 찰스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의자를 흔들흔들거리며 말했다. 난 내 아이들이 그런 짓을 못하게 했었다.

“사실,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들이 ‘남에게 당신이 대접받길 원하는 대로 대접하라.’ 라는 기독교의 황금률을 알고 있소. 대부분 사람들이 어릴 적부터 들어와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이나 잠재의식 속 어딘가에, 내지는 어디에 저장해뒀던 시간에 철학자들이 ‘상호관계의 도덕’이라 부르는 걸 실천해야한 다는 걸압니다.”

이 찰스 롤랜드라는 사람, 의외로 학자적인 면이 있네 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화와 사상 --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의 사상과 정신적이고 세속적이며 철학적인 그리고 무엇이 되었든지 그런 인문주의 -- 은 그 같은 황금률의 견해를 따르고 있지요. 어쨌든, 원칙적으로 우리 모두는 이 견해가 타당하다는데 동의를 한 것 입니다.” 그는 소리를 높였다.

“원칙적으로, 실천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말했다.

그는 손가락을 쭉 뻗어 탁자의 끝을 잡고는 의자 뒤쪽으로 몸을 기댔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당신이 그 가르침을 혹평하려한다면 그 원리 역시 흐려지고, 그 결과 우리는 황금률을 실천하지 못할 것입니다. 온갖 종류의

사회집단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원칙적으로 인간이란 존재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고 칩시다.”

“또한, 원칙적으로.” 내가 되풀이했다.

“그렇소.” 그는 내 말에 동의했다. “GTY는 온통 원리를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스티브. 뭘 해야 하는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에 관한 거랍니다.”

“그리고 제게 그 방법을 알려주겠죠.”

“상호호혜 원리라는 단어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어리석게도 가만히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 보시죠.” 그는 의자의 다리를 바로하고는 테이블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스티브, 지역사회활동이나 자원봉사 활동에서가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애들에게 아침을 먹이고, 직장에 가서 호된 질책도 듣고 점심시간에는 운동 삼아 달리를 하고 퇴근해서는 애들에게 저녁식사를 해주고 *아메리칸 아이돌* 프로를 시청한 후 잠자리에 드는 이런 일상생활에서 말입니다. 이 원리를 실천하고 있는 자신이 보이시나요?”

나는 대답을 하지 않았고, 그도 내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만일 우리 모두가 실천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단하겠죠?”

“아, 네. 물론 대단하겠죠, 그렇지만 ...”

“네, 대단할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루 종일 황금률을 실천한다? 고객서비스 경험이 어떻게 변할지 상상해 보시죠. 직장에서 우리의 팀들이, 우리 기업들의 문화가 그리고 가족들의 힘이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기업문화는, 가족들의 원동력은 어찌될지 상상해보세요. 하던 일을 멈추고 황금률을 상상해 보세요. 왜 황금률과 그 사촌뻘 되는 원리들이 시대를 통틀어 전 세계적으로 이상이 되었는지 명확해집니다.”

“더할 수 없이 이상적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네. 그렇게 말했죠.” 나는 내 맘대로 그런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었다.

“좀 무정하고 상당히 직설적인 소리를 해서 죄송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단호히 말했다.

“이제껏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지구상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말하고자 하는 게 뭐죠?” 내가 물었다.

“‘우리 모두’는 너무나 이상적인 기대심이 있습니다. 스티브, 솔직히 친절한 태도를 취하면서 그런 말을 강제로 주입시키려고 하는 너무도 많은 불평분자들과 이단자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경험에서 나온 말씀이신가요, 찰스?” 나는 그의 험악한 태도를 보고 웃었다.

그는 대답을 하지 않은 채 계속 말을 이어나갔다. “좋은 소식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세상 사람들이 변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 대해서는 잊고 ‘우리 중 한 명’에 초점을 맞추죠.”

이제 나는 그가 어디로 향할지 알았다.

“‘우리 중 한 명’이 라는 건...?”

그는 수사학적인 내 질문에 대해 꽤나 잘 이해하고 있었다.

“자신보다 남을 더 잘되게 하기에는 세 가지 신조가 있습니다.” 찰스는 내 쪽으로 바로 보이게 메모장을 거꾸로 써 내려가면서 말했다. “자신을 확장해라. 자신을 아낌없이 주어라. 자신을 복제해라.”

제 5 장

내가 메모장을 보고 있는 동안 찰스는 뚫어지게 날 쳐다보고 있었다. 흥미로운 생각이었다. 어떻게 실현시킬지 확신하진 못하지만, 내 자신도 조금은 이상주의자였기에 그렇게 고민되지는 않았다. 그 때에 내 관심사는 현실적인 문제가 더욱 중요했다.

“찰스, 우선 GZ와 제시카를 만나기 전에 이것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까요? 하루정도? 일주일? 어느 정도 걸리죠?”

그는 탁자에 펜을 내려놓았다. “달리 말해 당신이 뭘 해야 하고, 이 수업을 몇 시간 받아야하는 가이죠?”

“그래요.”

불길하게 그가 두 손을 맞비비며 말했다. “글쎄요, 당신이 해야 할 ‘무엇’은 제시카를 만날 준비가 되었다는 만족을 제게 주는 겁니다.” 그가 이런 짓궂은 멘토의 역할을 너무 즐긴다는 생각이 들었다. “얼마나 걸릴 것인가는 다 당신하기 나름이죠.”

나는 점점 초조해져서 말했다. “이봐요, 솔직하게 대답 좀 해주시죠?”

분명 대답은 없었다. 내 초조함은 안중에도 없었고 펜으로 메모지를 툭툭 치고 있었다.

“자신보다 남을 더 잘되도록 한다는 발상은 적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듯 단순히 도움을 주고 코치가 되거나 멘토가 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상대를 당신보다 높게 끌어 올리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뭐든 당신이 할 수 있는 걸 하고 상대에게 온몸을 바쳐야합니다.”

“말하자면, 당신이 그들과 함께 하는 일이 ‘끝날 때’까지이고, ‘어느 시점’에서는 그들이 당신보다 더 잘되는 것입니다. 이제 의도가 분명해졌죠, 파버 씨?”

“넵.” 내가 대답했다.

찰스가 계속 말을 이어나갔다. “남을 자신보다 더 잘되게 만드는 걸 당신이 진정 진지하게 생각해본다면, 남이 아닌 자신과 그 과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제 자신과 어떻게 시작하죠?”

“머리와 가슴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선,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매우 심오하고 폭넓은 마음을 가져야합니다. 자신감은 흔들림 없이 확고해야 합니다. 제로섬 게임 관계가 아니라 자신에 대해 속속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 당신의 마음은 자신의 꿈과 희망에 관심을 가질 정도는 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의 꿈과 희망에 마음을 쓸 정도로 커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나아져야 하며 실력을 더 키우고, 좀 더 현명해지고 더 많은 경험을 쌓으며 항상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속해 나가야 합니다.

“다른 식으로 말해 보죠.” 그는 종이의 위쪽에 쓰인 첫 번째 요점에 동그라미를 치면서 말했다. “남을 자신보다 위대하게 만드는데 도움을 주기 전에 먼저 마음을 넓게 가져야 합니다.”

“얻는 게 없는 한 주는 것도 없습니다.” 나는 밥 딜런이 부른 명곡의 가사를 읊조렸다.

“일단 마음을 넓게 가졌다면, GTY의 다음 신조에 대한 준비가 된 것입니다.” 하고 덧붙여 말했다.

“자신을 아낌없이 주십시오.” 나는 그의 펜을 뺏어 두 번째 문구에 동그라미를 그리며 말했다.

그는 웃으며 몸을 앞으로 숙이고는 내 어깨를 다독였다.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아시는군요.”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지식은 힘이다’라는 말이 절대적 진실임을 압니다.” 그가 얘기를 이어 갔다. “문제는 경제인들 아니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을 지식 보유가 힘이라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당신보다 제가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면, 제가 이긴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답했다.

“틀렸습니다.” 그가 내말에 대꾸했다. “실제 이득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는 데에 있습니다. 만일 당신을 저보다 잘되게 만들려면, 제 지식 뿐 아니라 거래처, 연락망, 경험, 안목, 충고 그리고 조언, 심지어는 시간까지 저의 모든 자료를 아낌없이 줘야 합니다.”

“후하시네요.” 내가 말했다. 이 말은 하는 말이기 보다는 질문이었다.

“후한 것 이상이죠. 싹 다 쥐버리십시오.” 그가 말했다.

나는 의자에서 머뭇거렸다.

“스티브, 지식이 힘일지 모르죠. 그러나 지식과 지혜, 경험과 내가 가진 자원들을 준다는 건 당신과 나 우리 모두를 부유하게 하기 때문에 더욱 강력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주고 우리 둘 다 이득을 봅니다.”

“저는 어떤 이득이 있죠?” 나는 이의를 제기했다. “기분이 좋다는 이유? 이 봐요, 찰스. 저는 이타주의에는 대찬성입니다. 그러나 그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쥐도 될 만큼 충분히 매력적인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타주의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 말하건대, 저는 꽤나 깨어있는 놈이죠.”

“네, 그렇죠.” 찰스가 웃었다. “네, 당신이 옳습니다. 그게 충분한 이유는 아닙니다. 당신에게 돌아갈 이익은 가슴에 느껴지는 따뜻함이나 훈훈함보다 훨씬 큼니다.”

나는 그가 설명하기를 기다렸다.

“스티브, 만일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사람이고, 직장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주는 사람이거나 슈퍼스타를 길러내는 사람으로 명성을 얻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신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테지만, 명성이 당신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내가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찰스가 먼저 말을 했다.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당신과 일하길 원할 것입니다. 그 때문에 당신은 계획한 모든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일을 하려하거나 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당신이 기발한 생각이 나 하고 싶은 모험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도우려 달려올 겁니다. 좋은 예로, 당신이 베푼 모든 값진 호의를 이용하지 않고도 당신의 행적 덕분에 모든 사람들은 프로젝트가 끝이 나고 당신의 사상이 실천되어, 비전이 현실화되는 순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과 함께 일함으로써 그들의 삶이 보다 더 나아졌다는 것을요. 왜냐하면 그들이 당신에게 준 것 보다 훨씬 많은 것을 당신이 그들에게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식으로 반복하여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더 많이 주십시오, 그럼 더 많이 받습니다. 더욱 주십시오, 그럼 더욱 더 많이 받습니다. 스

티브, 가능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히 재능과 자신을 부여잡고 있는 게 왜 비생산적이고 어리석은 짓인지 알게 될 겁니다.”

나는 결코 이타주의를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완전히 수궁이 잤다. 그저 GTY의 힘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닭살이 돋았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들이 약간은 역설처럼 돌고 돕니다.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을 더 잘되게 만드는데 더 많은 초점을 줌으로써 당신도 위대한 사람들 중 한 사람이 됩니다. 모든 인간들 중 가장 귀한 모임에 가입하게 됩니다.”

“어떤 동료에 모임이죠?” 내가 물었다.

“대가들의 조물주입니다.” 그가 답했다.

“회비만도 천문학적이겠는데요.” 내가 말했다.

찰스는 이미 내 무례한 태도 대부분이 척하는 거란 걸 눈치 채고 있는지 내 말에 그저 미소만 지었다.

“그 위대함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찰스가 말했다.

“이것과 관련이 있나요?” 나는 자신을 복제하라 라는 마지막 문구를 펜으로 짚 누르며 물었다.

“네, 그 문구와 모두 관련이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보다 다른 이들을 더 잘되게 만드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그가 말했다.

“왜 충분치 않죠?” 내가 물었다. “대가들의 창조자나 그런 것들이 체계는 꽤 괜찮은 목표나 유산처럼 들리는데요.”

“그러나 그런 모임이 가장 중요한 리더십을 수행하는데 충분치는 않습니다.”

나는 그가 이 문제를 어디로 끌고 갈지 똑똑히 알았지만, 그에게서 직접 듣고 싶었다.

“어떤 리더십 활동을 말씀하시나요?” 내가 물었다.

“당신이 이끌려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당신이 했던 것처럼 행함으로써 세계를 변화시키는 거말입니다.” 내가 짐작한 대로 그가 대답했다.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의로운 행동과 친절을 베풀도록’ 도우세요.” 내가 말했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찰스가 말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행한 행동을

다른 사람이 꼭 같이하도록 가르침으로써 자신을 확장하며, 자신을 아낌없이 주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복제하십시오.”

“그럼 결국에는 세상이 변할까요?”

“제가 그걸 입증할 순 없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이며 분명하게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니까?”

“그건 분명 나쁠 건 없다는 거죠.”

찰스는 펜과 메모장을 챙기고는 가방에 집어넣었다. 그는 의자를 뒤로 빼고 일어섰다. 넥타이를 매만지고 채킷 중간버튼을 채운 후 소지품을 집어 들고 미션 불리바르로 가는 계단 쪽으로 걸어갔다.

“이봐요!” 나는 뒤에서 그를 불렀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현장 학습시간입니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소리쳤다. “갑시다! 시간 없어요.”

나는 일어서서 길 아래쪽으로 찰스를 쫓아갔다.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혼자 나는 생각했다.

제 6 장

문 위에 걸린 황동 간판에는 단풍나무 엔터프라이즈라고 새겨져 있었다.

찰스와 나는 미션을 가로질러 해안 쪽 보도블록에서 400미터가량 남쪽으로 걸어갔다. 값비싼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맨 그의 행색은 이곳 퍼시픽 해안 근처에 사는 스के이트 타거나 빈둥거리며 지내는 사람 내지는 파도타기 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아서 약간은 부끄럽게 느껴졌다. 설사 불편함을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그는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나는 어디로 가는 지 묻지 않았고, 그도 어딜 가는지 결코 알려주지 않았다. 두 블록쯤 지나서 왼쪽으로 돌아 문까지 이어진 해안과 나란히 있는 좁은 길 아래쪽에서 우회전 했다.

찰스가 노크를 하고 여러 번 벨을 울렸지만 아무 인기척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보도블록과 바다로 향해 있는 건물의 앞쪽을 돌아 골목길 뒤쪽으로 올라갔다. 나는 미션 베이와 퍼시픽 해안을 거닐며 수 년 동안 수백 번도 더 이 건물을 지났을 테지만, 전에 이 건물을 눈치 채지는 못했다.

그 건물은 빛바랜 노랑과 초록차양이 눈에 띄는 이런저런 특색이 없는 오래된 건물로, 찰스의 암회색에 하얀 유니폼과는 우스운 대조를 이뤘다. 과거에 어떤 기업이었던, 메이플 트리 엔터프라이즈는 그 건물의 상단 부분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건물의 아래쪽 현관이 티셔츠, 선글라스, 관광엽서 그리고 갖은 종류의 자잘한 샌디에이고 장신구를 판매하는 가게와 록, 그린지, 핑크, 얼터너티브, 스카, 레게 같은 해안가 고유 장르를 주로 판매하는 음반가게가 뒤섞여있는 평범한 야외 매장으로 개조되어 있었다.

찰스는 방과제에 몸을 기대어 머리를 뒤쪽으로 젖혀서 손가락 두 개를 입에 갖다 댔다. 그는 블로우건에서 발사된 화살처럼 고막을 찢는 듯 휘파람 소리를 냈다.

“와우.” 내가 말했다.

그는 멋진 휘파람을 분 걸 자랑스러워하며 나를 보고 웃었다.

“이봐요!” 찰스는 눈이 부셔서 손으로 햇빛을 가리고는 발코니 너머를 바라보며 소리쳤다. “플루메리아! 거기 있어요?”

“플루메리아가 뭐지?” 나는 혼잣말처럼 소리 내어 중얼 거렸다.

“자, 플루메리아 메이플은 오직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는 힘주어 말했다.

“오직 유일한 사람이라뇨?” 난 좀 더 큰 소리로 물었다.

고개를 들어 열린 미닫이 문가에 펼쳐있는 커튼을 보았다. 잠시 후 진짜 플루메리아 메이플이 의기양양하게 발코니 너머에 서서 우리에게 두 팔을 한껏 내뻗었다.

“의기양양”하다는 표현은 예를 들자면 “알몸으로” 나 좀 덜 미묘한 표현인 “털 뽑힌 칠면조처럼 벗은” 같이 완곡한 표현으로 여겨지지만 나는 지금 그런 표현으로 쓴 게 아니다.

그녀는 그야말로 -- 경솔하게 이런 말을 하지는 않지만 -- 거대했다. 신장이 177센티미터 정도에 100킬로그램을 육박하여 몸무게만으로 친화력을 내뿜었다. 나는 그녀를 보자마자 좋아하게 되었다. 추측컨대, 그녀의 나이는 60대 초반이고, 입고 있는 밝고 화려한 꽃무늬 드레스가 그녀의 신체 사이즈를 더 크게 보이게 했다. 하얀 피부, 홍조를 띤 볼과 열은 파란색의 눈으로 판단해보건대, 그녀의 몇 가닥 염색된 머리카락 색은 아마도 예전에는 자연적으로 약간 붉은 색이 도는 금발이었을 거란 상상이 갔다. 손을 엉덩이에 대고 팔꿈치 양쪽이 밖으로 볼록 나온 채로, 우리 머리 위에 그렇게 서있는 모습은 큰 꽃무늬가 그려진 찻주전자와 상당히 닮았다.

“이런, 처키 롤랜드. 브룩스 브라더스 잠옷을 입고서 어른인 것처럼 굴지 마!” 그녀가 아래를 향해 소리쳤다.

“안녕하세요, 메이플.” 찰스는 무의식적으로 그의 양복 앞부분을 매만지며 말했다.

그는 웃고 있었지만, 목소리에서 주저함이 느껴졌다. 분명 “처키”라고 불리는 것이 싫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에 대한 애정이 눈물만큼은 남아있었다. 최소한 그녀에게서 그런 말을 들으면 말이다.

“올라와요, 처키.” 그녀가 웃었다. “우둔한 당신들 머리에서 스트레스를 날려버려야 하겠군요.”

“네. 그 충고 감사드립니다, 메이플. 전 당신 없이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거든요.”

“비행기 태우지 마세요!” 그녀는 지식인 협회의 회원으로 자신의 입담에 우쭐해했다. 아마도 그게 내가 그녀를 보자마자 좋아하게 된 이유인 듯하다.

“자, 뒤로 오면, 올라오게 해 줄게. 내가 이곳에서 당신의 친구를 만날 수 있을 테니.”

찰스는 우리가 왔던 길을 되돌아 걸으면서 불만을 나타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거 알지, 찰스!” 플루메리아 메이플이 등 뒤에서 외쳤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뭔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지만 메이플 여사가 발코니에 모습을 나타냈을 때부터 눈에는 웃음기가 가득했다.

이번에는 뒷문이 뒹 소리를 내며 열렸다. 우리는 들어가서 꼭대기 층에 있는 야외공간까지 연결된 계단을 올라갔다. 미닫이 문 밖은 햇살이 비추고 있었지만 방안은 그 나뭇잎의 빛으로 밝았다. 내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자 당당한 모습의 고가 컴퓨터 단말기가 잇달아 또렷하게 보였다. 이내 여섯 대의 컴퓨터 단말기 반원의 중앙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걸 깨달았다. 각각 세 명의 남성과 여성 운영자들이 우리 쪽에 등을 돌린 채 바다와 발코니 쪽을 향해있었다.

그들 중 두 명은 우리를 보려고 가볍게 의자를 돌렸고, 한 명이 어깨너머로 가볍게 인사를 했다. 그러나 도착하면서 일으킨 소동 때문에 우린 예의 없는 사람들이라고 보일 수밖에 없었다.

플루메리아가 다가와서 찰스와 진심어린 포옹을 했다. 그들이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왔다는 것과 서로 간에 온정과 애정을 나누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나서 찰스는 우리를 인사시켰다. 플루메리아는 내 손을 양손으로 잡고 흔한 인사말을 나눈 뒤에도 손을 놓지 않았다. 그녀는 산타클로스 부인을 연상시키는 미소를 지었다.

여전히 내 손을 잡은 채, 큰방을 나와 꽤 크지만 적당히 꾸민 사무실로 개조된 침실로 들어갔다. 한쪽 구석에는 작은 테이블과 안락해 보이는 의자 몇 개가 있었고, 다른 쪽 큰 은행나무 책상 위에는 커다란 컴퓨터가 놓여 있었다.

플루메리아는 우리에게 앉으라는 몸짓을 하고 나서 키보드로 빠르게 타자를 쳤

다.

“이것만 하고…!” 라며 키보드를 두드렸다. “그리고 … 이거!” 툭. “그리고… 끝!” 신사여러분, 이제 오로지 여러분만이 제 관심사입니다.” 그녀는 우리와 자리를 같이하며 외쳤다. “제 관심을 헛되이 하지 마세요.”

우리가 헛되이 하지 않았다고 말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제 7 장

플루메리아 메이플은 분명 재미있는 사람이긴 했지만, GTY “현장학습”의 일환이라는 거 외에 우리가 왜 거기에 있어야하는지 그 이유를 나는 정말 몰랐다. 찰스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내가 대화를 시작하길 기다리는 것 같았다.

“그 쪽지.” 찰스는 손가락을 초조하게 흔들며 말했다. “플루메리아에게 그 쪽지를 보여주죠.”

“이런.” 나는 고분고분하게 뒷주머니에서 종이쪽지를 꺼내어 플루메리아에게 건네며 말했다. “내가 독심술가로 보이냐?”

쪽지를 읽으면서 그녀의 얼굴은 점점 호기심에서 수궁하는 표정으로 변했다. 그리고 나서는 갑자기 읽은 글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한 듯 그녀의 얼굴빛이 햇불처럼 밝아졌다.

“와, 이런. 굉장한데! 멋져!” 그녀가 소리쳤다. “이걸 누구에게 보여줬나요?”

“아뇨.” 찰스가 불쑥 끼어들었다. “메이플 마우스 여사, 당신이 한 마디 더 하기 전에, 여기에서 우리가 의논할 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찰스는 곧 이어 우리가 들고 온 그 사건들에 대해 훌륭하게 설명하기 시작했고, 내가 성공적으로 GTY트레이닝을 완수해야만 그 쪽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찰스와 나의 합의 사항을 빠짐없이 말했다. 관련사항들을 요약해 말하고, 불필요한 사항은 생략하고 설명하는 그의 능력에 놀랐다.

“그럼,” 하고 플루메리아가 찰스에게 말했다. “나는 일종의 초대 강사네요, 그죠?”

내가 손을 들자 그녀가 나를 지목했다.

“실례지만, 메이플 여사,” 짐짓 학생처럼 말했다.

“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 정확히 말하면 좋을까요?” 잠시 뜬눈을 들었다. “전 정말 이곳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이런 말해서 죄송한데, 당신이 누군지 모르답니다.”

찢린 듯 어깨를 으쓱이는 찰스를 그녀가 나무라듯 쳐다봤다.

“저는 비밀이 좋습니다.” 그가 말했다.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거 알죠, 처키.” 플루메리아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연타로 날릴 펀치의 전조임을 이미 알았다. “당신처럼 똑똑한 사람이 때론 자기생각만하는 사람처럼 행동하더군요.”

사무실로 들어가서 그녀는 컴퓨터 주변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재빨리 소개했다. 그들이 화면에서 잠시 눈을 떴고 인사를 할 때에는 괴짜 같은 표정에 정중하면서도 쾌활한 모습이었다.

“저마다 다들 천재들이에요.” 그녀는 경외심에 머리를 끄덕이며 나에게 말했다.

“웁습니다.” 끝에 앉은 사람이 말했다.

플루메리아는 천재에게 키스를 보내며 말했다. “메이플 트리 엔터프라이즈는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킹 세계의 숨은 공로자예요. 우리 회사에 대해 들어보진 못하셨겠지만, 분명 우리가 개발하고 운영하는 웹 사이트들과 블로그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라며 몇 개의 이름을 냈다. 블로그에 대한 지식이 없는 나에게조차 굉장히 대단한 목록이었다. 어떤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는 상당히 전도유망하다는 걸 알고 있었고, 또 다른 사이트는 이미 기업 세계에서 거의 보편화됐다.

“포춘 500대 기업의 고객맞춤형 e-러닝 인트라넷 사이트도 개발했습니다.”

“요컨대,” 찰스가 드라마틱한 몸짓으로 팔을 휘두르며, 그녀의 말에 끼어들었다. “메이플 트리 엔터프라이즈는 독특하면서도 겸손이라는 포장지에 싸인 인터넷 거대기업인겁니다.”

“이런, 세상에.” 나는 늘 그렇듯 진솔하게 감정을 드러냈다.

“그러나 여기계신 제 절친한 친구 분께서 자신에 대해 얘기하지 않은 건,” 찰스가 계속 말을 이어갔다. “이분이 6개 정도의 비영리조직과 자선조직의 이사진을 맡고 계시다는 겁니다.”

플루메리아는 그만하라며 살며시 손을 흔들었지만, 찰스는 무시했다.

“이분은 독지가라는 단어에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그녀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굉장한 마음의 소유자라는 그 이상의 증거입니다.”

“웁소, 웁소.” 화면에서 고개를 결코 들지 않던 천재가 말했다.

눈 위를 비추는 석양처럼 플루메리아 메이플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게, 그건 좋습니다.” 찰스에게 말했다. “제가 잘 몰라서 말인데요, 이 모든 게 무엇에 관한 거죠?”

“글쎄요.” 찰스가 플루메리아에게 얘기하듯 말을 했다. “메이플이 자신보다 남을 더 잘되게 하기의 철학에 관한 그녀자신의 견해를 당신에게 알려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언제나 찾아다닐 만큼 의욕이 대단하며 실력 있는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그 쪽지에 나온 사람들을 알고 계시죠.” 나는 자연스럽게 그녀가 그 이름들을 꺼내길 바라면서 말했다.

“오, 네. 소중한, 그럼요, 사실 소중한 친구들이죠. 그리고 그들 중 한 명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녀는 꽤 성공한...”

“워워, 메이플!” 찰스가 난리를 쳤다. “아마도 수업이 먼저이고, 사람얘기는 나중일걸요.”

“좋아요, 처키!” 그녀가 뒤에서 외쳤다. “흥분하지 말아요.”

플루메리아는 내 어깨에 팔을 두르고, 사무실로 다시 나를 데리고 갔다.

“스티브, 자신보다 남을 더 잘되게 하기. 이는 가볍게 받아들여지는 생각이 아니에요.” 그녀가 걸어가면서 말했다.

“분명 그렇죠.” 내가 말했다.

그녀는 멈춰 서서 내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래요. 가볍게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저도 압니다.” 내가 거들었다.

“그래요? 정말로?”

나는 그녀가 어떤 식으로 말을 꺼낼지 몰라서 잠시 뜬눈을 들었다.

“그렇게 말을 해서 미안해요, 스티브. 근데, 빈 말은 아니죠?”

“뭐라고요?” 그녀의 말 속엔 뼈가 있었고 순간 나는 당황했다. “제가 사기꾼이라고 말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당신이 그런 업종에 있는지를 묻는 거랍니다. 강연도 하고 책도 쓰시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강연도하고 책도 쓰죠.”

“그럼, 이젠 그걸로 됐습니다.”

“제가 다른 일을 안 한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내 자신을 방어한다는 불편한 느낌을 받으며 말했다.

“아니요, 제 말 뜻은 그게 아니에요. 글을 쓰고 강연을 하고, 이제껏 어떤 일을 해왔든 장래에는 그걸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신보다 남을 더 잘되도록 하기 위한 원리들을 알아보고 싶다면, 그 원리의 실천에 전념해야한다는 말이죠.”

그녀는 말을 멈추고 찰스를 본 후 나를 다시 쳐다보았다.

“저랑 약속 한 가지하죠, 스티브. 맹세예요.”

“맹세라뇨?” 나는 그 분위기를 가볍게 하기위해 농담을 던지고 싶은 유혹을 참아가며 물었다.

“스스로 자신보다 남을 더 잘되도록 하기위한 원리들을 실천해 본 후에 그것에 대해 얘기를 하던 글을 쓰든 해야 합니다.”

근 20여 년 동안 나는 리더십 개발 분야에 몸담아 왔다. 더 나은 리더가 되는 방법에 대해 거물급 임원들을 대상으로 셀 수도 없이 많은 워크숍을 개최했다. 단 한 번도 그리고 그 누구도 내게 실천을 해보고 가르치라는 말을 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에서는 이치에 맞는 말이었다.

그래서 나는 오른손을 들었다. “등록하죠.” 라고 말했다.

“맹세한 겁니다.” 사무실 컴퓨터 옆 의자로 나를 안내하며 말했다.

솔직히 빗대어 말하면 보통 나는 서명란에 서명하길 꺼려하지만, 이 경우 정말 맹세를 하는 것이 중대한 거래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떤 예상치 못한 이유 때문에 GTY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거나 건딜 수 없으면, GTY에 대해서만은 강연하거나 글로 쓰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그래라며 맹세를 했지만, 그래도, 난 완벽하게 열성적이지 못했다. 진지하지도 않았다.

물론 내가 틀렸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걸 할 차례입니다. 스티브, 수표 책 가지고 있죠?”

“제 수표책 말입니까?”

“네. 알다시피, 은행이 돈을 찾을 수 있도록 한 작은 책 말입니다..”

머릿속에 시끄러운 경종소리가 울렸다. 그녀가 지금 내게 돈을 요구하는 건

가?

“네. 수표책이 뭔지 압니다.”

정신이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놀랄 따름이다. 죽음에 임박해서 지나간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내 머릿속은 24시간 전에 있었던 사건들이 되감겨 들어차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정신이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게 가능하다고 믿는다.

나는 찰스와 관련된 쪽지를 발견했고, 그를 쫓아 여기에 왔다. 그러나 이 사람들에 대해 진정 무엇을 알고 있었나?

전혀 아는바가 없다. 머리가 멍하다.

누군가가 너무 사람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나는 사람을 믿는 경향이 있다. 찰스 롤랜드에 대해 조사도하지 하지 않은 채, 다만 액면 그대로 그를 믿었고 어울렸다. 기타 가게에 그 사람은 찰스를 알았지만, 어떤 자격으로? 아마도 기본적인 고객거래를 위해 필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플루메리아 메이플은? 어째서 나는 온라인 기술세계에서 걸으로 그렇게 영향력 있는 여성에 대한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었을까? 그리고 이제 그녀가 내게 돈을 요구하고 있다? 뭔가 매우 잘못 되었다.

“왜 제 수표책이 필요한가요?” 문을 노려보다가 그녀에게로 다시 향했다.

“메이플 신탁회사 앞으로 수표를 작성한다면...” 이라고 플루메리아는 좀 더 상냥하게 말했다.

나는 잠시 동안 동조하는 척 했지만, 요컨대 뭔가를 쓰겠다는 의도는 없이 기다렸다.

“... 이제 계좌에 25만 달러 전부가 없다고 가정해보죠...”

“전부 얼마라고요?”

“... 그럼 오늘은 첫 기부로 5천 달러에서 시작합시다.”

나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처키! 이 얘긴 안했군요?”

찰스 롤랜드는 어깨를 다시 한 번 으쓱했다.

“정말 미안해요, 스티브.” 그녀는 더할 나위 없이 진심어린 투로 말했다. “제가 당신을 놀라게 한 것 같군요, 여기 계신 꼬마 처키에게 감사를 표하고요. 자,

당신에게 얘기를 할게요. 오늘은 계좌에 가지고 있는 돈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나중에 오천달러의 나머지만큼 금액을 올리죠.”

“아니요.” 나는 생각을 정리하며 답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당신들이 어떤 신용사기를 벌이고 있는지, 나를 얼마나 어리석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 당신들 같은 사람에게 기부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자 내 목소리도 덩달아 커졌다.

내가 문 쪽으로 걸어가자 찰스가 벌떡 일어서서 내 길을 가로막았다.

“제가 생각하기에,” 찰스가 그 상황에서 너무도 조용히 말했다. “저 멋진 여성이하는 말을 끝까지 들어줘야겠습니다.”

난 이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왜 이러십니까? 당신이 제게 강제로 돈을 내도록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겠지요.” 처키가 말했다. “왜냐면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니라면,” 그는 거의 속삭이듯 말을 했다. “몇 분 전 당신은 맹세를 했어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GTY를 실천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수표 쓰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나요?”

“이렇게 설명하지요.” 그가 이제는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당신이 속은 겁니다.”

제 8 장

어떻게 그렇게 안심하면서 동시에 그렇게 어리석다고 느낄 수 있는지 조금은 수수께끼였다. 찰스와 플루메리아는 박장대소하기 시작했다.

“오, 처키! 좋았어! 저 멋진 여성이 하는 말을 끝까지 들어줘야겠습니다.” 그녀는 찰스의 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그의 흉내를 냈다. “처키, 똑똑해! 맘에 들어!”

찰스는 눈물이 날 정도로 웃었다. “네, 메이플 당신도요! 25만 달러 전부가 없다고 칩시다. 바로 그 말을 할 때 그의 머리가 멍해졌을 겁니다!”

“오, 성공했어.” 플루메리아가 떠들어댔다. “성공이야”

그들은 서로 하이파이브를 했다.

“저 아직 여기 있습니다.” 내가 말했다.

“미안해요, 스티브. 미안, 미안.” 플루메리아는 소매로 눈물을 닦았다. “앞으시면 설명해드릴게요. 시작하죠.”

어쩐지 나에 대한 얘기란 걸 빼고는 그 농담이 무슨 말인지 여전히 감이 잡히지 않아 나 혼자 멧쩍은 웃음을 지었다. 우리 셋은 작은 테이블 주변에 앉았다.

“단지 당신의 돈을 누군가 가지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 때 느끼는 본능적인 감정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이용하려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신이 말곤했죠. 그러니깐 은행에 있는 힘들게 번 돈 말이죠. 방금 막 만난 사람에게 그 돈을 그냥 내놓지 않았어요. 놀림당한다고 확신했죠.”

“물론, 저는 화가 났습니다.” 내가 말했다. “당신도 그럴 겁니다.”

“물론이에요. 당연하죠.”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러나 만일에.” 그녀는 망설이듯 말을 이었다. “만일 당신계좌에 십만 달러가 있다면 어떨까요? 반응이 달리 나타날까요?”

나는 그 말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글쎄 잘 모르겠어요. 위협이라기보다는 훨씬 흥미 있었겠죠. 그러나 십만 장자도 그런 돈을 막 주지는 않을 겁니다.”

“저기요,” 찰스가 대화를 가로챘다. “우리 얘기를 좀 더 마저 들어주시겠어

요?”

“이런 식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말이죠!”

“만약 그렇다면 어떻다는 겁니까?”

“당신을 믿고 좋아한다면, 물론, 저는 당신 얘기를 끝까지 듣길 원할 겁니다. 사실, 저는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아내려고 접근까지 했습니다.”

“네” 플루메리아가 말했다. “신뢰. 관계. 훌륭한 인간의 자질이죠. 만일 사람 사이에 신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통하는 게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가 나를 가리켰다. “다음 단계로 가죠, 억만 장자 씨. 제 제의를 듣고,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많은 가망성이 있는 멋지고 장대한 생각이라는 결정을 내렸어요. 당신은 그 생각을 믿었을 뿐 아니라 그걸 수행할 제 능력을 믿은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억만장자라는 걸 기억하세요.”

“아마 수표를 작성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할 겁니다.” 나는 대답했다.

“예를 들면 어떤 일이죠?”

“글쎄요, 만일 제게 그런 돈이 있다면, 정재계에 많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알고 있을 겁니다.” 나는 이 공상을 즐기고 있었다. “그리고 당신에게 딱 어울리는 사람들을 소개해 주겠죠.”

“그래서 돈 이상의 것을 줄 테죠.” 그녀가 되풀이해서 말했다.

“네. 그리고 전 당신회사의 이사자리를 원합니다.”

“좋았어요!” 플루메리아가 손을 뻗으며 말했다. 나는 악수를 했다.

“자, 제게 필요한 건 그 십억 달러입니다.” 나는 웃었다.

“아하!” 찰스가 외쳤다.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그렇죠?”

“뭐가요?”

“자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신은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죠.” 플루메리아가 말했다. “이제, 십억 달러는 잊읍시다. 당신도 알다시피, 이건 돈과 관련된 게 아닙니다. 당신이 지닌 다른 모든 자산을 돈에 비유해 생각한 겁니다. 실제 중요한 건 당신의 재능, 지식, 연고, 자신감, 믿음 그리고 시간 모두입니다. 스티브, 이 모든 게 당신의 자산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런 식으로 이걸 생각한다면, 방금 전 이해했던 것보다 억만장자가 되는데 훨씬 근접했다고 확신할 겁니다.”

“아마도 그렇겠죠.” 나는 말했다.

“이제, 이게 핵심입니다.” 플루메리아가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처키가 당신에게 GTY의 두 번째 신조에 대해 말을 했나요?”

“네.” 나는 더듬거렸다. “그게…음… 자신을 아낌없이 줘라?”

“맞아요. 이 질문에 답해 보세요. 만일 당신의 ‘계좌’가 비어있다면 어떻게 당신 자신을 줄 수 있을 까요?”

“아님” 찰스가 끼어들었다. “이렇게 생각해 보죠. 다른 사람의 성장과 번영을 위해 의미 있게 자신의 것을 주기위해…”

“우선 자신을 확장해야 합니다.” 플루메리아가 찰스의 말을 마무리하며 말했다. “자가 확장은 영구적으로 진취적인 정신이에요. 당신이 남을 위해 뭔가를 하는 토대가 되므로 이기심과는 동떨어진 거랍니다.”

“저도 그런 소리를 좋아합니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그러나 행동보다 그건 말이 더 쉽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부분 좋은 말들은 행동보다 말하기가 쉽지요.” 플루메리아 메이플이 탄식하듯 말했다. “그러나 우리는 엄청난 이점 한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본디 포용력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지속적으로 엄청난 영향력과 상호 접촉하려는 선천적인 욕구로 움직이죠. 다른 사람에 대한 당신의 영향력은 샌디에이고에 있는 이 동네, 몇 평 안 되는 이 방에 있는 당신의 몸과 머리보다 훨씬 더 커요. 당신의 영역은 그야말로 무한합니다.”

그녀가 말의 수위를 높였다. “확장된 의식과 그 외에 이런저런 것들을 말씀하시는데요. 플루메리아, 이런 말해서 미안하지만 그건 우리가 일생을 두고 얘기를 나눠야 할 철학적인 논제입니다.”

“글쎄요, 진 그게 흥미로울 듯합니다. 철학이 밥 먹여주지는 않죠. 스티브, 잠시 철학은 잊어요. 그리고 기술만 생각하죠.”

그녀는 자신의 일터를 가리키며 팔을 뻗었다.

“이 모든 사업과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사업들이 바로 현재보다 미래에 더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자신을 확장시키라는 그 원리 위에 만들어졌어요. 소셜 네트워킹, 블로그 세상, 모든 새롭고 곧 다가올 미래기술은 오히려 진정한 본성을 탐험할 수 있게 하죠. 우리는 물리적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점점 더 많은 사람과 접촉하길 원해요.”

“예를 들어, 모바일 네트워킹은 현재 걸음마 단계에 있지만 2012년이면 60억 달러의 산업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말 명심하세요, 2020년까지 어떤 것도 따라오지 못할 거예요. 아직 고안해내지 못한 기술은 고려조차 안했어요. 결국 이런 기술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살고 있는 구석구석에 퍼지면, 말 그대로 당신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과 접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2년 전 블로그를 잠시 시작하면서 웹에 대해 조금 아는 정도다. 내 인생에서 친구라고 셀 수 있는, 클릭으로 만난 친구가 아닌 진정한 친구의 숫자는 경험을 통해 상당히 늘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루메리아가 세밀하게 기획했던 식으로는 결단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나는 심오하며 새로운 시각에 동요했다. 플루메리아는 내 얼굴에 나타난 표정 뒤에 숨겨진 의미를 정확히 알아맞혔다.

“스티브, 거봐요. 당신은 자신을 확장하라의 첫 번째 요소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집중만 하세요. 과거 당신이 생각했던 외로운 어린사내가 아닙니다. 당신이 선택한 만큼 외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게 자신을 확장하라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홀로 고립된 상태에서 관계형성으로, 혼자에서 독립으로 그리고 나중에 우리로 당신의 시각을 바꾸세요.”

“비록 격언에서처럼 이 세상에 혼자 와서 홀로 가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마치 그게 항상 우리 사이에 적용되는 듯 행동한다면 그건 너무도 이기적인 게죠. 스티브 당신도 궁극적으로 이런 관점에 동조하게 될 겁니다. 인생에서 리더, 시민, 고용자, 임원, 부모, 배우자, 친구 공직자 같은 어떤 역할을 맡든(그리고 우리 모두는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모든 게 잘 풀려나가게 됩니다.” 찰스는 내 앞에 다리를 뻗으며 말했다.

제 9 장

플루메리아는 책상 위에 있는 대학노트와 펜을 내 쪽으로 던졌다. 펜과 노트가 내 앞 테이블에 쿵췌하며 놓여졌다.

내가 움직이기 전에, 그녀는 마치 “잠시 만요.” 라고 말하듯 집게손가락을 들고는 펜이 놓여있는 쪽 사무실 문에다 대고 소리쳤다.

“헤이, 천재!” 그녀는 큰 소리로 불렀다. “잠시만 이쪽으로 와줄래요?”

조금 뒤, 반원 끝에 앉아있던 소년이 카고 반바지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고 유유자적하게 방으로 걸어 들어왔다. 젊지만 애어른 같고, 테크노 광의 전형적인 모습을 발산하는 그의 외모와 태도가 맘에 들었다. 둥근 유테 안경, 아인슈타인 처럼 사방팔방 헝클어진 머리카락 그리고 이마에는 가벼운 여드름 자국. 그는 어정쩡한 웃음을 띠며 입구에 기대어 섰다. 기껏해야 18세 아니면 19세 정도로 보였다.

“여왕폐하?” 그가 말했다.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그녀가 말했다. “잠시만 앉아있어요.”

들어오는 내내 신하처럼 인사를 하고는 내 옆자리에 앉았다.

악수를 하며, 자신을 짐 핵이라고 소개를 했다.

“핵?” 나는 정확하게 그의 이름을 들었는지 분명치 않아서 물었다.

“네, 네, 그래요.” 그는 눈알을 굴리며 대답했다. “제 분야에서 너무도 분명하게 누군가의 별명으로 사용되고 있지요. 물론 제 잘못은 아닙니다.”

“여기계신 천재 분께서는 갓 스물한 살이예요.” 플루메리아가 또 다시 찻주전자처럼 우리 앞에 서서 말했다. “제 첫 고용인이죠. 정확히 4년 전 고등학교 3학년 때 스스로 와서 일했어요. 학교 수업과 공부를 하다가 짬이 나면 오죠. 그렇지만, 누구보다도 많은 일을 해내요.”

“어느 학교에 다닐 건가요?”

“캘리포니아 대학이요. 전공은 컴퓨터 공학입니다.” 이름 놀리기에 더없이 좋은 끼리를 제공했다.

“생물정보학이란 것도 복수전공하고 있습니다.” 찰스가 덧붙였다.

“굉장하네요.” 내가 말했다. 그리고 나서 머릿속에 좀 전에 들었던 내용들을 새겨 넣었다.

“잠시 만요.” 나는 특정인을 칭하지 않고 말했다. “스스로 와서 일했다고요? 그게 무슨 뜻이죠?”

“그건 플루메리아가 나든 누구든 고용하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짐이 말했다. “여왕님은 비영리 이사회에 이사로만 일하고 신념에 따라 돈을 기부하며, 가족재산을 감독하고 시간을 보내는데 만족해하는 다정하고 부유한 여성이었어요. 제가 그녀에게 기업가적 관심을 퍼뜨린 장본인입니다. 저는 정보 사업에 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고, 어느 날 그녀에게 그 사업을 하게했죠.”

“그는 너무나 똑똑했어요.” 라고 말하며 플루메리아가 웃었다. “전 그러자고 한 적이 없어요. 그가 다음날 노트북을 들고 와서는 처음에는 이해조차 못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뒤로 회사를 떠나지 않았죠.”

“스스로 와서 일했다.” 내가 말했다.

“넵. 그러나 당시 플루메리아는 저를 자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그랬어요, ‘좋아요, 만일 당신이 뭔가를 할 거면, 큰일을 하세요.’라고요. 그녀는 내게 필요한 인재를 파악하라고 말하고는 팀을 꾸려줬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세요.’ 라고 그녀가 말했죠. ‘만일 고용했는데 당신보다 더 낫거나 똑똑하지 않다면 고용인들이 성공하도록 해주는 게 당신의 책임이 될 거예요.’ 그 당시 그녀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는 별 뽀족한 생각이 없었지만, 어쨌든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밖에 있는 다섯 명 모두가” 라며 그는 문 쪽으로 손을 흔들었다. “저를 공부벌레로 만들었죠.”

“GTY” 그가 알거라 생각하고 말했다.

“여왕폐하께서 제가 할 일이 팀 사람들을 자신보다 남을 더 잘되게 만드는 거라 말씀하셨을 때 저는 정말 어색했습니다. 정말, 정말로 불편했거든요.”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물론, 나는 생각했다. 당신은 아마도 늘 그 방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 생각했던 잘난 체하고, 자기도취적인 10대였을 테니깐.

“이유가 뭐죠?” 나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다고 확신하며 큰소리로 물었다. 또 틀렸다.

“왜냐면 제가 뭘 줄 수 있을지 몰랐던 겁니다. 저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애였어요. 정말 다른 사람들과 일을 해본 경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저의 창의성과 기술을 보고 엄청난 자신감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진짜 저의 자화상에는 완전피짜라는 낙인이 온통 찍혀있죠. 제가 졸업 파티에 여자와 같이 갔던 이유가 제일 친한 친구의 여동생이 같이 갈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정말 제 자신이 가치 없는 사람이라 여겨져서, 내 자신의 모든 것을 준다는 명제는 쓸모없는 것처럼 여겨졌어요.”

나는 엄지손가락으로 그의 팀이 있는 쪽을 가리켰다. “분명 그걸 이겨냈죠, 그렇죠?”

“아주 많아요, 넵.”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요?”

“글쎄요, 솔직히 말해서, 여전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제 팀이나 고객 혹은 누구에게든 줄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저는 정말로 열심히 제 지식, 기술 그리고 경험을 늘려야겠죠. 그래서 저는 좋은 학교에 가서 마음먹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랍니다.”

“어쨌든, 전 항상 그러길 원했어요.” 짐은 플루메리아를 보고 웃었다. “그러나 그녀는 제게 왜 그게 중요한지에 대한 새롭고 심오한 이유를 알도록 도와줬어요. 플루메리아가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줬어요. 저는 점점 더 많이 성장하여 더 많은 것을 다른 이들에게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매우 분명해졌죠. 제가 사람들을 고용했을 때인 처음으로 돌아갔을 때 우선은 제가 이미 줄 게 많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스스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이요.”

“제가 그에게 시킨 첫 번째 일은 재고 조사였습니다.”

“어떤 재고 조사 말입니까?” 내가 물었다.

짐 핵은 일어서서 다음에 벌어질 일에 증인이 되길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며 재빨리 양해를 구하고 자리를 떴다. 플루메리아는 내 옆자리에 앉아 테이블 위에 내 손이 닿는 위치에 노트와 펜을 밀어 넣었다. 그녀가 뭘 원하

는지 알듯하여 대뜸 노트와 펜을 집어 들어 노트를 무릎 위에 놓고는 오른 손으로 펜을 만지작거렸다.

“첫 번째 임무는.” 그녀가 말했다. “반드시 자신의 자산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벽도 없고 천장도 없는 창고입니다. 아무리 영리해도, 아무리 세계 여행을 여러 번 했어도, 아무리 수많은 대단한 사람들을 알고 있다는 생각을 갖더라도 당신은 항상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항상 더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고 항상 더 많은 사람들과 연락을 하고 더 많이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에 대한 위대하면서도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자신의 재고 자산에 대해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아요. 자신이 뭘 가지고 있는지 모르며, 더 불행한건 자신들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척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생각에 위협을 느낍니다. 고갈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느낌은 무서운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고갈된 사람은 ... 뭐라고요?”

“공허함.” 내가 말했다.

“다 닳아버린.” 그녀가 되받아쳤다. “무의식의 최초 단계에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두려움을 느끼죠. 왜냐하면 주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예요.”

이전에 결코 그 같은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다. 끔찍함이 많은 감정을 만들어내고 내 인생, 특히나 기업 세계에서 겪었던 이기적 행동의 많은 부분의 이유가 됐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첫 번째 일은 당신이 뭘 가지고 있는 지 알아보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매일 깨어있는 모든 시간에 그걸 크게 키우기 위한 개인의 의무를 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녀는 내 반응을 기다렸다.

“네. 확실히 알아들었습니다.” 내가 답했다.

“좋아요, 그럼. 당신이 재고 조사를 할 시간이죠, 그렇죠?”

이 급소를 찌르는 말이 놀랍지 않았다. “그래, 제가 뭘 할까요?”

“간단해요.” 라고 그녀가 말했다. “목록을 작성하세요.”

“어떤 목록이죠?” 내가 되물었다.

“파버라는 창고 안에 있는 모든 값진 것들의 목록이죠.”

나는 짐이 말했던 것 같은 일종의 전율을 느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걸 제가 좋아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며 온순하게 말했다. 그녀는 내가 좀 더 자세히 말하길 기다렸다.

“아마도 긴 목록을 써내려가거나 자기 자신을 것처럼 과장하려고 하는 일종의 자만심 같은 거 때문이겠죠.”

“아니면?” 그녀는 허공에서 손을 흔들었다.

“아니면 ... 아마도 제가 대단한 목록을 가지고 있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 때문일 겁니다.”

“어느 쪽이든,” 찰스가 대화에 끼어들면서 말했다. “당신은 그것에 익숙해 질 겁니다, 제가 장담하죠. 시험 삼아 한 번 해보죠.”

“어떻게 시작하면 되는 겁니까?” 나는 미적거리고 있었다. 인정한다. 그러나 플루메리아의 약간의 안내가 꽤 많은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물어봤다는 게 즐거웠다.

“과학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그렇지만 당신은 어떻게 해서 든 분류하는 방법을 찾아낼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하나는 내가 잘 하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내가 해본 의미 있는 경험 혹은 내가 배운 교훈. 또 다른 하나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될지 모르죠. 그리고 기타 등등.”

“도망갈 곳과 숨을 장소는 어떤가요?” 불쑥 이 말이 내 입에서 튀어 나왔다.

찰스가 웃었다. “당신이 잘 할 분류는 불편한 자아 분석을 연기하기 위한 기술입니다. 분명 그걸로 노트 전체를 채워나갈 수 있을 겁니다.”

“참 재미있네요.” 내가 말했다.

그리고 나서 처음에는 느리게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제 10 장

10여 분간 목록을 쓰느라 애쓰는 동안 그들은 조용히 앉아서 기다렸다. 다행히도 플루메리아가 내게 골똘히 생각하는 걸 잠시 멈추고 나중에 시간이 날 때 다시 써볼 걸 제안했다. 강연자와 집필가로서, 내 경험에 관해서는 몇 가지를 썼고, 성격이라 생각한 걸 많이 썼다. 예를 들어, 목록의 첫 머리에 “성실한 친구”를 썼다. 그건 그리 특별한 게 아니어서 다시 보고 후에 그 목록에 상세히 설명하리라 다짐했다. 숙제라고 생각했다.

플루메리아는 그 목록을 보자고 하지 않았고, 나도 결코 보여주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걸 가지고 내가 뭘 해야 하는지에 관해 얘기했다.

“이건 연습이 아니에요.” 라고 그녀가 말했다. “멋지게 목표를 달성시키려고 당신을 훈련시키는 게 아닙니다. 이건 삶의 일부가 되어야하는 훈련이에요. 그걸 당신의 사고과정으로, 의사결정 방식으로 통합시키세요. 당신의 목록에 뭔가 할 일을 추가할까요? 그게 이미 기존에 있던 항목을 확장시키나요? 만일 그렇다면, 그걸 항목에 넣고 그렇지 않다면 빼세요.”

“그리고 나서 당신이 결정해서 일사분기에 한 번 정도 다른 재고 목록을 작성하세요. 그 일을 할 때마다 지난 번 보다 더 커지고 더욱 풍부해진 목록을 생각해내게 될 거예요. 매번 할 때마다 말이죠.”

“재고를 보유하는 것에서 도와주는 것으로 시각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의 재고를 더 늘리려는 목적, 즉 개인적 성장 뒤에 놓인 궁극적 임무가 모든 걸 다 쥐버리는 것임을 더 잘 이해하게 될 거예요.”

“실제로는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준다(giving)*라는 말은 대차대조표의 차변과 대변의 비교결과를 뜻하지만, 여기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찰스가 하품을 하고 기지개를 켜며 말했다. “빼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그건 근시안적으로만 보는 겁니다.”

“그럼, 자 어때요, 나의 새로운 친구.” 플루메리아는 일어서서 컴퓨터로 가며 말했다. “시각을 단절에서 연결로 전환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재고를 늘림으로

써 자신을 확장하세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더 있지만, 시작치고는 괜찮죠. 그렇죠?”

정말 그랬다.

“딱 한 가지 더” 그녀는 열심히 자판을 두드리며 말했다. “당신이 하겠다고 약속을 하여 상기시키는데요, 이 모두를 실행에 옮길 때 당신의 유산에 대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제 유산 말입니까?” 유산은 경영 컨설턴트 계에서 흔히 하는 발상이었다. 컨설턴트들은 늘 중역들에게 유산에 대해 생각할 걸 권했지만, 나는 은퇴할 나이가 멀었다.

“자, 만일 내 생각을 말한다면” 내 마음을 읽은 듯 그녀가 말을 꺼냈다. “어린이들은 나중에 뭐가 되고 싶은지 생각해 보기 시작한 때부터 자신들의 유산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권유받죠. 이건 나이와 관계없어요. 일생 당신이 되기를 원했던 인물과 관계가 있는 거지요.”

“모든 이들이 공통적으로 한 가지 유산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삶을 더 낮게 만들어준 사람으로 죽은 후에도 오랜 동안 기억되는 거랍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내가 말했다.

“좋습니다. 그럼 그것에 전념하세요. 당장 자신보다 남이 잘되게 하기 유산을 시작하세요.” 플루메리아가 말했다.

나는 무심코 침을 꿀꺽 삼켰다.

“걱정 마세요. 쉽게 말씀드리지요. 좋아요, 영구한 유산은 한 번에 하나의 벽돌로 쌓여지죠. 스티브, 당신이 하였으면 하는 건,” 그녀는 컴퓨터 모니터를 보면서 책상위에서 마우스를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한 사람을 고르고, 그 사람을 당신의 개인 GTY프로젝트로 만들어나가는 거죠. 그 사람을 키워서 당신 자신을 뛰어넘게 떠받쳐주는 겁니다. 거기에서 시작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보죠. 무리한 요구인가요?”

솔직히, 나는 그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해야 할 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어떻게 누군가를 내 개인 프로젝트 화할 지 분명치 않았다. 나는 너무나 소심해져서 손을 떼고 싶은 심정이었다.

“좋아요!” 그녀가 내 침묵을 동의라 여기고 말했다. “그러나 현명하게 사람을 선택해야함을 명심하세요. 당신이 순전히 믿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사람을 고르세요.”

“이제,” 그녀는 고개를 들고 나를 보면서 “당신을 위해 준비한 게 있어요.” 라고 말했다.

찰스와 나는 서로 쳐다봤다. 찰스도 그녀가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는 것 같았다.

“제가 당신의 이름으로 GreaterThanYourself.com 란 웹 사이트를 등록을 했어요. 당신이 앞으로 할 일과 관련 있죠.”

그건 흔치 않은 선물이어서 그걸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마치 줄 비누의 현대판 같았다. 아니면 과일 케이크. 아니며 줄 달린 과일 케이크거나. 그렇긴 해도 어느 누구도 내게 도메인 이름을 준적이 없었다.

“음, 감사합니다.” 내가 말했다.

그녀는 내 뜻뜻 미적지근한 반응에 웃었다. “분명 홈페이지 이용법을 알아낼 거예요.”

“메이플,” 찰스는 일어서면서 내게도 일어서란 몸짓을 하며 말했다. “변함없이 즐거웠습니다.”

“네” 나도 그 말에 동조했다. “제게 시간 내주셔서 무척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내심 비판했으면서.” 비록 내가 정말로 그랬더라도 그녀는 빙그레 웃었다.

그녀는 사무실로 우리를 안내했고, 짐과 그의 팀원들에게 작별인사를 했다. 좀 전에 들어왔던 문에서 플루메리아는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런데,”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진 젠더의 쪽지를 보여줘서 고마워요. 그 쪽지를 당신이 발견하고 나를 찾아왔다는 게 무척 기뻐요. 삶이 우리에게 그런 멋진 뜻밖의 기쁜 인연을 선물해 줄 때가 너무 좋아요.”

“진 젠더?” 찰스가 앞이마를 딱 하니 쳤을 때 내가 말했다.

“이런” 플루메리아 메이플이 말했다.

제 11 장

아마도 누군가가 어디에서 당신얘기를 하고 있다면 귀가 간지러울 것이다. 인터넷에서 당신이름이 검색되었을 때 얼굴이 화끈거릴지 궁금하다.

어쨌든, 메이플 트리 엔터프라이즈 사에서 돌아오자마자 지체 없이 노트북을 켜고 그의 이름을 검색했고 아마도 진 젠더는 그런 아침을 경험했을 것이다.

란초 산타 페에 사는 진 젠더는 은퇴한 음악선생님이었을 뿐 아니라 잘 나가던 전직 보험회사 임원이었으며 그것도 업계의 전설적 인물이었다. 그의 은퇴 파티에서 소감과 답사를 하는 대신 어떻게 기타로 비틀즈의 “멀고 험난한 길”을 연주했는지에 관해 쓴 오래된 기사를 발견했다. 보험업계를 떠난 동안 그는 여전히 몇 몇의 기타 수강생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 같았다. 란초 산타 페에 있는 그의 스튜디오 안내문을 보고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벨이 몇 번 울리고 난 후 젠더가 전화를 받았다. 내 소개를 하고 전화를 건 이유를 말했다. 그에게 쪽지를 읽어 준 후, 기타를 보여주러 잠시 들러도 될지 물었다. 그는 “옛 생각이 나네.” 라고 했고, 눈 깜짝할 사이에 나는 문 밖으로 나와 그의 스튜디오로 향했다.

기타를 조수석에 묶고(기타를 짐짝처럼 차 트렁크에 던져 넣을 순 없었다.) 5번 고속도로를 타고 북쪽으로 차를 몰았다. 란초 산타 페는 샌디에이고 해안가에서 내륙으로 몇 마일 들어간 작고 부유한 마을이다. 비록 많은 시간을 보내진 않았지만, 항상 그 곳 상류층의 스페인풍의 분위기가 좋았다. 진 젠더의 스튜디오는 텔리시아 레스토랑 건너편 건물 2층에 있었다. 마지막 계단에 올라섰을 때, 3호실 문 뒤에서 흘러나오는 날카로운 기타 리크²⁾의 선율을 들었다. 문에 표시는 없었지만, 정확히 찾아온 것 같아, 문에 붙은 숫자 바로 밑을 노크했고 음악이 멈추길 기다렸다.

약간의 침묵이 흐른 후, 문이 활짝 열렸고 기대했던 것보다 작은 키에 대가일지모르는 사람의 반들반들 빛나는 대머리가 내려다보였다. 그는 팔로 나를 밀치

2) 록과 재즈 음악같이 인기 있는 음악장르에서 리크는 짧은 음표로 구성된 작은악절

고 열린 복도 쪽으로 머리를 숙 내밀어서 급히 왼쪽 오른쪽을 살폈고, 마치 내가 도망치려했다는 듯 나의 팔을 짝 움켜쥐고 방으로 밀어 넣었다.

“누가 따라왔습니까?” 그가 다급히 속삭였다. 그는 나를 올려다보고는 내 기타 가방을 유심히 봤다.

나는 그가 일종의 쇼를 하면서 농담하는 줄 알았다. 그래서 나도 따라했다.

“본 사람 없습니다.” 라고 속삭였다. “누군가 따라왔어야 했나요?”

“당신 머리가 너무 길어요.” 그가 말했다.

“내 머리가요?”

그는 근심이 가득한 창백한 얼굴을 하고 내 두 눈을 들여다봤다. “갈기 머리 기르지 마.” 라며 그가 다그쳤다.

“뭐라고요?”

“갈기 머리말입니다. 갈기 머리 기르지 마.”

그러자 전화에 대고 그에게 간단히 말을 했을 때는 몰랐던 걸 깨달았다.

기타의 대가이며 선생님, 포춘 500대 기업의 은퇴한 부회장인 진 켄더는 전혀 농담이 아니었다.

한 마디로 말해 그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제 12 장

그는 조심스럽게 내 손에서 기타 가방을 받아들고는 따라오라는 몸짓을 했다. 홀을 내려가서 왼쪽으로 꺾어 그 집 뒤쪽으로 난 방으로 들어갔다. 꼬리에 꼬리를 문 아름다운 기타들 사이에 서 있다는 걸 알고 심장이 멎을 듯했다. 기타리스트들이 모두들 꿈에도 그리는 마틴, 펜더, 깁슨, 콜링스, 테일러, 통기타, 전기 기타, 구형기타 그리고 새로운 기타들이 있는 수집가의 소장품이었다. 나는 이 침착하지 못하고 몸집이 자그마한 젠더 씨를 다시 보았고, “미쳤다”는 내 판단을 재고해 보려했다. 이런 수집에 정신적 능력 대부분을 써야했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내가 이 자그맣고 기이한 사람을 결눈질하고 있을 때, 갑자기 어깨 뒤쪽을 누군가 톡톡 두드리는 느낌이 들었다. 깜짝 놀라 휘익 하고 돌아섰다.

“스티브,” 상당히 키가 크며 잿빛 머리색을 한 남자가 “제가 진 젠더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는 내 손을 힘 있게 꼭 쥐었다. 키 작은 남자에게 “칼, 파버씨를 안내해줘서 고마워. 팬찮으니 그만가도 좋아요.”

그 길로 칼은 가방을 도로 내 손에 쥐어 주고는 방을 썩새게 나갔고, 진 젠더는 애장품들을 보고 있었던 것 같았다. 난 마음의 평정을 되찾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

“젠더 씨, 죄송합니다.” 나는 말을 더듬었다.

“진이라고 부르십시오.” 그가 말했다.

“진. 저는 그가 당신인 줄 알았습니다.”

“저랑 닮았죠.” 다행히도 진이 내 말을 가로 막으며 웃었다. “놀랍지 않습니다. 그가 제 형이거든요.”

“눈치 채셨겠지만, 칼은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육십이란 나이가 그를 그냥 가만히 놔두지 않는군요. 칼은 항상 모험심이 강했죠. 그리고 너무 많은 ... 모험으로 ... 완벽하게 제정신으로 돌아오진 못했습니다.”

“이해합니다.” 내가 말했다.

“회사를 은퇴하면서 그와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후 글썩요, 형제처럼

그를 사랑합니다.” 그는 웃었다.

처음으로 나는 진 젠더의 진면목을 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카리스마를 발산하는 사람이었다. 사실, 진 젠더는 여태껏 보아왔던 그 연배의 남성 중 꽤나 수려한 외모를 가졌다. 대략 175센티 정도의 키였다.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복근 운동을 200회를 할 정도로 굉장히 건강해 보였다. 그는 베토벤의 초상화가 연상되는 긴 웨이브에 잿빛 머리를 하고 있었다. 60대 정도라 생각했었는데, 훨씬 젊어 보였다.

“기타 좀 봐도 될 까요?” 그는 끝내주는 1965년 산 펜더 트윈 리버크 앰프 양쪽의자 어느 쪽이든 앉으라는 모션을 취하며 말했다.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덮개를 열어 귀중한 물건을 진에게 건넸고, 그는 조심스럽게 받았다.

“네. 바로 이겁니다.” 그가 눈에 눈물이 고이며 말했다. “제시카는 샌디에이고 주에서 1학년이던 배고픈 학생으로 금전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그 기타를 팔았습니다. 그녀는 기타를 팔고난 후 내가 결코 그녀를 용서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울면서 전화를 했었죠.” 그는 줄을 몇 가닥 튕겼다.

“그랬나요?” 나는 제시카가 누군지 알고 싶어 안달하며 물었다.

“용서할 게 뭐 있나요. 그녀는 돈이 필요했어요, 배고픈 학생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기타가 아무리 맛있어도 먹을 순 없죠, 안 그래요?”

젠더의 옛 제자에 대한 사랑과 열정에 감탄했다. “그녀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글쎄요, 제시카 양이 이제는 더 이상 배고프지 않다 라고만 말해두죠.” 그는 웃으며 트워드 패치 코드를 기타 잭에 끼워 넣었다. “그리고 이제 ...” 그는 앰프의 전원을 켜고 스위치 몇 개를 작동시킨 후 놉을 돌리고 줄을 길게 튕겼다.

“이 오래된 친구가 낯선 사람 손에서 어떻게 길들어졌는지 봅시다.”

제 13 장

테크닉적인 면, 예술가적인 면 그리고 취향에 있어서 클랩튼, B.B 그리고 버디가이와 그의 기타 연주 실력이 동등하여 대가들과 견주어 볼 수 있었지만, 그 나름의 스타일에 있어서는 비교를 못했다. 그에게는 번개같이 빨리치는 음악적 재능이 아니라 선율과 부드러움이 있었다. 그가 마음으로 느끼는 것과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사이에 차이가 거의 없는 것 같았다. 이제껏 그렇게 가까이서 누군가가 직접 연주하는 걸 들어 본 적이 없어서 그의 연주에 넋을 빼앗겼다.

우리는 몇 시간동안 수차례 그 기타를 주고받았는데, 처음에는 이런 행동이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그러나 나는 곧 무엇이 진저를 그런 대단한 선생님이로 만들었는지 알게 되었다. 내 차례가 되었을 때, 그는 내게 용기를 북돋워주고, 이끌어주며 격려를 해줘서 적어도 내가 연주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갖게 했다. 주변에 걸린 악기선반을 보자는 권유를 기대했다. 하지만, 기다려야만 했다.

갑자기 -- 박자기가 박자를 놓친 듯 -- 진은 가방에 낡은 낡은 기타를 집어넣고 자물쇠를 잠갔다.

“좋은 추억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시카는 특별한 아이였고 이제 그녀는 특별하고 성공적인 여성이 되었습니다. 몇 년 전 그 쪽지에 썼던 것처럼 그녀가 매우 자랑스럽고 삶에서 이런 업적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는 말했다. 우리의 만남이 끝났다는 걸 암시하듯 그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갑작스런 출발 행동으로 깜짝 놀랐지만, 나는 떠날 준비가 거의 되지 않았다. 재빨리 움직이며, 셔츠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내어 들었다.

“이거 한 번 보시죠?” 하며 건넸다.

그는 주저하며 그걸 받아들였고, 그렇게 오래전에 썼던 쪽지를 보며 다시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정말로 프로 뮤지션이 되었습니까?” 그에게서 몇 가지 단서라도 얻을 요량으로 물었다.

“오, 그녀는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건 확실해요.” 그는 그리워하며 웃었다.

“최고들 중 누구 못지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니요, 그녀는 현역 뮤지션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여전히 그녀와 연락하시나요?”

“이따금씩 아마도 일 년에 한 번 정도 함께 모여 연주도 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우리가 함께 연주할 때가 내 생애 최고의 날이죠.”

조금 민감하지만 하고 싶은 질문을 했다. 내게 그런 질문을 할 권리가 있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알아낼 방법은 한 가지 있었다.

“진, 두 사람이 여전히 매우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네요?”

“네. 가르치는 건 멋진 일입니다. 때로 부모가 자녀에게 느끼는 감정처럼 학생이 당신의 일부가 되고, 그 관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단어를 선택하며 물었다. “그럼, 왜 그녀가 기타를 팔았을 때 가방에 쪽지를 남겨놓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녀가 기타를 팔아야했을 거라 생각은 했겠지만, 당신은 그녀가 그 쪽지를 평생 간직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쪽지를 발견했을 때 그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 진의 단어가 묘사하는 것만큼 장밋빛이었는지 너무 궁금했다. 어쩌면 제시카가 선생님을 기억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다.

“추측컨대 그녀가 그걸 발견 못한 겁니다.” 그는 굳은살이 박힌 손끝으로 그 쪽지를 훑으며 생각에 잠겼다. “놀래주려고 쪽지를 안감 속에 감춰했습니다. 난 그 쪽지가 언젠가 비어져 나오거나 어느 날 길을 걷다가 발견하고는 그녀의 삶에 뜻밖의 활력을 불어넣어 줄 거라 확신했습니다.” 그는 애처로운 미소를 지었다. “캣 같은 사람들은 그게 거기 있는지조차 모른답니다.”

내가 그녀에게 그 쪽지를 건넬 바로 그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너무도 오래전 진의 격려의 말을 전해 주다는 게 얼마나 멋진 순간일까. 결국 그녀의 삶에 활력을 불어 일으켜주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잠깐, 생각이 미쳤다. 그가 방금 뭐라고 한 거지?

“누가 알지 못해요?” 내가 불쑥 내뱉었다.

그는 갑자기 멈췄다.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더니, 곧 화색이 돌았다.

“제시카가 결코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말을 더듬었다.

“제시카라고 안하고, 캣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랬나요? 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네요.” 그의 목소리가 잦아들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나는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그가 마침내 한 숨을 내쉬며 말했다. “네, 당신 말이 맞아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인정했다. “대학에서 그녀의 친구들이 캐이라고 부르더니 이름처럼 되었습니다. 몇몇 사람만 그녀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갑자기 모든 게 분명해졌다. 나는 중앙지와 지방지 경제 신문에서 캐에 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었다. 캐의 굉장한 약력에서 음악에 대한, 정확히 말하자면 기타 음악에 대한 평생의 관심을 언급했다. 다른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 찰스에게서 배운 것일까? 이제 그 기사를 어디에서 읽었는지 기억이 났다. 그건 INC.매거진의 YSC기업과 CEO인 캐 캐서디에 관한 기사였다.

순간 모든 일이 완전히 이해가 되었다. 진의 학생 제시카는 샌디에이고에 본사가 있고 인재 파견 산업에서 시장 점유율이 높은 회사이며 이 나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비공개 회사들 가운데 하나인 YSC의 화려하고 젊은 변절자 CEO 캐 캐서디로 성장했다.

진의 학생은 결국 일종의 록 스타가 되었다.

그리고 나는 젊은 미스 캐서디의 악기였던 걸 가지고 있는 자랑스러운 주인이었다.

제 14 장

“진, 부탁 하나 해도 될까요?” 난 이 새로운 발견에 흥분하며 말했다.

그의 침묵을 말을 계속해도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내 직업이 무엇이고, 왜 이 쪽지의 뒷이야기에 관심을 가졌고, 이제 그 학생을 진심으로 만나고 싶어 하는지를 설명했다.

“그녀에게 나를 만났다는 얘기를 전할 수 있고, 그 쪽지를 그녀에게 건넬다면…….” 내 마음대로 진을 조종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기를 바라면서 말을 맺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내게 따라오라는 몸짓을 했다. 미닫이문을 지나 옆 레스토랑이 내려다보이는 발코니로 나갔다. 그는 난간에 기댔다. 그가 하는 대로 따라하며 말하길 기다렸다.

마침내, 그가 내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켓은 저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다들 알듯 그녀는 다 컸고,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원합니다. 요는 그녀의 일에 내가 끼어들거나 그러길 바라는 건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나는 실망감을 감추며 말했다.

그가 달래 듯 내 등을 쓰다듬었고, 긴 침묵이 흐른 후 내가 전화하기 직전에 찰스와 통화를 했다는 말을 했다.

“이제 찰스가 켓을 정말로 보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선 그의 일의 일부죠. 그녀의 신분을 누설하지 않겠다고 그와 약속했는데, 벌써 들통이 났네요.”

“비밀이 샀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는 내 말장난에 엄청난 재미를 느끼며 웃었다.

“네, 재밌네요.”

“찰스가 GTY의 내 ‘수업’에 대해 말했다고요?”

“물론입니다.”

“아는 바에 따르면, 당신이 원칙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오, 그 정도까진 줄 몰랐습니다. 전 그저 성미에 맞아서 했습니다. 어쨌든, 기타 선생으로서 말입니다.”

“괜찮으시다면, 그 원칙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켓을 만날 거란 바램입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찰스와 플루메리아 메이플에게서 배운 자신보다 남이 잘 되게 하기가 제게 정말 강한 흥미를 불러일으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직감으로 GTY에는 아주 심오한 뭔가가 있습니다.”

“그 직감이 정확한 것 같군요. GTY는 겉으로는 단순하지만, 직장에서는 다른 아닌 혁명입니다. 기타선생이 아닌 기업가로서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자신보다 남이 잘 되게 하기 철학을 발전시켰는지 말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죠.” 그는 발코니 난간 너머를 응시하며 말했다. “첫째, 저는 그걸 GTY 라거나 어떤 이름을 붙여 부르지 않았습시다. 제가 가르쳤던 그런 방식입니다. 아마도 켓 아니면 그녀의 사업 멘토 중 한 명일 지 모르겠지만, 누가 처음 그런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기술을 향상시키는 거보다는 학생과 함께 작업을 하거나 그 결과에 대해 어떤 일이든 하는 게 제가 할 일이며, 내 학생이 제 자신보다 나은 기타 연주가가 될 거라는 식으로 항상 자신보다 남을 더 잘되게 하기를 생각했습니다. 때론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나지 않기도 합니다. 어떤 학생들은 자신들이 제공받은 기회가 어떤 건지 이해를 해서 헌신적으로 열심히 하지만, 어떤 학생들은 여자 친구를 사귄 정도만 배우길 원합니다.”

“그 점 이해합니다.” 나는 처음 기타를 배웠던 고등학교 때를 회상하면서 말했다. 알다시피, 내 연애 실력이 상당히 향상되었다.

잠깐 동안 몇몇 좋은 학교, 대학 그리고 오랜 기간 알고 지내온 음악 선생님들을 생각해 봤다. 그들은 진이 했던 그 방식대로 자신의 역할을 설명했었나?

“부모들은 직감적으로 이 개념을 이해합니다.” 그가 계속해서 말했다. “애가 있나요?”

“넵. 애가 셋입니다. 장성해서 집을 떠나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당신만큼 잘 지내나요?”

“그들 나이 또래 때 나보다는 잘 지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떤 기분이 됩니까?”

말을 내뱉기 전 진의 질문에 답을 생각했다. “누군가가 뜨거운 펜치로 내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죠.” 나는 대답했다.

“그리고 자제분들이 열심히 일한 분야에서 성공했을 때, 혹은 일종의 승리감을 경험했을 때는?”

“하늘을 날 것 같죠. 도취감이랄까.”

“자신의 성공보다 자식의 성공이 더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나는 주저 없이 대답했다. “네, 그럼요. 의문의 여지가 없죠.”

“그러면,” 그가 계속 말을 했다. “자제분들이 당신보다 더 행복하고 충만한 생산적이고 성공적인 삶을 살길 원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라고 나는 대답했다. “그렇지만 저 또한 제 삶이 그러길 원합니다.”

“네, 물론 당신도 그런 삶을 원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인생에서 탁월함이 당신의 탁월한 능력을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걸 아시죠, 그렇죠?”

“물론, 그렇습니다.” 나는 그의 말에 동의했다.

“어쨌든,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훌륭한 부모들의 본능입니다. 부모는 자식들을 향상시키고, 자신보다 자식들이 더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린 자식들에게 성공을 위한 모든 기회를 주길 원하죠. 때론 엄청난 희생과 위험이 있지만 부모는 온전히 애들에게 몰입하죠. 위험을 각오하면서 말이죠. 제가 생각하기에, 위대한 스승들은 제자들에게 자식들에게 갖는 그 같은 희망과 꿈과 부모와 같은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전에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가르치는 것과 육아에 대해 생각해 본적이 없었지만, 그런 모든 가르침을 진과 함께 하고 있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진은 조금 애석해하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직장에 갈 때는 현관에서 위대하고 멋진 주는 본능을 억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기의 규칙이 그곳에서는 다른 양상을 띠니다.”

나는 그 점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글쎄요, 그게, 그렇지 않은가요?”

“아닙니다. 그건 다르지 않습니다.” 그가 완강하게 말했다. “우리가 단지 다

르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환경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애들은 당신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직위나 직책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없습니다. 내가 항상 아버지이고, 애들은 항상 내 아들이나 딸이라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돌아갈 높은 자리가 몇 개 되지 않아서 직장에서는 항상 앞서가려 경쟁합니다, 그렇죠?”

“분명 그렇죠.” 진이 대답했다.

“그리고, 학생들은 당신의 자리를 노리고 다툼을 벌이지는 않습니다. 직장에서는 그러나 같은 자원과 직위를 놓고 경쟁을 벌입니다.”

놀랍게도, 말을 하면할수록 더욱 맹렬히 반대의 입장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지만, 이런 토론에서 일부러 반대의 말을 한 적은 없었다. 나는 항상 직장에서 온정을 찬성해 오던 사람이었다. 나는 업무에서의 애정역할에 관한 두 권의 책을 썼고,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껏 써왔던 모든 단어들을 마음 속 깊이 믿고 있었다. 그러나 진에게 말한 것 또한 사실이였다.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하는 식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게 한 가지이고, 그와 다른 한 가지는 직장에서 동료들을 도우는 과정에서 자신이 뒤쳐지게 된다.

“얼핏 보기에는 스티브, 당신이 옳아요. 그리고 대다수 직장인들이 당신의 의견에 동감할 것입니다. 저 또한 당신 의견과 같았던 때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젠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직장에서건 어디서건 제한된 기회가 현실보다 더 많은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성공은 제로섬게임이라는 믿음을 지니고 있던 환상 말이죠.”

“간단히 말하면, 당신의 성공을 돕는다고 내가 실패하거나 내 입지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을 나보다 앞서나가도록 돕는 게 나를 그 만큼 뒤쳐지게 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밀어 올려 나를 뛰어넘게 하는 것이 나를 일 인치 낮추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당신을 성장시키지는 않잖습니까.” 라고 나는 말했다. 나는 다음 단어들을 신중히 생각하며 말을 멈췄다.

“들어보세요, 진. 이타심이란 인간에게는 고귀한 자질이라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만일 직장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을

밀어 올려 주는 데 쓰인다면,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내가 어디에 남겨지는 가죠? 제 사건으로는 결국 다른 사람들이 출세를 향해 날쌔게 움직이며 빛 속으로 사라질 때 그들의 엉덩이를 쳐다보면서 홀로 우물 바닥에 남겨질 처지에 놓일 것입니다.”

“스티브, 당신이 잘못된 은유를 예로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결코 우물 속에 갇혀있지 않아요.”

“좋습니다.” 내가 동의하는 체 말했다. “멋진 예를 들어 주십시오.”

“당신은 엘리베이터에 서 있습니다.”

“그럼, 내가 사람들을 내 머리위로 밀어 올리면…….”

“엘리베이터 바닥도 올라가고 있다는 점 명심하십시오.”

나는 그 예의 더 세밀한 부분들을 논쟁할 수 있었지만, 진이 플루메리아의 자신을 확장하라라는 원칙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택했다.

“그럼, 당신은 보험회사에 근무할 때 자신보다 남을 더 잘되게 하기의 사상을 실천했나요?” 나는 그를 만나러 오기 전 그에 대한 몇 가지 조사했음을 털어놓으며 물었다.

그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지며, 시멘트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그게 내 성공의 열쇠이며 이제껏 우리가 나눈 모든 얘기의 분명한 예가 된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저는 그런 예를 드릴 수 없네요. 사실, 은퇴를 하고나서야 그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기타 선생만큼이나 조금이라도 영향력 있는 리더였다면…….” 라며 그는 말을 끝내지 못했다.

“그럼, 직장에서 GTY를 실천하는 것은 당신에게는 이론이라는 말씀이네요.” 라며 나는 부드럽게 말하려 노력했다. “이제껏 당신이 해보지는 않았군요.”

“한 번 그래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붉어지며 말했다.

“어땠나요?” 내가 물었다.

“실패였습니다.”

제 15 장

진 젠더는 여가 활동삼아 연주하고 기타를 가르치는 데에는 대가였지만, 떠돌이 배고픈 블루스 연주자로서의 삶을 선택하기보다 보험회사 대표로서의 소명을 다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신입 영업사원으로서 관계판매(Relationship Selling) 101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들 -- 자신의 고객을 알 것, 고객의 말을 경청할 것, 그리고 고객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여 행복하게 만들 것 -- 을 실천하면서 단시간에 그 지역 최고 보험설계사가 되었다고 한다. 그가 매우 간단한 원리라 생각했던 수수료에 대한 욕심은 뒤로 미뤄라, 그럼 누구보다 많은 돈을 벌게 된다는 점을 순위 내에서 고군분투하는 영업사원들이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에 그는 늘 놀랐다. 진에게 그건 전혀 모순된 얘기가 아니라 단지 건전한 사업원리였다. 옳다고도 느꼈다.

40여 년 전 당시 “관계”라는 말은 비즈니스 용어가 아니었다고 그가 설명했다. 처음 임원으로 승진했을 때, 그는 무엇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가에 대해 본능적으로 인식하고 영업직에서 사무직으로 옮길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막 하기 시작했다.

진 젠더는 승승장구 했고, 그 당시 그는 항상 옳았다. 그의 지휘아래 빠르게 커나가는 회사의 부문들은 거의 업계에서 끊임없이 최고의 성과를 이뤘다. 모든 사람들이 그와 일하길 원했다. 그가 말하길, 매우 행복했고 점차 부유한 젊은이가 되었다.

“그럼 이 말이 당신 자신보다 직원들을 더 잘되게 만드는 것과는 무관했다는가요?” 내가 불쑥 끼어들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 마십시오. 저,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다. 남을 존중하며, 그들의 말을 경청하고, 다른 사람들을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하도록 격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타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했던 것처럼 제 사업에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이려는 생각을 했을까요? 결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사라를 만나고 고용해서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못나왔지만, 그녀는 막 경영대학원을 졸업했고 이제껏 알고지낸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뛰어나며 천부적인 전략가였습니다. 저보다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알았죠. 내가 사라에게 올바른 가르침과 기회를 준다면, 그녀가 종래에는 이 회사를 운영할 수도 있을 거란 걸요. 그리고 스티브, 언젠가 그녀의 지시를 받을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겠죠? 이런 생각이 위협적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저를 분발하게 했습니다.

“그래, 어떻게 되었나요?”

“그녀에게는 한 가지 중요한 결점이 있었습니다. 결점이란 게, 멍세컨대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문제가 뭐였나요?” 나는 재촉하듯 물었다.

“여자라는 점입니다.”

나는 아연실색하여 그를 바라봤다.

“비록 내가 늘 공정한 젊은이였다 할지라도 그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결속력 강한 남성회원 클럽의 멤버로 여겨지고 있다는 걸 돌연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결코 여성입장 불가라는 핏말을 실제 본적이 없지만, 있다고 하는 편이 나아요.”

“뭘 때문에 정신이 들었나요?”

“그녀를 부사장 후보로 내세우려고하자 골프모임 초대가 끊겼습니다. 사람들이 복도에서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교장에서의 행복했던 시간이 더 이상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피했습니까?” 나는 놀라 물었다.

“지금도 그런 장소는 여전히 있지만, 그 당시에는 훨씬 흔했죠. 전 그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가 거북한 듯 자세를 바꿨다. “사라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나는 이 말을 하고는 곧 후회했다. 진은 분명 그의 행동들에 대해 지금까지도 자신에게 깊은 실망을 하고 있어서 내가 거기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되었다.

“네, 그렇습니다. 사라는 그만됐죠. 저는 전 보다 더 열심히 일했고, 눈 깜짝 할 사이에 몇 년이 흘러 육십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사장의 반열에 올랐고 차기 CEO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일찍 은퇴를 해서 기타를 가르치기로 결정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직장에서의 GTY에 대한 당신의 열정적 담론은…”

“제 경험담이 아닙니다.” 그가 말했다. “저는 훌륭한 경영진이었습니다. 머잖아 저는 업계에서 대단한 신화가 되었습니다. 제가 벌어놓은 돈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 원칙에 따라 사를 위시하여 최소 몇몇 사람만이라도 저를 능가하도록 격려했다면 제 자신, 타인, 그리고 회사를 위해 얼마나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었을 지 궁금합니다. 선생으로서 제 역할에 항상 충실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고, 나는 기타가방을 집어 들고 문 쪽으로 난 홀을 내려갔다.

“진, GTY에 대해 당신을 곤란하게 만들려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당신이 왜 자신보다 남을 더 잘되게 하기가 직장에서 실행가능하다고 확신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직 경영진으로서, 그것에 대해 철학적으로 확신하고 있다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당신이 시인한 대로 당신은 실제로 직장에서 그게 그런 식의 효과를 내는 지 본적이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그것을 행한 걸 봤기 때문에 확신합니다.”

“캐인가요?”

“네, 그리고 다른 사람들 하고요.” 그는 내게 장난기 가득한 환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아마도 당신은 자신만의 GTY에 대해 그녀에게 말해야 할 겁니다.”

“당신 생각이죠?” 나는 웃었다. “저를 그녀와 만나게 해주실 건가요? 진심으로 말이죠, 진. 저는 정말 캐를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 기타가 일종의… 잘은 모르겠지만… 표시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기타를 소중히 다루세요. 아주 좋은 악기거든요.” 그는 내 질문을 피하며 말했다. “이 쪽지도 잘 보관하세요. 언제 어떤 가치가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가 문을 열었을 때 그에게서 낡은 종이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스티브, 자신보다 남을 더 잘되게 하기 여정에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

하겠습니다. 당신이 그 철학을 실천하겠다는 맹세를 했다는 얘기를 찰스가 했습니다. 누군가가 오래 전 세계 그런 기준을 지키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당신이 다양한 방법으로 풍부한 경험을 쌓아 그걸 발견할 거라 확신합니다.”

내가 차 쪽으로 걸어 나왔을 때 위에서 들리는 소리에 진과 내가 기대 서 있었던 발코니 쪽을 올려다보게 되었다. 난간을 치우고 있던 칼의 얼굴이 나를 응시하고 있는 걸 간신히 봤다.

“이봐, 보스코3!)” 그는 다 들으라는 듯 속삭였다. “누가 쫓아옵니까?”

나는 그의 말을 알아들은 듯 길을 위아래로 살피었다.

“그런 것 같진 않소.”

실망의 그림자가 그의 얼굴에 드리워졌다. 그리고는 설교단에 서있는 목사처럼 나를 지목했다. “갈기 머리 기르지 마!” 하고 소리쳤다.

그리곤 가버렸다.

3) 프로그램의 주인공으로 짧은 빨강 머리의 인형. 성별은 알 수 없음.

제 16 장

집에 돌아왔을 때, 머리를 짝 누르고 있는 힘이 흡사 짝 막힌 소방호수 같은 느낌이 들었다. 화장실 세면대에 허리를 굽히고 물을 틀어 손으로 차가운 물을 받았다.

GTY는 이해하기에 특별히 어려운 개념은 아니었다. 특히나 오늘날과 같은 냉혹한 비즈니스 사회의 맥락에서 놓고 볼 때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잘되게 만들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복잡한 자료나 어떤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데서 오는 골치 아픈 일은 아니었다. 덜 익숙한 데서 오는 고통이었다.

연이어 일어난 그날의 일들과 만남 그리고 대화를 돌이켜보며 혼란의 원인을 찾았다. 자기 자신을 확장해라? 일리가 있다. 자기 자신을 쥐라? 암, 그렇고 말고. 물론. 황금률의 약속이지. 자신을 복제해라? 선행을 베풀라. 그것에 대해 왈가왈부 할 순 없다. 그런 제목의 영화도 봤다.

그래서, 그게 뭔데?

얼굴에 물을 끼얹고는 물방울들이 입술에 굴러 떨어지는 걸 거울로 보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약속을 기억해 냈다.

실천을 먼저하고 전과는 그 다음에 하기로 맹세했다. 머리가 지끈거리는 게 당연하다. 내가 싸워야하는 건 GTY의 개념이 아니라 현실이었다.

“이봐, 보스코.” 거울에 비친 내 자신에게 얘기했다. “지금 농담 아냐. 이거 할 수 있겠어?” 유리에 비친 이마에 짹을 날리자 거울에 자국이 남았다.

“솔직히 남을 승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단 한사람이라도 이름을 댈 수 있어?”

나는 타월을 그리쥐어 얼굴의 물기를 툭툭 두드려 닦고는 거실로 나왔다. 김슨 기타를 집어 들고 소파에 앉았을 때, 창문을 통해 미션 베이의 저녁 바다에 비치는 불빛이 보였다. 여기까지 오게 한 인생의 사건들을 기억하려 하며, 무심히 기타를 쳤다.

나는 저널리즘 학교에 다니지도 않았고, 전문가가 되려고 토론 클럽에 참여하

려 하지도 않았다. 고통을 반복적으로 참아내야 하는 대학(the school of Taking It Repeatedly on the Chin)을 나온 경영자였다.

처음엔 음악가가 되고 싶었다. 노래하고, 작사하고, 기타를 연주하며 온 나라를 여행하고 싶었고, 창조적이면서 남을 감격시키는 일을 원했다. 그 또한 멋진 꿈이었다. 유일한 문제는 그 꿈이 가족을 갖고 애를 키우고 그 애들이 자라서 똑똑해지고 친절을 베풀 줄 알도록 도와주고,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나의 다른 꿈과는 완전히 상반되었다.

23세에 결혼을 하여 금방 애가 생겼다. 부지불식간에 나의 두 꿈은 남과 북으로 향하는 책들⁴⁾처럼 부딪혔다. 시우스 박사는 그 꿈들 중 하나를 양보하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내 회사를 확장하여 금융 서비스를 시작했다.

음악의 길을 포기하는 게 너무도 가슴이 아파서 옷장에 기타를 집어넣고 몇 년 동안 차마 쳐다볼 수 없었다. 책임감 있고 돈을 버는 어른이자 아빠가 되기 위해 나의 크고 중요한 부분을 몽텅 잘라 내버렸다.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음악을 피하는 것만이 그런 선택을 인한 희생을 극복하는 나만의 방식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기타를 다시 받아들였고, 삶에서 기타의 존재가 안락함과 내면의 발산수단이며 내 이상주의적인 젊은 열의를 계속 유지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인정하게 되었다. 기타연주는 사색의 공간이자, 반성의 공간이며 내 자신이 존재하는 공간이었다.

이제 이곳에서 소파에 앉아 50대를 막 지났지만 10대였을 때처럼 서툴게 기타를 튕기고 있었다. 난 지금 미래에 대해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과거와 GTY실적에 대해 살살이 훑고 있었다.

비록 애들 엄마와 결국 이혼은 했지만, 애들은 잘 자라 컸다. 나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멋진 청년으로 자라나서 내 품에서 떠났다. 애들이 어렸을 때 더 잘 해줄 수 있었을까? 물론이지. 이제 다 큰 어른이 되어 애들을 위해 내가 더 잘 할 수 있을까? 어제까지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한다.

4) Zax는 시우스 박사 저서에 나오는 인물들. 고집이 세고 논쟁적이고 부스스한 머리에 몸에 털이 수북함. 그들은 프락스의 대초원에 거주. Zax는 북쪽으로 향하는 Zax와 남으로 향하는 Zax가 있음. 그들의 고집 때문에 정해진 방향 이외에는 갈 수 없음.

최소한 그 애들을 내 자신보다 더 잘 되게 한다는 특별한 맥락에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애들과의 관계회복 가능성 덕택에 가벼운 전율이 흘렀다.

그럼, 직업적으로는 어떤가? 진정 분명히 내 자신 보다 더 높이 밀어 올려주었던 사람을 언급할 수 있을까? 기꺼이 그리고 완전히 아낌없이 내 자신을 바치고 이제껏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내 모든 지식, 거래처, 지략과 시간을 주었던 게 언제인가?

아니, 정말로 그런 적은 없었다.

전율이 급속히 한기로 변했다.

내 자랑을 좀 하자면, 도움을 준 적 있는 옛 동료의 이름을 몇 명 말하는 건 쉬운 일이다. 예를 들어, 장차 강연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과 그 분야에서 매우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만나도록 도움을 줬었다.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워줬고, 전략과 접근법, 메시지와 마케팅에 대한 조언을 했으며,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얻은 교훈을 기꺼이 그들과 공유했다. 원해서 했고, 친구를 위해 하는 게 옳은 일이며 도와주면 기분이 좋았기 때문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마워했지만, 몇몇은 그렇지 않았다. 그러나 그게 문제였을까?

솔직히 말해서, 그랬다. 그들을 대신해서 한 내 노력과 그들의 발전을 위한 내 투자에 고맙게 여기길 원했고, 그렇게 말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내 스스로 관대한 사람이라고 생각되길 바란다. 그러나 이타적이라 말하지는 못하겠다. 왜냐하면 난 그 보답으로 돈이나 지위가 아닌 감사와 칭찬을 원했기 때문이다.

내 스스로를 대부분 사람들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 좋은 사람이라고 여겼다. 친구들이 도움을 청할 때 도왔고, 어제까지는 관대하고 친절하 사람이라고 스스로 만족해하며 무덤까지 갔을 것이다.

자신보다 남을 더 잘되게 하기의 원리가 나타날 때까지였고 완전히 경기의 진행방법이 바뀌었다. 자신을 그저 “기꺼이 도와주는 사람”이라 말하는 게 갑자기 칭찬이라기보다는 책망처럼 느껴졌다.

무릎에 기타를 놓고 그날 아침 일찍 했던 맹세를 곰곰이 생각했다. 맹세는 가볍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다. 복음이 없이 설교를 하지 말며, 행함이 없이 말

하지 말라. 플루메리아의 도전을 기억하며, 내 삶 속에서, 특히 직업상에서 내 GTY프로젝트가 될 수 있는 누군가를 찾아야한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적당한 사람을 현명하게 선택해야 한다. 사실대로 말하면, 내가 제공하는 기회와 그 사람에게 중요한 개인 도전과제에 능력을 진정으로 발휘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 시간을 낭비하거나 애써서 얻은 연락처와 신뢰를 준다는 게 전혀 내키지 않았다.

현명하게 선택해라 혼잣말을 했다.

그럼, 내가 주는 건 뭐든 써 먹고 활용하려는 자질과 욕구와 마음 그리고 직업 의식을 가진 사람을 알고 있나?

그 답은 추운 날 강하게 한 대 맞은 것처럼 갑자기 또렷해졌다.

토미 스펀딩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36세의 나이에 두 개의 비영리 청년 리더십 조직의 대표였다. 하나는 그가 설립하였고, 초기부터 시작한 리더의 도전이라는 단체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콜로라도의 으뜸가는 리더십 프로그램이 되었다. 또 다른 하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40년의 역사를 가진 다문화프로그램인 업 워드 피플로, 이 모임은 인간을 구분하는 국제적, 문화적 그리고 사회경제적인 큰 차이를 연결하는 다리를 놓는 데 전념하는 단체였다.

그러한 단체들 중 하나를 운영한다는 건 엄청난 일이었다. 그럼, 두 개의 단체를 운영한다는 건? 그것도 동시에? 상상할 순 없지만, 적어도 그는 당분간 그렇게 하고 있었다.

내 친구이자 그의 친구로부터 나에게 대해 듣고, 토미는 리더의 도전을 위한 기금 마련 행사에서 한 내 연설에 관심을 가졌다. 그러나 그는 초대를 하기 전 내가 제대로 연설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활동하는 모습을 보길 원했고, 그래서 라스베이거스로 날아와 다른 회사 컨퍼런스에서 내가 연설하는 걸 봤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이나 평생의 친구와 연락이 끊기고 나서 몇 년 후 시간이 흐른 것 같지 않게 다시 연락이 되었을 때 기분이 어떨지 알 것이다. 그동안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고 엄청나게 다른 일들을 경험했다는 사실이 조금도 차이를 만들어 내지 못한다. 서로에 대한 사랑과 애정은 어릴 적이나 대학에서 혹은 스카우트시절 아니면 어느 나이가 되든지 억겁 년 전에 그랬던 것만큼이나 깊고 강하다.

그게, 우리가 전연 만났던 사이가 아니라는 걸 제외하고는 토미와 내가 라스베 이거스에서 만났던 그날 같았다.

만나자마자 오랜 친구 사이가 된 듯.

그가 나를 보고 있어서 말을 할 수 없었던 게 아니라 토미의 활기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더 정확하게는 토미가 기운이 넘친다는 사실에 감명을 받았다. 그는 내 연설이 끝나자 성큼 다가와 양손으로 악수를 하고 그의 부인 질과 아름다운 꼬마숙녀 캐롤린과의 식사에 정중히 초대를 하였다. 그야말로 내가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점심식사가 끝나고, 토미는 자기얘기를 했다. 열일곱에 가까스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우등 졸업을 자랑하며), 그의 눈과 마음을 열어준 경험이 된 업 워드 피플과의 세계 여행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말이다. 그는 몇 년에 걸쳐 4대륙에 살았고, 60개 이상의 나라를 여행하며 전 세계 수백 명의 민박가정에 머물렀다고 말했다.

그는 난독증 때문에 대학에서 더욱 열심히 오랫동안 공부를 해야 했고 -- 고등학교 과정을 재이수하고 싶지 않았다 -- 스스로 학비를 대야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끊임없이 시간을 보냈을 뿐 아니라 티셔츠를 팔고 잡일을 하며 몇 개의 작은 벤처 사업을 시작하였고, 학교를 마칠 때는 계좌에 삼만 오천 달러의 잔고가 있었다.

정치학 학위를 받고 졸업한 후, 그는 일본에서 열리는 올림픽대회에서 일했고, 호주에서 MBA를 땀으며, 이후 IBM에서 대단한 영업사원으로 잠시 일하다가 리더스 챌린지를 세워 세계에 돌려주자는 그의 꿈을 추구하고 있다.

토미는 덴버에 있는 마을에서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자금과 지원을 기댈 정계, 재계에 아는 사람이 사실상 한 명도 없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영향력 있으며, 성공한 재계 인물을 찾아낸 이 소년은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을 걸 그들이 결국 알아차릴 때까지 그의 비전과 신념, 그리고 여러분도 수궁할 만한 열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며 여러 사무실을 방문했다.

시간이 흘러, 그는 리더스 챌린지 기금으로 오백만 달러 이상을 모았고, 그 프로그램을 덴버에서 콜로라도 전체주로 확산시켰다. 그리고 어느 날, 업 워드 피플 이사진이 문을 두드려서는 토미에게 구조조정과 재탄생을 통해 조직을 통솔

하고 길을 인도해 주길 요청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킨 업 워드 피플을 사랑했지만, 리더스 챌린지는 여전히 그의 관심이 필요한 걸음마 단계여서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결코 하지 않았을 결정을 했다. 리더스 챌린지의 CEO로 계속해서 남을 수 있다면 업 워드 피플의 CEO가 되기로 동의했다. 분별력 있는 이사진이라면 그럴 리 없는 결정을 업 워드 피플의 이사들이 내렸다.

그들이 예스라 답한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점심식사가 끝날 때까지 나는 숨죽이고 있기가 힘들었다.

그건 토미와 내 삶이 점점 꼬이며, 꾸준히 깊이를 더해가는 관계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모금행사에서 강연을 하도록 나와 계약을 체결했을 뿐 아니라 조금 후에는 내가 업 워드 피플의 이사로 참여토록 추천을 해줬고, 나는 기쁘게 받아들였다.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좋은 친구사이에서 늘 그렇듯 서로의 희망, 꿈 그리고 포부에 대해 알기 시작했다.

토미는 덴버에서 있던 모금행사에서 개회사를 했고, 연사로서의 그의 재능과 열정은 금세 분명해졌다. 그 이후로 알게 된 건 그가 그런 재능에 대해 더 상세히 말하길 원한다는 점과 소위 강연자들의 영역에서 입지를 세우고자 한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토미는 내가하는 일을 하길 원했다.

이제 깨달은 건 거기가 내 GTY의 최적지라는 것이다.

그 자리에서 나는 바로 두 번째 맹세를 했다. 이 맹세라는 건 말 그대로 가장 개인적인 방식으로 우리 두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다. 토미의 전적인 동의와 그 일에 대한 약속을 즉각적으로 받아낸 후,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 즉 내가 배웠던 모든 것을 그와 공유하고 모든 연락처와 거래처를 쥐버려서 결국 토미 스펀딩이 나보다 두드러지게 더 낫고, 더욱 유명하고, 더욱 영향력 있는 대중 강연자이자 인물이자 리더로 여겨질 것이다.

비록 그가 기꺼이 할 거란 점에는 의심할 바 없지만, 그의 겸손한 성품을 고려할 때, 나를 “능가한다”는 취지에는 상당히 불편해 하리란 걸 안다.

그가 곧 익숙해 질 거야. 라고 생각했다.

어떤 일을 내 평생의 과업이라 맹세했었던 사실을 생각해 볼 때 -- 죽어서 무덤 속 까지 가져갈 그런 정도는 아니겠지만 -- 찰스가 말한 것처럼, 내가 스스로에게 한 약속에 대해서도 정말 크게 책임을 질 뭔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걸 알

았다. 스펠딩 프로젝트에 완전히 빠져 들지 못했다는 것은 아니다. 난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모든 여행 스케줄 때문에 뭔가 빠뜨린 게 없는 지 확실히 해두길 원했다.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아는 몇 가지가 있다. 그 중 하나가 이 멋진 지구상에서 이글거리는 대중의 감시의 눈처럼 최고의 책임감을 드러내는 건 없다는 것이다.

이제 나는 플루메리아의 선물인 도메인 이름으로 무얼 할지 깨달았다.

www.GreaterThanYourself.com을 토미 스펠딩의 삶과 경력으로 내 GTY 경험을 기록하기 위한 공개적인 아주 공공의 장소로 사용할 것이다. 나는 실시간으로 내가 무얼 하고, 토미가 어떤 반응을 하는지와 결과적으로 어떤 성공을 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물론, 그건 프로젝트가 잘 되지 않는 걸 전 세계 사람들이 본다는 걸 의미했다. 다시 말해, 모든 웹 커뮤니티가 -- 상스러운 실망감이나 고소함에 젖어들면서 -- 내가 스케이트 탄 망아지처럼 팔다리를 마구 휘두르면서 넘어지는 것을 볼 가능성이 농후하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는 걸 느꼈다.

그날 밤 내내 기타를 세웠다. 그리고 나서 식탁을 치워 노트북을 켜고는 브라우저를 열어 내 웹 사이트용 설정페이지로 갔다. 길고 깊은 숨을 들이쉬 후 몇 글자를 쳐 넣었고, 저돌적으로 블로그를 시작했다.

GTY프로젝트 스펠딩이 시작됐다.

제 17 장

얼마 전, 컴퓨터에서 나던 어딘지 모르게 명쾌한 전자소리가 내 등골을 타고 기대감의 물결을 고조시키곤 했다. 그건 나만 그런 게 아니었다. 그 친근하고 작은 소리가 인터넷에 새로 가입한 수백만 명의 새내기들에게 문화 아이콘이 되었다. 점점 차가워지고 고립되는 기술세계에서 그 소리는 감사와 관계의 온기를 구현했다. 사실, 그 소리는 “여러분은 패배자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었다. 말 그대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었다.

그 소리를 신의 섭리거나 자연의 선택이라 불렀지만, 예상외로 내 휴대 전화의 둔탁한 진동음이 노트북에 있는 이메일 도착을 알리는 디지털 스머프의 자리를 차지했다. 그러나 누군가가 내게 이메일을 보내서가 아니라 내가 문자를 받아서 거기에 흥분했다.

그게 새로운 블로그 작업을 하느라 밤을 지새운 후 멋진 금요일 아침을 맞이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전화기가 빠른 진동소리를 내며, 말도 안 되고 어릴 적 네안데르탈 시대에도 써본 적이 없는 문자가 와서 액정화면이 밝아졌다.

일어났어요?

나는 우두둑 손가락 마디를 꺾어, 손가락을 풀고 찰스와 최초의 현대적 전자 담화를 나눴다.

그럼요.

만날까요?

4시?

내 물음에 대답대신 교외에 있는 어떤 주소와 겨우 샤워하고 면도할 정도의 시간만을 준 채 오전에 만날 시간을 정해 문자를 보냈다. 그러마하는 결정을 빨리 내리는 것이 최고로 가장 효율적인 답변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좋습니다. 나는 답문을 보냈다.

곧 미션 비치를 출발하여 샌디에이고 노스 카운티 교외로 향했다. 맵 퀘스트

의 안내에 따라 15번 자유로를 빠져나와 “노스 카운티의 중심도시”라고 홍보는 하는데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 포웨이 마을 주요 교차로까지 내륙 쪽으로 몇 마일을 달렸다.

좋은 시절을 보내고 지금은 재건축 초기 징후를 보이고 있는 일렬로 늘어선 상점가 주차장으로 들어섰다. 주차장 끄트머리에서 몇 가구만 이사를 보내고 진행하는 일종의 외부개조를 돕는 공사장 발판에 앉아 쉬고 있었다.

만날 장소에 대한 다른 정보가 없는 것을 감안하여, 주차를 하고 찰스와 통화를 하여 개인적으로 도착 안내를 받기 전까지는 주변을 거닐고 있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알고 보니, 그럴 필요가 없었다.

창문에 미용실이라는 파란색 네온사인이 있었지만, 그게 그 장소라는 건 아니었다. 더 정확히 말해, 머릿속에서 땡 하는 소리가 난건 바로 미용실이었기 때문이다.

문 위에 걸린 간판은 어제 난생 처음으로 들었던 이상한 단어의 조합이었다. 진 젠더의 스튜디오에서 말이다. 번덕스럽고 열광적으로 진을 추종하는 그의 형갈의 입을 통해서였다.

놀라서 머리를 세차게 흔들며 주차장을 가로질러 유리 창문에 다가가 찰스가 거기 있는지 없는지 안을 들여다보려했다. 햇빛 때문에 눈이 부셔서 한 발 뒤로 물러섰고, 다시 한 번 문 위에 걸린 간판을 올려다보았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이곳이 그 장소였다. 너무도 기가 막힌 우연이었다. 거의 모든 단어들이 손으로 쓴 이 간판은 나더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다.

갈기 머리 기르지 마 라고 적혀있었다.

제 18 장

창문에 반사된 빛 때문에 부셨던 눈이 서서히 회복되자, 안내데스크로 가서 주위를 살펴보았다. 그 곳에는 분명 한 눈에 보아도 머리손질 하는 기구들이 모두 갖춰져 있었다. 큰 거울이 있는 방 양쪽에는 세 개씩 여섯 개의 미용의자가 놓여있고, 줄곧 남성 여성 손님들의 머리를 매만지는데 필요한 재료와 도구들로 채워진 장식장이 있었다. 커튼이 쳐진 뒤쪽으로 샴푸대와 의자가 놓여있었다. 미용실에서 쓰는 약품들을 뭐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어떤 냄새인지는 아는 터라, 다른 미용실에서 나는 냄새가 이곳에서도 났다.

나는 나의 뇌가 나에게 뭔가 일상적인 것, 친숙한 것을 떠올릴 수 있도록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살살이 살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와 유사한 사업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요소들을 거두어내고 보면, 그 곳은 결코 평범한 곳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미용실들 벽에는 폭 꺼진 불에 완벽한 머리치장을 한 모델들의 화보 사진들로 도배되어 있는데, 이곳에는 블루스와 록 전설을 만들어낸 스티비 레이 본과 지미 헨드릭스, 제니스 조플린 그리고 빅마마 쏘튼이 다양하고 독특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대형 칼라 포스터들이 붙어있었다. 벽장식은 독특했지만, 세간들은 보통 이상이었다.

미용실 의자들 가운데 부분은 평범한 잡지꽂이와 팔걸이의자 그리고 작은 테이블이 놓여 있어서 기다리는 곳으로 이용되었고 -- 옛 노래조차 분명하게 핑키 스타일 방식이었지만 -- 다른 모든 집기들이 바로 기존의 잣대로 이곳을 미용실로 구분 짓기에 어렵게 만들었다.

베이스, 스네어, 탐탐스, 심벌즈, 카우벨을 갖춘 풀 드럼세트가 뒤쪽 벽에 놓여있었고, 양옆으로 간소하지만 충분히 앰프가 쌓여있었다. 비어 있는 몇 개의 기타 스탠드와 마이크 스탠드가 앞쪽에 보기 좋게 배치되어 연습실 모양새와 느낌이 제대로 났다. 옆쪽으로 시선을 돌리자, 오래되고 낡아 언제 만들어졌는지도 모르는 어쿠스틱 기타가 포근해 보이는 켈트로 덮인 팔걸이 없는 의자에 자연스

럽게 기대어 놓여있었다.

거기 있는 모든 장비들에 이끌려있어서, 상당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는데도 시간이 걸렸다.

사실, 쉬지 않고 소리를 내지르고 노래하고 웃어젖히는 듯 요란하며 아주 쾌활한 미용사들에게 머리를 다듬고 모양내고 드라이하고 염색을 하는 남성여성 고객들로 의자는 빈자리가 없었다.

찰스 롤랜드는 왼쪽 첫 번째 의자에 앉아있었다. 손에는 가위를 든, 키가 크고 덩치가 큰 근육질의 원주민이 만면에 띤 웃음만큼이나 밝게 빛나고 매끈하게 밀어버린 머리를 하고 그의 뒤에 우뚝 서 있었다.

그 곳을 살펴보았을 때 내 얼굴에 나타난 당혹감에 재미있었는지 그 둘은 웃으면서 나를 보고 있었다. 미용실에 들어왔을 때부터 나를 보고 있었고, 이젠 그 크고 대머리에 가위를 든 남자가 내게 합류하라며 몸짓했다.

그는 가위를 왼쪽 손으로 옮겨 쥐며, 오른손으로 내 손을 잡고는 찰스가 앉아 있는 옆자리에 앉혔다.

“헤이, 친구!” 그 미용사는 따뜻한 섬의 말투가 약간 남아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용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주인장 제프리 케펠리 되겠습니다.”

나는 미소로 답했다.

“과버, 저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찰스가 내 팔을 손등으로 톡 쳤다. “자자. 맞추어 봐요.”

이건 아주 잘 드는 가위를 들고 있는 저 덩치 큰 이와 위험한 게임이 될 수도 있다.

“전 수수께끼 실력이 형편없어요.” 나는 동참하지 않았다.

“아, 이봐, 친구. 뭐가 두려운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할까봐? 걱정하지 말게, 이래빠도 낫짜이 두껍다고.” 그는 자신의 엄청난 이두박근을 치면서 아파하는 모습을 보였다.

“으음, 난쟁이?” 나는 빼도 박도 못하고 말했다.

그들은 서로 쳐다보며 웃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죠.” 찰스가 말했다.

“미스터 클린5)? 철인6)?” 그들은 다시 웃었다.

왼쪽 볼을 타고 올라가는 포도 문신을 한 좀 더 어려 보이는 미용사가 나를 가엽게 여겼다.

“이봐, 빅 제프⁷⁾! 저 사람 너그럽게 좀 봐주지 그래.” 좀 더 어려 보이는 미용사가 소리쳤다. “이미 말해 버렸네.”

“잠깐만요, 알았어요. 빅 제프?” 나는 말했다.

“네, 그래요.” 그는 쏘아보고는 얼굴이 환해졌다. “그래도, 난 철인이 좋다네, 친구. 실현가능성이 있잖아!” 이발기를 잡고, 손끝으로 찰스의 머리를 옆으로 기울였다. “아니면, 고질라도 맘에 들지.”

“이런! 자기가 자기 별명을 고를 순 없어, 빅 제프.” 포도 문신을 한 미용사가 소리쳤다. “자네는 지금도 앞으로도 항상 빅제프야. 그게 만물의 법칙이지, 친구!”

“그럼, 빅 제프,” 내 눈이 다시금 악기에게로 향하며 말했다.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기에서 하는 건 일과 생활의 균형이라네, 친구. 이건 본업이지.” 그는 부스스하고 술이 많은 찰스의 짧은 머리에 힘을 주려고 머리카락을 자르며 말했다. 그리고는 자세를 취하며 “그건 내 열정이지.”

“빅 제프는 뛰어난 베이스 연주잡니다.” 찰스가 말했다. “갈기 머리 기르지 마는 그의 사업장이자 리허설 공간이지요.”

“야수가 또 다른 야수를 먹여 살리는 거지.” 빅 제프는 한 발짝 물러서서 찰스의 머리 모양을 살피며 말했다.

“그렇지만 갈기 머리는 아니죠.” 내가 말했다.

“결단코! 갈기 머리 기르지 마! 갈기 머리는 사라져서 다시는 유행하지 말아야해!” 그는 가위를 허공에 높이 들며 소리쳤다.

그러자 갑자기 그곳에 있던 모든 미용사들과 여러 명의 고객들이 대화를 멈추고 일제히 소리쳤다. “갈기 머리는 사라져야해!”

5) 프록터 앤 갬블 사 소유의 브랜드 이름. 세제와 관련된 제품에 사용됨

6) 1964년에 미국 버전으로 출시된 만화 철인28호(미즈체루 요코야마 作)를 뜻함.

7) (원래 장난감 인형 이름들인) 빅 제프는 빅 짐의 세 번째 친구로 금발 타입이며 올림픽 복싱 세트에서 짐의 상대였음.

“헤어스타일의 의미지, 물고기는 아니라고 이해했습니다.” 나는 우스꽝스럽고 꽤나 전통 있는 외침소리에 깜짝 놀라 말했다.

“스타일과 치장에 대해 나름의 강력한 견해를 가지고 있으니 빅 제프지.” 찰스는 몸에 걸쳐진 회고 검은 체크 미용가운에서 머리카락을 털어내며 말했다.

“그게 접니다.” 빅 제프는 웃음을 지으며 동의했다. “또 한 가지는 음악이죠. 이거 또한 꽤나 강력한 견해를 가지고 있지요.”

“오늘밤 행사에 관해 스티브에게 말해 주시죠.” 라고 찰스가 말했다.

“오늘밤 ... 이곳에서 대규모 즉흥 연주가 있을 거요, 친구. 굉장하지. 꼭 들러요.”

“기타를 가지고 와야겠지요?”

“그럼, 당연히 그래야죠. 당신악기를 가지고와요, 친구. 참가를 환영합니다. 연주할 준비를 하고 와요. 우리 꽤 수준 있는 청중이라고.”

어제 진 젠더와 몇 곡을 주거나 받거나 하며 연주했지만, 대중 앞에서 실제 연주를 해본 건 어언 옛날 일이라 빅 제프의 초대에 짜릿한 흥분과 아찔한 두려움으로 휩싸였다. 여전히 홀로 내 소파에 앉아 에릭 클랩튼 못지않게 자신 있는 연주를 하지만 뛰어난 실력을 갖춘 연주자들과 왁자지껄 시끄러운 관객들 앞에서 무대에 올라 연주를 한다는 건 완전히 달랐다.

“글쎄요, 빅 제프. 당신들의 연주를 방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많이 연주를 해보지 않았어요.”

“걱정하지 마쇼, 스티브. 만일 연주 실력이 형편없다면, 소리를 죽이고 리듬을 연주하는 척 하면 되요.”

그 말은 해결책이라기보다는 모험에 가까웠다.

“이거 봐요, 스티브. 연주하는 거 좋아하잖소. 와주면 정말 좋겠소.”

물론 내심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마냥 행복하다는 건 인정한다. 비록 내 연주 실력이 터무니없이 녹이 슬었다 할지라도 즉흥연주만큼 재미있는 건 없다.

“그럼, 찰스. 빅 제프와 그의 동료들을 만나는 커다란 즐거움 말고 나를 여기로 불러들인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소?”

“그게, 진이 뭔가를 당신에게 말했다는 얘기를 듣고, 오늘이 컷을 만나기에 좋은 날이 될 거라 생각했죠.” 그가 무덤덤하게 말했다. “괜찮겠소?”

나는 미용실 안을 둘러보았다.

“여기에는 없어요. 당신을 샌디에이고 시내에 있는 YSC사무실로 데려갈 겁니다. 시간이 된다면 말이에요.”

당연히 시간이 되고말고! 라고 생각했다.

“네, 괜찮은 것 같네요.” 라며 해야 할 시급한 문제를 머릿속으로 궁리해 보며 어떻게 캐트 캐서디와의 만남을 살인적인 일정에 끼워 넣을까 계산하는 것처럼 시계를 봤다.

“언제가 좋을까요?”

“빅 제프가 머리 손질을 다 끝내면 거기로 갈까 합니다.” 찰스는 자신의 머리를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의자를 이쪽으로 가지고 오시오, 친구” 빅 제프는 드럼 옆에 있는 벽 쪽으로 놓인 몇 개의 빈 의자를 가리켰다. “내가 끝나쳐야 갈 수 있소. 그러니 당신은 그곳이 긴장이나 풀면서 쉬는 편이 낫소.”

나는 그 방의 반대편에 있는 간이의자를 들고 빅 제프가 있는 자리와 창문 사이로 가져와 한 숨을 후유 내쉬며 앉았다.

“편안하쇼?” 빅 제프가 물었다.

나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로 편안했다. 이런 느낌이 좋고, 빅 제프의 편안하고 사람을 사로잡는 매력이 나에게도 전염이 되었다.

“좋소. 파버, 당신한테 얘기하나 들려주려고 하는데. 위대하고 잘난 체하지 않는 겸손한 사람의 이야기요.” 그는 강조하듯 가위를 빠르게 움직였다.

찰스는 마치, 이런, 또 시작이군, 이라고 말을 하는 듯 눈을 굴렸다.

“해보세요. 그게 누군데요?”

빅 제프가 찰스의 의자를 획 하니 시계방향으로 돌려서 우리 둘은 얼굴을 마주보며 앉게 되었다.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내 친구...찰스 ‘형편없는 처키’ 롤랜드 얘기요.”

이건 내가 들은 얘기다.

제 19 장

이전에 찰스가 당황하는 걸 실제로 본적이 전혀 없었는데, 그의 얼굴은 집에만 틀어박혀있던 사람이 햇볕에 얼굴이 벌겋게 익은 듯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것 보게. 처키, 귀가 빨개지는데. 무슨 얘기냐고? 겸손함이야, 친구.” 빅 제프는 찰스의 머리 뒤쪽 잘 보이는 곳에서 말했다.

“찰스, 어떤 얘긴가요?” 나는 호기심이 발동하여 물었다.

“당신한테 말하지 않을 겁니다.” 빅 제프가 웃으며 머리를 흔들었다.

“너무 겸손해선가요?”

빅 제프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어릴 적 척 롤랜드와 6학년생의 깨달음에 관한 이야기는 제 몫이네요.”

나는 발을 짚 뺀고 빅 제프가 말을 계속 이어가길 기다렸다.

“전 하와이 태생으로 대부분을 거기서 자랐습니다. 근데 우리가족이 이곳 샌디에이고로 이사를 해서 몇 년 동안 지내게 됐죠. 제가 중학교 시절이었습니다. 6,7,8학년까지 말이죠. 척은 제가 전학 온 날 처음 만난 소년이었습니다. 전 정말 불안했습니다. 내가 있을 곳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새로 전학을 온 학생이 낯선 아나톨리안 간에 내 덩치 때문에 아주 눈에 띄었어요. 전 그 당시에도 빅 제프였죠.”

“어머니께서, 태어나는 날부터 빅 제프였다고 하시던데.” 찰스가 말 중간에 끼어들었다. 이 말에 제프가 애정을 담아 찰스의 뒤통수를 톡 쳤다.

“내 얘기가, 처키. 좀 조용해줘. 어쨌든, 교실에서 처키의 앞자리에 앉자 그가 내 어깨를 두드리며 자기소개를 하고는 전학 온걸 축하해줬습니다. 그 당시에는 멋지다고 생각을 했는데, 돌이켜보니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친구?”

물론 이해했다. 엄밀히 말해 어린이들은 새롭고 특이한 걸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린 곧 친구가 되었죠. 쉬는 시간과 방과 후에 함께 놀고 서로 가족들을 알

고 지냈습니다. 그게 다예요. 그런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알죠?”

알다마다요.

“그런 어느 날 교장 선생님께서 교실로 오셨는데 이건 아주 중대사건이죠. 누군가가 말썽을 부렸다거나 아님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그 날 교장 선생님께서는 그냥 우릴 방문한 거예요. 옹기종기 모여 있는 중학생들과 얘기하고 친해지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교장 선생님의 깜짝 방문은 처키의 남은 인생이 시작되는 첫 날이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팔에 떨어진 몇 올의 머리카락을 털어내며 찰스가 말했다.

“교장 선생님께서 학생들 앞에 서서 우리가 어린이일 뿐이지만, 남은 삶이 양떼를 실은 화물 기차처럼 우릴 향해 돌진해 오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몇 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 라며 찰스가 주장했다.

“내 얘길세! 아님 이 부분부터 자네가 말 할 텐가?”

“계속하게. 미안하이.” 찰스가 말했다.

“어쨌든, 교장 선생님은 우리가 커서 뭐가 되길 원하는지 생각해봐야한다고 말씀하셨지요. 누구 생각해 본 사람 있나? 라고 우리에게 물었어요. 놀랍게도 교실 안에 있는 학생 거의 모두가 손을 들었죠.” 라며 말을 이어갔다.

“교장 선생님께서 기뻐 손뼉을 치며 말씀하셨지요. ‘자, 돌아가면서 말을 해볼까. 자신이 뭐가 되고 싶은지 반 학생들에 말해볼까.’”

“그러자, 첫 번째 애가 소방관이라고 말했고 두 번째 친구는 미합중국 대통령, 또 다른 친구는 경찰관, 영화배우, 의사라고 말했소. 점점 내가 말할 때가 다가오는데 교실에서 큰 소리로 말한 적이 없어서 정말로 떨리는 거예요. 내가 새로 전학 온 덩치 큰 하와이 태생이란 걸 알아서인지 나를 지목하면서 말했어요. ‘케펠리 씨, 당신은 어떤가요?’ 그래서 나는 마음속에 첫 번째로 떠오른 것을 말했소. ‘저는 로큰롤 밴드에서 정말 끝내주는 베이스 연주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말이지. 교장 선생님은 내 말투에 얼굴을 찌푸렸지만 학급 친구들은 폭소를 터뜨리며 소리를 질렀고, 난 금세 유명인사가 되었소.”

“그 후 모두가 그를 좋아하게 되었죠.” 찰스가 말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반 애들을 조용히 시키고 내게 ‘끝내주게’라는 말을 교장

선생님께 했다며 사과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소. 그리고 나서 찰스의 차례가 되었죠. ‘너는 뭐가 되고 싶니, 애야?’ 그러자 수업시간에 뭔가를 말할 때면 항상 하듯 찰스는 잠시 생각을 하고, 정말로 원하는 것은 다른 애들이 되길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라 말을 하더군요. 그러니깐 애들은 이제껏 들어본 얘기 중 가장 웃긴 얘기라는 듯 웃고 소리를 지르며 다들 떠들어댔어요. 그리곤 이번에는 격려는커녕 마치 이제껏 들은 말 중에 가장 형편없고 어리석은 대답이란 듯 조롱하고 놀리는 거예요. 반 학생들을 조용히 시키려는 선생님들의 목소리보다 더 크게 한 소년의 목소리가 점심시간을 알리는 종소리만큼이나 또렷이 들렸어.”

“그건 내가 뭘 하든 형편없기 때문이야, 척!”

“그런데, 유감스럽지만 그랬습니다. 그 단어는 푸들강아지의 털처럼 그에게 붙어 다녔어요. 몇 시간 만에 전 학교에 형편없는 처키로 유명해졌죠.”

“그 이름은 꼬리표처럼 고등학교 내내 붙어 다녔고, 대학에 가서야 말끔히 지워졌어요.” 찰스는 슬픔이나 분노의 표정도 없이 말했다. “그 운명적인 학급 방문이 있고 난 후 거의 매일 누군가 내게 와서는 ‘이봐, 형편없는 처키! 오늘 도와줄래?’ 아니면, ‘내 숙제 좀 하는 건 어때?’ 아님 그냥 ‘너는 형편없어, 처키!’ 라고 말을 했소.”

“끔찍하군요.” 라고 나는 그의 반 친구들이 어떻게 그런 비열한 짓을 했는지 믿지 못하겠다는 투로 말했다. “무시무시한 이야기군요. 찰스, 불쾌하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능하고 어떻게 상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이야기가 영감을 주나요? 어릴 적 받은 굴욕이 지금의 찰스를 만들었다고 말하고 싶으신 건가요?”

“아니죠, 친구. 내가 말하려고 했던 건 그게 다가 아닙니다. 말을 끝까지 들어봐요. 우선, 그날 수업에서 찰스는 인생에서 무엇을 하고자하는 지 분명해졌습니다. 6학년 학생 중 얼마나 많은 수의 학생들이 그 같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고작 몇 명 정도.” 나는 말했다.

“그리고 그걸 실천했죠, 친구. 학교를 마치고 그가 한 첫 번째 일은 정확히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할 수는 없지만 내 집에 와서는 내가 듣기에도 너무 훌륭

한 말로 부모님께 내게 베이스 기타를 사주고 동네 악기점에서 레슨을 받을 수 있도록 등록시켜달라고 설득을 한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죠. 그 때부터 매일 연습하고 연주를 했소. 결국 음악가의 삶이 나에게 안 맞는다고 결론은 내렸지만, 세계 어느 곳 어느 밴드에서든 록이든 블루스든 재즈건 간에 연주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소.”

“어째서요?” 내가 물었다.

그가 활짝 웃었다. “왜냐하면 난 정말 끝내주는 베이스 연주자거든, 친구. 어느 누구의 기준으로든 그래요. 여기 있는 처키에게 감사하죠.”

그는 찰스의 머리를 톡톡 쳤다.

“그런데 진짜로 놀라운 건 찰스 롤랜드를 위대하게 만든 건 열 한 살 어린 처키가 다른 사람들을 더 잘되게 만들려는 일에 자신의 남은 생을 모두 바쳤다는 겁니다.”

이제 그것이 정말로 얼마나 사실인지 밝히겠다.

제 20 장

찰스와 함께 YSC회사 사무실을 향해 차를 타고 갔다. 미용실에 찰스의 차를 두고 가자는 건 그의 생각이었다. 내게 그날 밤 있을 즉흥 공연을 보러 다시 올 거라서(연주자로서가 아니라 열렬 관객으로), 우리는 내 차에 올라타고는 샌디에 이고 시내 쪽으로 되돌아 차를 몰았다.

가는 길에 찰스는 YSC회사에 관해 빠르게 짚막한 정보를 줬다. 물론 몇 가지 이야기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인재 대행사라고 설명되고 생각되기를 바라는 인재 파견 회사로서, 기술 분야에서 뛰어난 인재들이 미국 거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찰스의 말에 따르면, 이 회사는 젊음과 열정 그리고 패기의 기업문화를 가진 비공개 회사라 했다.

특히 회사를 상장하겠다는 결정을 내리면, YSC는 낮은 이직률과 급격한 성장(몇 년간 연이어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들 중 하나로 이름이 올라 있다.) 그리고 기록적인 수익으로 눈여겨 볼만한 회사였다.

캐트 캐서디는 창립자의 자리를 물려받은 제 2대 CEO였다. 그녀가 젊고 똑똑하고 매력적이며 투지가 넘쳐서가 아니라 고객과 회사에 뛰어난 성과를 내서 화젯거리가 되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또한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하며 사진이 잘 받을 뿐 아니라 경제지에 꽤 여러 편의 논평 기사를 냈다.

“빈티지 브라더스에서 산 그 기타를 왜 유심히 봤는지 아시요?” 찰스가 물었다.

나는 시내로 향하는 163번 도로로 빠져나가며 고개를 저었다.

“왜냐하면 캐트 진의 선물에 대해 얘기했고, 그녀가 수업료를 내기위해 어떻게 그 기타를 팔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로인해 많은 후회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진에게 나를 소개시켜줘서, 전 그에게 기타가 어떻게 생겼는지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몰라 가끔 악기점에 들러 그 모델을 찾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그 기타가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진을 데리고 거길 가서 확인하기도 전에 당신이 그 기타를 사갔죠.”

나는 오른쪽 어깨 너머로 그를 훑듯 보았다.

“그녀에게 기타를 사주려 했나요? 값비싼 기타를 말입니까?” 내가 물었다.

“우리는 그녀를 사랑합니다.” 찰스가 말했다.

나는 그들보다 먼저 낚은 기타를 갖게 된 점에 대해 약간의 죄의식을 느꼈다. 일말의 죄의식이다. 그러나 캣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커져만 갔다. 찰스의 감정이 어떤 암시라면, 캣은 분명 직원들 사이의 깊은 애착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녀와 GTY철학에 관한 무엇인가가 비즈니스에서 내가 항상 찾아다녔지만 거의 발견하지 못했던 일종의 충성심과 사랑을 만들어낸 것이다.

찰스의 주차권을 이용해 그 건물 차고로 들어갔고, 11층으로 가는 엘리베이터를 탔다.

YSC의 로비는 작았지만 고상했다. 밝은 목소리와 함박웃음을 띤 안내원이 우리를 환영해주었는데, 회사에 대한 강한 첫인상을 안겨주었다. 찰스와 함께 와서 그렇게 따듯이 맞이한 것일까?

우리는 문을 지나 칸막이와 회의실로 가득한 넓은 공간으로 들어갔다. 찰스로부터 회사설명을 듣고 난 후여서, YSC가 젊음의 패기와 열정으로 가득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고, 실망하지 않았다.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웃음과 대화가 그 공간을 가득 채웠고, 우리가 방에 들어섰을 때 회의장을 달려오는 한 젊은이와 거의 부딪힐 뻔했다. 그는 쏜살같이 지나가며 큰 소리로 어깨 너머로 사과했다. 회의실 중 한 곳에서는 어떤 회의가 있었다. 팀원들은 탁자 주변에 앉아있는 대신 경기장에서 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구석에 모두들 서있었다.

“금요일이라 이곳이 한산하네요.” 찰스는 내 얼굴에 깃든 놀라운 표정을 보고 웃으며 말했다.

“이게 조용하다는 말인가요?” 나는 소리쳤다.

“네, 믿거나 말거나. 정책상 직원들이 주말교통정체를 피하려 일찍 출발할 필요가 있다면 금요일에는 일찍 퇴근해도 된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는 약간 들떠있습니다. 자, 캣의 사무실은 이쪽입니다.” 찰스가 말했다.

그를 따라 홀을 내려가서 모퉁이를 돌았다. 우리는 코로나도 다리의 멋진 경관을 간직한 중간 크기의 고급 사무실이 들여다보이는 유리 문 앞에 서있었다.

가구의 외양과 느낌 그리고 가구 배치의 미관이 마음에 들었다. 다만 한 가지

고통스러운 점이 있었다.

텅 비었다.

“흠흠, 그녀를 놓친 것 같군요.” 찰스가 생각에 잠겨 턱을 문지르면서 말했다.

제 21 장

우리들 대부분은 머릿속에 소리 없는 교정인이 있다. 이 교정인이 자기 역할을 할 때 그는 적절치 않거나 지각없는 말들을, 그것들이 아직은 어설피거나 표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침없이 입 밖으로 터져 나와 주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되기 전에 삭제해 버린다.

글쎄, 나의 소리 없는 교정인도 주말에 일치감치 출발한 것 같았다.

“뭐라고요?” 나는 찰스를 보며 으르렁거리듯 말했다. “빌어먹을, 장난해요? 우리가 올 거란 얘길 안했습니까?”

찰스는 내가 화내는 걸 상당부분 이해했다. 그는 머리를 가로저으며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정말로 미안합니다. 시간 좀 주시면 그녀가 어디 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앉아계세요, 스티브. 곧 돌아오겠습니다.”

“미안해해야죠.” 나는 중얼거렸다. 비어있는 옆에 칸막이로 가서 밀려드는 죄책감으로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찰스에게 그렇게 퍼붓지 말았어야 했다. 의자에 깊숙이 들어앉아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보며 가느다랗게 긴 한 숨을 내쉬었다.

“우후, 그 여자 사장한테 바람맞았군.” 이라는 소리가 옆 칸막이 너머에서 들려왔다.

나는 신경에 거슬리는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온 이웃 칸막이를 위에서 자세히 내려다보았다.

“실례합니다만, 제게 하신 말씀인가요?” 나는 빨강 곱슬머리 위쪽에서 내려다보며 말했다.

빨강 머리 젊은이는 책상에서 의자를 밀어내어 보트를 조종하듯 양발로 바닥을 밀면서 칸막이를 나와 내 쪽으로 왔다.

“티모시입니다.” 그는 내 곁으로 와서 손을 내밀었다. 그의 젊고 하얀 얼굴에 가벼운 홍조가 번졌다. 그는 얼은 파란색 옥스퍼드 셔츠를 입고 보수적인 느낌의 파랑과 빨강이 들어있는 넥타이를 자기의 가는 목둘레에 느슨하고 약간 비틀

게 매고 있었다.

“당신보고 들으라는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만 있는지 확인하러 주위를 둘러보고 나서는 붉어진 그의 얼굴이 더욱 더 붉어졌다. “캣은 어지간해서 사람을 바람맞히지 않아요. 그렇지만,” 다시금 주위를 살피고는 거의 속삭이듯 목소리를 낮춰가며 얘기했다. “사람들이 뭐라 말하든 그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왜 제게 그런 얘기를 하시나요?” 나는 티모시가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는 게 짜증이 나서 물었다.

그는 허공에다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이봐요, 개의치 마세요. 단지 당신에게 약간의 의견을 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얼마 안 되는 기간이었지만 여기에서 지냈고, 이곳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움을 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티모시가 말했다.

티모시가 의자를 뒤로 밀기 시작하자 나는 그를 막아서며 사과했다. 그가 말하고자하는 건 나보다는 자신의 마음 상태와 더 관련이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이곳에서 일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말을 시작했다. “여전히 그럴싸해 보이는 사무업무만 하고 있어요. 저는 빠 빠지게 일하고 있죠. 그거 뭐, 오늘 일찍 퇴근 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시다. 캣의 사무실 바로 앞이 제 자리여서 제가 뭘 하고 있는지 그녀가 살펴본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는 화내며 말했지만, 그의 말소리는 화가 났다가보다는 실패한 것처럼, 분개하기보다 상처를 입은 듯이 들렸다. 마치 그는 기업 음모의 희생자라기보다 변화무쌍한 환경의 불행한 희생자 같았다.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서 인정을 받는다고 느끼지 못하는군요.” 나는 분명한 사실을 말했다.

“아아아, 그렇게까지는 아닙니다.” 그가 손사래를 쳤다.

나는 그가 다음 말하기를 기다렸다.

“오히려 저만 뒤쳐졌다는 말이 맞습니다. 저를 빼고 다른 사람들은 승진을 한 다거나 멋진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만 지금도 여기에 남아 주문과 타이핑 그리고 그런 잡다한 일을 처리하느라 열심히입니다. 저는 나이가 같고 경험이 있는 다섯 명의 동료들과 함께 이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거의 막 학교를 졸업한 상태였습니다. 다섯 중 한 명이 다른 회사로 옮겼고, 나머지 사람들은 YSC에 근무하면서 뉴욕과 런던을 출장 다니며 신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 숨을 쉬었다.

“안됐네요, 티모시” 나는 마음속에서 상담자와 같은 기분을 느끼며 말했다. 종종 나는 남에게 조언을 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심각한 조력자 역류질환 (Facilitator Reflux Disease)을 가지고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해 왔다. “꼬치꼬치 캐물으려는 건 아니지만, 왜 그렇다고 생각하나요? 다른 동기들은 기회를 얻고 자신은 얻지 못하는 이유가 있나요?”

“왜냐면 저는 상사들에게 아침이나 해서 관심을 받으려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는 누군가를 숨겨주고 있다는 태도를 내비치며 씩씩히 말했다.

“그럼 그들은?”

그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서는 너무나 혼잡합니다. 문화적인 거죠. 그들은 그걸 GTY라 부르더군요.” 약간은 상기된 듯 말했다.

갑자기 내 입이 떡 벌어졌다. “GTY라구요?” 라며 되물었다.

“네. 자신보다 남을 더 잘되게 하기(Greater Than Yourself). 켓의 경영철학이죠.”

“저도 들어봤습니다.” 나는 GTY가 부정적인 의견을 어떻게 갑자기 얻게 되었는지 혼란스러웠다. “그런데 당신은 GTY에 만족하지 않는 것같이 들립니다만.”

“공평하지 못해요. 내가 말했던 모든 사람들? 내 동료들? 회사에 있는 상사들은 그들 모두가 더 잘되도록 도움을 줬습니다.”

나는 항상 회사에서 그들만의 독특한 말들을 만들어 내는 걸 보면 매우 재미있다고 생각을 했다. “GTY 뻘다고요?”

그도 슬픈 미소로 내 웃음에 답했다.

“그러니깐 누구도 당신만은 GTY프로젝트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는 말이죠?”

티모시는 그가 말하려는 의미를 내가 너무도 빨리 간파하여 놀란 눈치였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내가 최근에 자신보다 남이 잘 되게 하기 철학에 대해 배운 걸 얘기 했다.

“당신이 제 의견을 듣고 싶어 한다면...” 그가 말을 시작했다.

“티모시, 당신이 이미 그걸 얘기한 거 같은데요.” 나는 그의 말을 무시하며 말했다.

“보세요, 저는 GTY 이면의 의미를 정말로 이해해요.” 라며 그는 말을 이어나갔다. “오늘날 리더들은 미래의 잠재적인 리더들을 찾아야하고 그들이 리더가 되는 걸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게 캣의 철학의 일부입니다. 저도 그 생각이 맞는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궁극적으로 회사도 정말 튼튼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부분은 뭡가요?”

“이건 단순히 관리자들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직급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어야 합니다. 만일 제가 정말, 정말로 뭔가를 잘한다면, 제 전문적 지식을 열정과 재주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와 나눌 기회를 찾아야만합니다. 제가 찾은 바로 그 사람에게 투자를 해야 하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걸 나눠 줘야합니다. 그럼 결국 그들은 그 분야에서 나보다 더 뛰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생각에 동의하지 않으세요?”

“네.” 그는 적절한 단어를 선택하느라 잠시 말을 끊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누군가를 찾아서 내 지식을 나눠 주려는데 누구도 내 도움을 원치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런 일이 있었나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줬는데 거절당했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만 왜 내가 누군가를 도와야만 하나요? 제 주변에는 저의 성공을 도와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여태껏 단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한 번 봅시다, 티모시. 누군가가 먼저 당신이 성공하도록 도와주면 당신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거죠, 맞나요?” 라고 내가 말했다.

“왜 제가 해야만 하나요?” 그의 목소리가 점점 움츠러들며 되물었다.

“대가성이네요. 그죠?”

“보세요.” 그가 말했다. “저는 이 직장이 필요합니다. 묵묵히 앞만 보고 가는 한 월급은 계속 받을 겁니다. 그게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얘기입니다. 지금 전 억지로 이곳에 다니고 있습니다. 왜 제가 경쟁자들을 도와야 하나

요?”

티모시가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괴로움을 인정했다. 정확하게 그의 속뜻을 읽어본다면, 티모시는 GTY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원리를 비난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신의 업무에 재능이 없는 사람에게서 도와달라는 요청 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나는 누구도 티모시에게 투자하기를 원치 않을 거라 확신한다. 왜냐하면 티모시는 YSC라는 회사에 몸 바쳐 일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럴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 불쌍한 젊은이는 이 회사와는 끄적이지도 맞지 않는 게 분명한 것 같지만 스스로 다른 선택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악순환은 누군가가 끊어주어야 한다. 안 그러면 이 젊은이의 고통이 악순환을 더욱 심화 시킬 것이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쉽사리 충고를 하며, 종종 느끼건 데, 때론 나도 그들 중 한사람이라는 죄책감이 들었다. 그래도 나는 내 충고의 질이 상대방을 정말로 아는 정도에 따라 직접적으로 비례한다는 점을 깨달았다. 티모시를 안 시간이 뉴욕시티 한 블록을 걸을 정도로 짧아서, 그의 삶과 직장생활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런데 티모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럼, 당신은 제가 저의 재능을 나눠서 도와야한다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대를 무장해제 시키는 진정성을 가지고 물었다.

나는 티모시에게 조언을 하고 싶은 욕망을 느꼈다. “티모시, 잘 들어보세요.” 내가 말했다. “당신은 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저도 그렇고요. 제가 하는 말을 끝이곧대로 다 받아들이지는 마십시오. 알겠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충고를 듣고 싶은 거 확실하죠?”

그는 다시 한 번 고개를 끄덕였다.

“먼저, 냉정하게 말해 자신보다 남을 더 잘되게 하기에 당신이 동의를 하지 않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사실,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은 것처럼 들리기도 했어요. 그러나 어떤 이유에선지 당신에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신보다 남을 더 잘되게 하기는, 제가 이해하기로, 당신의 개인적 자존감은 놔두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자유롭게 자신을 나누는 일에 관한 거랍니다. 때론 당신이 그런 균등한 관계에서 주는 쪽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받는 쪽이 되기도 하

죠. 때론 두 가지다가 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탄탄한 개인 간 교류가 나타나입니다. 양측은 단순히 자진해서 뿐 아니라 헌신적으로 교류가 잘 일어나도록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당신이 이곳 YSC에서 GTY를 경험해 보지 못한 이유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능력과 관심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GTY를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뭔가를 진심으로 남과 공유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이유로 다른 사람도 당신의 방문을 두드리지 않습니다. 제 짐작이 맞나요?”

“대체로 맞습니다.”

“좋습니다.” 나는 그의 대답을 동의의 의미로 받아들였다. “제 생각에 상당히 명확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해결책이 있다고요? 그게 뭔가요?” 그가 돌연 생기를 띠며 말했다.

“회사를 관두십시오.” 라고 내가 대답했다.

그의 얼굴에 실망의 빛이 돌았다.

“다른 일자리를 찾으세요, 티모시. 당신이 좋아할 만한 회사나 일자리를요. 당신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회사 말입니다. 인생은 너무도 짧아요, 짧은이.”

“그렇지만 전 돈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그만 둘 수는 없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얘기했다.

“그럼,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여기 있는 동안 열심히 일하면 그 기회가 찾아왔을 때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그 때가 도약할 시기죠. 그리고 일단 당신이 도약을 하면 GTY사상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곳에서 그 사상을 시험해보시죠. 당신이 다른 회사에서 GTY의 개척자가 되는 겁니다!”

그의 얇고 붉은 입술에서 긴 한 숨이 흘러나왔다. “내 칸막이로 돌아가야겠군요.” 그가 애석해하며 말했다.

“미안합니다, 티모시. 당신이 제 의견을 청했잖습니까. 이게 다입니다. 제 의견이에요. 당신의 삶이 짧아요, 그죠?”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럼 그렇게 행동하십시오.” 내가 말했다.

제 22 장

남의 태산 같은 고민에 대해 냉정해지기는 쉽다. 자신의 일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티모시는 프로젝트 일을 하러 자리를 떴고, 난 여전히 찰스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벽화처럼 앉아있었다. 보통 그렇게 남겨지면 혈압이 상승했을 테지만, 지금은 티모시와의 대화가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티모시가 YSC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 있고 켓을 “여자두목”이라 칭했을 때 처음에는 당혹스러웠다. 그러나 그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분명 티모시 본인 이외에 그가 얼마나 많이 힘들어하는지 알고 있을 유일한 사람이 생각났다. 만일 GTY가 그렇게 대단한 문화이고, 켓이 뛰어난 CEO라면 그가 어떤 불평하는지 알아채지 못했을까? “티모시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눈에 띄지 못한 채 YSC회사의 사무실에서 지내고 있는지 궁금했다.

아무튼,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이리다간 그런 의문들과 다른 것들을 켓에게 물어볼 기회가 점점 줄어들 것 같았다.

나는 사무실 로비 쪽 홀로 되돌아왔다. 그 안내인이 아마도 켓처럼 감동스럽게 사라져버린 찰스를 불러 줄 수 있을 것이다.

찰스는 자기 탓인 양 양팔을 넓게 벌리고는 복도 끝에서 나를 가로 막아섰다.

“스티브. 정말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고객분들 중 한 분에게 뭔가 일이 생겨서 켓이 급히 해결하러 갔습니다. 켓이 개인적으로 해결해야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누군가를 대신 보냈을 것입니다.”

찰스가 지나치게 켓을 감싸는 것처럼 들어서 그가 진짜로 진심인지 궁금해졌다. 켓은 프로이므로 내가 사무실에 도착하기 전 누군가와 방문약속을 다시 잡아야 했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의도적으로 피하는 걸까? 만일 그렇다면, 왜? 나는 사악한 목적도 없을뿐더러 전염병을 앓고 있지도 않다.

“켓이 왜 제게 전화를 하지 않았죠?” 그녀가 훌쩍 떠나버려 기분이 상해 물었다. “당신이 켓의 감시인이죠?” 찰스는 완벽주의자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실

수를 용납하지 않았다.

“스티브,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제가 아는 거라곤, 켈이 약속시간이 다되어서야 일정을 다시 잡아야했던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뉘우침이 너무도 진실해서 웃을 수밖에 없었고, 그를 더 이상 곤란하게 만들지 않았다.

찰스가 차까지 바래다줄 때, 티모시와의 대화에 대해 그에게 말했다. 비밀을 팔아먹는 느낌은 없었다. 다만 그 청년이 회사 내에서 약간의 도움이나마 받기를 바랐다. 찰스는 내말에 전혀 놀라는 것 같지 않았다.

“티모시가 YSC에 남아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영리하고 일을 매우 열심히 하기 때문입니다. 달리 얘기해서, 그는 받는 만큼 책임을 다하고 있죠. 그러나 그게 전부입니다. 만일 그저 직장에서 일하는 게 당신을 행복하게 한다면 좋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니까요.” 찰스는 주차엘리베이터의 층수를 누르며 말했다.

“그러나 티모시는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했다.

“네. 티모시는 더 많은 걸 원합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는 좋은 사람이며 헌신적인 직원이어서 YSC에서 만족을 찾지 못한다는 점이 참으로 유감 이죠. 그는 성취감을 주는 일을 찾아야하죠. 우린 티모시가 이곳에서 행복을 찾도록 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벌어질 거란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얘기할 건가요? 어찌면 그에게 약간의 가르침을 주시겠죠?” 내가 물었다. 찰스는 티모시에게 아주 좋은 상담자가 될 것이다.

“아니요, 얘기 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망연자실해졌다. “아니 왜요?”

“왜냐면 티모시를 맡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티모시는 아직 모르지만, 누군가의 GTY프로젝트에 곧 합류할 것입니다.”

“잘 됐네요.” 이번은 좋은 소식에 또 한 번 깜짝 놀라며 말했다. “누구의 GTY가 될 건가요?”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문이 미끄러지듯 열렸다. 나는 주차장으로 내려서서 자동차 열쇠를 찾으려 호주머니를 뒤적거렸다.

“켈의 GTY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우리 둘 사이에서 닫힐 때 찰스가 말했다.

제 23 장

깜짝 놀라 잠에서 깬다. 방은 어두웠고 잠시 동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알람시계를 보고서야 내 것임을 알아챘다.

8시. 잠자리에 든 기억이 없을 뿐더러 더욱 혼란스러운 건 아침 이시간이면 항상 방안을 가득 비추던 햇빛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오후 8시인 걸 깨닫자 이해가 되었다.

그러자 기억이 났다. YSC 방문 후 잠시 눈을 붙이러 집에 돌아왔고, 오늘 밤 있을 즉흥공연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침대에 푹푹이 앉아 전등스위치를 더듬어 찾았다. 즉흥 공연! 그들은 지금 곧 연주를 시작할 것이다. 뛰어 들어가 샤워를 하고 최대한 빨리 옷을 갈아입으면서 머릿속에 남아있는 혼란한 기억들을 지워버렸다. 나는 김슨 기타와 피크한 읊음을 집어 들고 차를 향해 전력 질주했다.

포웨이로 빠져나가자 허둥지둥하던 마음은 밤에 있을 음악연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사라져버렸다. 그래 늦은 거야. 별일 아니야. 연주중간에 내가 무대에 나서길 그들이 원하지 않을지언정, 빅 제프와 그의 밴드의 연주를 듣고 싶다. 게다가 난 연주에 대해 백 퍼센트 확신이 없다. 관객이 되는 게 좋다. 차 스테레오의 소리를 높이고 북쪽으로 향하는 30분 여정의 배경음악인 버디 가이 음악에 운전대를 두드리며 박자를 맞췄다.

상점가로 갔을 때 주차장은 꽉 들어차있었다. 그날 밤 불이 꺼진 우편화물 운송점 근처 저쪽에 차를 세웠다.

손에 기타를 들고 갈기 머리 기르지 마 미용실로 향하는데 저 멀리 연주소리가 들리지 않아 이상했다. 이 사람들은 어쿠스틱 기타가 아니라 일렉 기타를 연주한다. 공기를 타고 최소한 베이스의 울림이 느껴지길 고대했다. 나는 순간 24시간 내내 잠을 자서 공연을 모두 못 봤거나 날짜를 잘못 안 건 아닌가하고 당황스러웠다. 그렇다면, 여기 이렇게 많은 차들은 어떻게 설명을 할까.

미용실 문은 열려있었다. 문을 열고 사람이 없는 곳에 들어섰다. 드럼과 모

든 음악 장비들이 없는 걸 보았을 때 가슴이 철렁했다.

“안녕하쇼!” 등 뒤에서 나는 소리에 깜짝 놀라 기타를 거의 떨어뜨릴 뻔했다. 붉은색 얼굴의 미용사는 낮은 조명에 가려진 이발용 의자에 앉아 있었고 그를 보려고 재빨리 몸을 돌렸다. “미안하오, 친구. 겁주려던 건 아니었소.” 그가 말했다.

“괜찮습니다.” 나는 풍선에 가득 든 헬륨가스를 들이마신 것 같은 목소리로 대꾸했다. “다들 어디 있죠?”

“다들 괜찮아요.” 그는 의자에서 폴짝 뛰어내리며 말했다. “늦게 도착한 사람들을 데리려고 남아 있었어요.”

“늦어서 미안합니다.” 내가 말했다.

“공연 시간이 다 되서야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뒤쪽에 더 큰 공간으로 옮기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뒤쪽이라고요?” 나는 싱크대가 놓여 있는 쪽을 봤다.

“자자, 같이 갑시다.” 그가 말했다.

싱크대 뒤쪽을 지나 커튼으로 가려진 희미하게 불빛이 보이는 복도 입구로 그를 따라 갔다.

“빅 제프와 파트너는 건물의 뒤쪽을 공연장과 녹음실로 개조했죠. 방음도 되서 음향 면으로 거의 완벽에 가까워요. 아직까지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은 이유입니다. 거길 들어가면 엄청나게 흥분될 겁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겠다면, 당장은 아니고, 이 공연장이 언젠가 클럽으로 바뀌겠지만 지금은 그들의 놀이터랍니다. 건물을 돌아 뒤쪽으로 입구가 하나 더 있는데 관객을 모아놓고 공연을 할 때면 단골들이 이용하죠.”

그는 검은 색의 큰 철문에 달린 손잡이를 돌려 밀어 문을 열었다.

음악 소리가 폭포수처럼 왈각 밀려들어 세계 속에 또 다른 세계에 들어온 느낌이었다. 그곳은 사람들로 꽉 차있었고 흰색과 다양한 색상의 스포트라이트가 무대를 가득 비췄다. 로버트 존슨의 명곡을 부르는 어떤 여성의 애절한 블루스조 음성이 공기를 가르며 퍼져나갔다.

난 십자로를 향해 갔어, 무릎을 꿇었지

자비로운 주님께 간청했어, 부디 나를 구해달라고

갑작스런 감각기관의 지나친 자극을 조정하려 최대한 방을 이리저리 둘러보았다.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일제히 음악에 맞춰 머리를 흔드는 걸 보았다. 몇몇 사람들은 앞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그래서 무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집중하는 게 더 쉬울 거란 생각이 들었다.

빅 제프는 두꺼운 목에 베이스 기타를 메고 무대 왼쪽에 있었다. 그는 탱크 탑과 보드 바지를 입고, 조리를 신은 채 노래에 강렬한 베이스 부분을 연주했다.

몇 명의 사람들이 날카로운 기타 솔로 연주에 맞춰 격렬히 움직이자, 그렇게 맛깔나게 감정을 살리고 정교하게 연주하는 게 누구인지 보려고 무대 반대쪽을 쳐다보았다. 오래된 펜더 스트라토캐스터를 연주하고 있는 황백색 리넨 스포츠 재킷과 검은색 바지 차림의 진 젠더의 백발이 스포트라이트 조명 아래 반짝였다. 그는 솔로 연주를 마치고 뒤로 물러서서 청중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에 감사를 표하며 인사를 했다.

진은 무대 중앙으로 얼굴을 돌려 가장 가까이에 있는 마이크로 몸을 기울였다. “무대로 나와요!” 라고 그가 소리쳤다.

한 젊은 여성이 기다리고 있다가, 청중들이 연주를 외치자 무대 앞으로 나와 다시금 기타의 목 부분에 두꺼운 유리 병 목을 문지르는 보틀넥 주법으로 연주하기 시작했다.

붉은 얼굴의 미용사가 무대로 올라가서 진의 귀에다 대고 뭔가를 크게 말했다.

진은 빛을 가리려 오른손을 둥글게 쥐어 눈에 대고는 관객을 바라보며 뒤쪽에 서있는 나를 찾았다. “올라와요.” 그는 함지막한 웃음을 띠고 입모양으로 말했다. 내 기타를 가지고 오라는 듯 기타로 연주하는 모습을 보였다.

관객을 지나 무대 옆쪽으로 다가가니 심장이 요동쳤다. 무대 공포는 터무니없는 실수를 만들 수 있다. 양손이 너무도 심하게 떨려 겨우 기타가방 걸쇠를 열고 기타를 땄 수 있었다. 간신히 튜닝기에 전원을 연결해 음을 맞췄다. 숨을 깊이 들어 쉬고 진 곁으로 다가가 채즈 식으로 손을 맞교환했다. 앰프에 발판 스위치를 연결하고 굉장한 실력으로 솔로 연주를 하는 이 여성을 보기위해 돌아섰다.

그녀의 칠흑색 단발머리가 옆에서 옆으로 흔들거리며 왔다 갔다 했다. 코에 있는 작고 빨간 장식은 입술에 발려진 루비 색 글로스와 어울렸고, 빛이 나는 부드러운 하얀 피부와 대조적으로 반짝거렸다. 그녀는 마이크 쪽으로 가서 노래를 부르며 손을 옆으로 내려놓았다.

난 십자로를 향해갔어, 여정을 알리려 했지.

그녀는 다리가 돋보이는 허벅지중간 길이의 짧고 짝 끼는 검은색 니트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가 맨발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왼쪽 종아리 뒤쪽에 만화의 한 장면이 문신으로 새겨있었다.

커다랗게 늘어진 줄무늬 모자 꼭대기부터 웃음이 나올 정도로 넓은 빨간색 나비넥타이까지, 15센티미터 길이의 총천연색 모자 속 고양이였다.

누구도 나를 알아보지 못한 듯, 모든 이들이 나를 지나쳤다.

그녀의 얼굴을 다시 한 번 유심히 봤다.

마침내, 캣 캐서디를 만났다. 그리고 이런, 그녀는 정말로 길고 높은 소리를 낼 수 있었다.

제 24 장

정상적인 상황에서 기타 솔로를 할 거라면 우선 준비를 했어야 했다. 손가락들을 풀었다. 손가락을 풀려고 몇 악절 기타를 튕겼다. 멜로디의 감정을 잡기 위해 음조와 연주과정 전반에 대해 충분히 생각했다. 그리고 나자 곡이 익숙해졌고, 느리고 안정되게 연주하기 시작했으며 멜로디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더욱 대담하며 실험적이 되었다.

오늘밤, 난 그런 기회가 없었다.

캐트 캐서디는 재빨리 돌아서서 나를 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기타를 가리키며 만면에 웃음을 띠고 “한번 놀아볼까요!” 소리치고는 다시 곡의 첫 부분이 시작되자 마이크에서 뒤로 물러섰다.

갑자기 나는 역사적인 순간에 들어섰다. 이 공간에 있는 모든 눈들이 나를 주시하고 있고, 내 연주와 예술가적 기교 그리고 무대에 설만한 가치가 있는지 평가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느껴졌다.

아드레날린이 뿜어져 나왔다. 머릿속에 피가 세차가 흘러가며, 록스타의 모든 힘과 자신감을 갖고 기타를 연주했지만, 두려워서 손가락들이 얼어붙고 서로 딱딱 맞부딪치는 결과만 낳았다. 손가락들이 네 개의 작은 마비된 뱀들처럼 프렛보드 위를 서서히 기어가는 느낌이었다. 누군가 앵무새를 뒤에 있던 앰프에 집어넣으려는 것 같은 둔탁한 외침소리가 흘러 나왔다.

리듬 파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시작되었다. 결국 기타 목 부분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잠시 멈춰서 손을 털고 산모들처럼 숨을 깊게 들이 마시고 내쉬었다. 다시 시도하는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어서, 기타의 볼륨 조절장치를 끝까지 올리고 앰프는 최대 출력으로 한 후 캐트 무대에 있는 모두가 -- 캐트를 포함하여 -- 승인과 구원이라는 생각이 드는 고개 짓을 해서 다시금 격렬한 기타 솔로를 시작했다.

그리고 스스로도 자랑스럽다는 걸 인정한다.

캐트는 마지막 절을 노렸고, 숨씨 좋은 드럼 연주자가 마지막 몇 박자를 스네어

로 연주하면서 곡을 마무리했다.

사실, 드럼 연주자는 시종일관 드럼을 꽤 잘 쳤다. 그는 바위처럼 꿈쩍하지 않으면서, 가끔 멋지고 다양한 드럼 채 기술로 연주를 채워갔다. 그러나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그를 보기가 어려워 그때까지 그를 보려고 조차하지 않았다. 그런데 연주가 끝났을 때 거의 쓰러질 뻔했다.

“티모시!” 난 소리쳤다.

그는 이를 드러내며 크게 웃었고, 다음 곡을 시작하기 위해 리듬에 맞추듯 빨강 머리로 고개 짓을 했다.

사무실에서, 티모시는 물 밖 오리 같았다. 그러나 이곳에서 그는 물 만난 오리였고, 나는 티모시 바로 옆으로 뛰어 들었다.

이후 몇 시간은 멋진 선율이 흐르는 아름다운 꿈처럼 느껴졌다. 우리는 노래와 솔로, 악기연주를 쉴 새 없이 주고받았다. 마침내 청중을 살필 수 있게 되었을 때, 찰스 롤랜드와 플루메리아 메이플이 방 한 가운데에서 춤을 추고 있는 게 보였다. 볼 만한 광경이었지만 하이라이트는 아니었다.

키 작고 대머리에 카페인에 찌든 친구처럼 몸을 배배꼬면서 혼자서 격렬하게 춤추며, 흥에 겨워 들고 있는 칼 젠더가 댄스장의 스타였다. 모든 사람들은 확실히 그의 열정적이고 얽매이지 않은 즐거움의 표현을 흥겨워했다.

무대 위 빅 제프가 베이스 연주를 시작했다. 전에 만난 적이 없는 한 사내가 전자 키보드로 꽤 괜찮은 연주를 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쟈와 캣의 기타 연주 실력은 나보다 훨씬 나았고, 그들을 쫓아하려는 노력 덕택에 시계의 작은 바늘이 새벽 1시를 가리킬 때 즈음 꽤 실력이 향상되었고, 그 시각 청중들은 돌아가기 시작했다.

우리는 선배 가수 레드벨리의 곡 “잘 자, 아이린”을 마지막 노래로 연주하고 코드를 감아 문을 닫고 악기와 장비들을 치웠다. 모든 사람들이 말없이 동참했다. 몇 분 후, 서로에게 잘 자라는 말을 했다.

연주 내내 몇 마디 외치는 소리 말고는 캣과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우리가 이미 서로에 대해 알고 있다하더라도, 인사조차 하지 않았으므로 그녀에게 정식으로 인사를 건네러 갔다.

너무 늦은 시간이라 캣과 몇 마디 말을 나눌 수 있으리라는 기대조차 하지 않

왔다. 그녀가 나를 이끌고 무대 끝으로 안내하여 옆자리에 앉으라고 했을 때 너무도 당황하였다.

“주말이에요. 저녁 형 인간이세요, 스티브?”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만일 그렇더라도 너무 피곤하지 않다면 지금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무실에서 당신을 바람 맞춰서 정말 죄송해요.”

나는 시계를 보고자하는 유혹을 뿌리쳤다.

“음, 제 일정을 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내가 말했다.

제 25 장

찰스 롤랜드와 빅 제프가 작별인사를 하려고 왔다. 팀과 함께 펼친 내 연주를 칭찬했다. 그날 저녁 공연에 내 몫을 한 것 같아 기분이 좋아졌다.

“잘했어, 파트너.” 빅 제프가 컷을 힘차게 포옹하며 말했다. “나갈 때 불 끄는 거 잊지 말고 문도 잠그고 경보 시스템도 켜라고. 그리고 … ”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줄까요?” 컷은 천진난만하게 말했다. “내가 이곳에 쏟아 부은 돈 때문이라도 잊지 않아요. 내가 문을 잠글지 말지 말했어요?”

빅 제프는 그녀의 불에 열정적인 키스를 했다. “재미있는 여자야.” 그는 말했다. “늦게까지 컷을 붙잡고 있지는 말게, 친구.” 그는 내 어깨를 툭툭 치고는 찰스와 함께 방을 나갔다.

“그래, 스티브. 오늘 오후 일은 정말 미안해요.” 컷은 내게 돌아서며 말했다.

그녀는 나와 의 약속 시간을 잡아 뒀는데, 포춘 100대 기업 중 하나인 주요 고객이 YSC CEO와 긴급회의를 요청한다며 약속시간에 다다라서 전화를 했다고 설명했다. 컷은 소중한 고객을 바람맞힐 생각은 않고 대신 나를 바람 맞혔다. 내가 컷이어도 같은 결정을 내렸을 것이다.

“글쎄요, 본전도 못 건진 건 아닙니다. 드러머와 흥미로운 얘기를 할 기회를 가졌으니까요.” 나는 그녀가 곤란해지지 않도록 하면서 말했다. 나는 그녀의 반응을 살폈다. 컷이 티모시의 뿌리 깊은 불만에 대해 알고 있는지 궁금했다.

“충분히 그의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솔직히, 티모시가 똑똑하고 능력이 있 다하더라도 회사라는 환경에는 맞지 않는 사람이죠. 천직이 아녜요. 오늘밤 그의 행동이 진정한 그의 열정이랍니다. 드럼연주를 직업으로 삼아야 한다는 게 제 의견이에요. 그래서 티모시가 그럴 수 있도록 도와려고 합니다.” 컷은 비어 있는 드럼자리를 돌아보며 얘기했다.

“그럼 그게 당신의 GTY 프로젝트인가요?” 내가 물었다.

“그것들 중 한가지이죠.” 그녀가 답했다.

“어떻게 자신보다 남이 잘되게 하기를 직장생활에 접목시킬지 듣고 싶습니다. 흥미롭게도 티모시의 경우 도와주려는 당신의 제안이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군

요. 굉장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군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적으로 사실은 아녜요. 티모시는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직원으로 YSC에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원하는 한 회사에 있을 수 있고 일할 수 있지요. 그러나 달리 말해 그에게는 독약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로 저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를 말이죠. 그의 불만은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도 그의 곁에 있으려하지 않아요. 그건 슬픈 현실이죠. 왜냐면 당신이 오늘 밤 본 것처럼 그가 자기자리에 있을 때는 셋별처럼 빛나죠.”

그건 사실이였다. 오늘 밤 그의 모습은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았다.

“그래서, 그가 떠나는 게 YSC와 근무 환경에 더 좋습니다. 그러나 전 티모시가 성장하도록 돕는다는 측면에서 GTY를 하고 싶어요. 그래요 ... 그는 제 프로젝트입니다. 당분간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의 적지 않은 음악계 인맥들을 알려주고 티모시의 재능을 보일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주려고합니다. 그에게 어울리는 밴드를 연결해주고 YSC에서 일하는 것 이상으로 충분한 스튜디오 작업을 하게 할 겁니다. 장래에는? 누가 아나요? 물론 그건 전적으로 티모시의 결정에 달린 거랍니다.”

“캣, 엄청나게 마음을 쓰시는군요. 진심으로요.”

“그건 자신보다 남이 잘되게 하기의 모든 것 중 일부예요, 스티브.” 캣은 잠시 말을 멈췄다. “삶의 모든 부분에서 뭔가를 진척시킬 때가 있어요. 제가 결국 티모시와 함께 프로젝트를 하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티모시의 프로젝트는 지금 진행하는 많은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라고 했습니다. 다른 프로젝트도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글쎄요, 지금쯤이면 저의 철학에 대해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프로젝트에 대해 말할 때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우고 제 자신이 습득한 철학을 의미하는 거랍니다. 철학을 창조하지는 않았습시다. 그 철학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다만 그 철학에 맞춰 살려고 노력하고 있죠. 이 철학이나 접근법 혹은 방법론은 우리 회사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지요. 우선 YSC에서 자신보다 남이 잘되게 하기 환경 아래 근본적으로 변화를 겪은 직원들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에게 그 가치는? 사업상으로는? 우리 동료들

이 가지고 있는 충성심과 서로에 대한 그리고 고객에 대한 헌신에 어떤 가치를 매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회사의 이직률은 산업 평균의 10분의 일에 불과해요. 왜냐면 다들 회사를 떠나기 싫어하기 때문이죠. 이런 현상은 같은 자리에 여러번 신입 지원을 교육시키는 대신에 더 많은 돈을 직원 개발에 쓰이게 했죠. 간단히 말하자면, 저희 회사가 인기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 직원들의 헌신 덕분이며, 이 헌신은 대부분 GTY 문화 속에서 일하고 생활하면서 나온 거랍니다.” 잠시 말을 멈추고 컷은 자신의 단어를 곰곰 생각해보았다.

“티모시는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컷은 나직이 말했다. “모든 사람이 우리 일과 맞지는 않아요. 그가 겪는 어려움은 자신보다 남이 잘되게 하기 자체와 관련 있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 당신은 이미 GTY에 대해 들은 것 같은데요.” 컷은 그녀의 오른쪽 귀 뒤로 머리카락을 넘기면서 웃었다.

“찰스가 저를 학교에 데려다 줬습니다. 당신과 알현하기 전에 GTY에 대해 배워야한다고 말하더라고요.” 내가 말했다.

“찰스가 정말 그런 말을 했어요? 우스워 죽겠네요.” 컷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숨을 돌렸다. “그가 한 말 믿어요? 이런.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겠네요.”

“글쎄요.” 난 대답을 주저했다. “전 그 사상이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어때? 무척 재미있겠는걸. 이라고 생각했죠.” 나는 얼굴이 달아오르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이 순간까지도 찰스가 컷을 대변하고 있다고 확신했다. 나는 완전히 우롱당한 느낌이었다. 비열한 악당 롤랜드에게 완전히 새로운 존경심도 느껴졌다.

“좋아요.” 달래 듯 그녀는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어느 쪽이든, 저는 당신이 GTY에 시간을 내줘서 기뻐요. 그건 제 존재의 핵심과 우리 회사의 모든 점에 대해 내가 느끼는 바를 대변해주죠.”

간단히 내가 GTY에 대해 무엇을 배웠고 그들에게 어떤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 컷에게 얘기했다.

“전 이미 첫 GTY프로젝트를 선택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토미 스펀딩에 대한 얘기, 새로운 웹 사이트와 플루메리아 메이플의 호의에 대한 얘기를 했다.

“비록, 아직까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주어라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전체적인 얘기를 많이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괜찮으시다면 직접 말을 듣고 싶습니다.”

“물론이에요. 정말 매우 단순합니다. 당신의 삶을 베풀라 라는 세 단어로 그 말의 진수를 설명할 수 있어요.”

“만들어낸 말이죠?” 내가 물었다.

“아마도 그럴 거예요. 그러나 전 그런 욕구라는 단어를 만든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준다는 게 정말로 매우 개인적인 일대일 자선활동행위라는 걸 알죠? 사전에서 그 의미를 찾아보세요. 자선활동가는 ‘다른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려는 사람’이라고 적혀있어요. 우리는 항상 자선활동을 단순히 궁핍한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과 연관 짓지만, 그 공식에서 돈이라는 걸 빼면 그게 바로 당신자신을 쥐버리라는 정신이 되지요. 그게 바로 욕구지만 돈을 주는 대신 자신의 공간 문을 열고 그들에게 당신의 도움을 가장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행복감을 높여줄 수 있어요. 당신은 ‘궁핍한 사람’에게가 아닌 도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자선을 베푸는 거예요.”

“일리가 있네요. 인간본성에 대해 다소 이상적인 관점이지만, 일리는 있어요.” 나는 말했다.

“그렇게 이상적이란 생각은 들지 않아요. 제게 많은 희망을 주는 게 뭔지 아세요, 스티브?”

“뭔가요?”

“자선활동 실천이 인기 있는 개념이 되어가고 있어요. 대기업들이 도와주고 있죠. 2006년 워렌 버핏이 자선재단에 450억 달러의 재산 중 85퍼센트를 기부하게 되고 약속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어떤 일이 있었죠?”

“도처에 뉴스거리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버핏의 유례없는 관용을 일종의 모순이라 생각했죠. 어리둥절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 약속에 대해 얘기를 나누면서 뉴스거리가 되었답니다.”

“사실입니다. 상당한 금액이 빌 & 멜린다 게이츠 재단에 맡겨지겠죠.” 라고 내가 말했다.

“맞아요. 그 후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빌 게이츠가 재단 일에 충실하려고 은퇴할 거란 발표를 했죠. 달리 말해서 상근 자선가가 되겠다는 거죠.” 컷은 말을 이었다.

“자, 거기다가 어려움에 처해있는 가족들을 위해 집을 지어주고 누가 통큰 기부자가 될 수 있는지 맞추기 위해 경쟁하는 TV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얻고 있어요. 자선가의 행동은 인기 문화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게 분명해졌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인간으로서 너그러움에 호소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에 호소합니다. 이야기에 감명을 받아요. 이야기에 감동하죠. 왜냐하면 주는 행위를 목격하는 건 근본적인 수준에서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 행위는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길 원한다는 걸 다시 한 번 알려주죠.”

“GTY는 정말로 매우 개인적인 일대일 자선활동이지요. 그건 GTY를 실행하기 위해 부자가 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똑같이 내면 깊숙한 곳의 욕구에서 나온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어요. 큰 돈은 그 세계의 게이츠와 버핏 같은 사람들에게 맡겨 두시구요. 남은 우리들은 우리의 재능과 시간과 지식 그리고 인맥과 같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들을 일터와 가정에서 우리 삶에 또 다른 가치 있는 사람에게 줄 수 있어요. 뉴스에서 다른 사람들이 주는 행위에 대해 듣거나 보는 대신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럼 삶을 기부하라는 의미가 일종의 레이더를 우선 개발하라는 의미군요. 다른 사람들의 욕구에 대한 감각을 기르고, 그들의 행복과 행운과 더 큰 재산 그리고 그들의 성공과 성취 능력을 높이려는 자신의 바램을 연마하라는 말이네요.”

“오호라, 이제 이해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내가 물었다.

“이미 하고 계신 GTY프로젝트를 가지고 시작하죠. 우선 한 사람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게 집중하고 실험하기에 좋을 거예요. 개념 이상의 걸 얻게 되고 응용하게 된답니다.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방법이죠. 실험적이에요. 시행착오를 거쳐야 한답니다. 그런 방식으로 기타 연주하는 법을 배웠죠?”

“그렇지만 정확히 제 ‘프로젝트’가 된 사람들을 위해 뭘 해야 하죠?”

“그 사람에게 자신의 모든 걸 주는 거랍니다. 수문을 여세요. 당신과 그와의 관계에 투자하세요. 지식을 나눠 주세요. 인생의 교훈을 알려주세요. 그들을 당신의 네트워크에 넣어 주세요. 알맞은 사람에게 그들을 소개해 주세요. 그들에 대한 찬양의 노래를 사람들에게 불러주세요. 그들에게 혹독하고 진실한 피드

백을 주고 그들의 헌신에 신뢰감을 심어주세요. 스티브, 주는 방법을 연습하세요. 개인적인 일대일 자선 활동의 방법을 말이죠. 그런 연습을 통해 당신은 어떤 일이 잘 되고 잘 안되는지 실험해 보고 알게 될 거예요. 이를테면, 모든 걸 철저히 조사하면, 당신은 그걸 알아내게 되고 저를 믿게 될 거예요. 그리고 곧, 당신은 기대한 거 이상으로 자연스럽다는 걸 알게 될 거랍니다. 당신 주위를 둘러싼 일종의 모든 GTY기회들을 알아차리게 될 겁니다. 너무나 많은 기회가 있어서 에너지를 쏟으려 정신없이 뛰어다닌다고 느낄 때 자신의 삶이 자선사업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당신이 이제껏 가능하다고 꿈꿔온 이상으로 다른 사람들의 삶에 오히려 더 많은 차이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진짜 그런가요, 캣? 엄청난 얘기군요. 저의 삶이 자선활동의 삶이 된다고요? 이미 마음이 절절해지지만 아직 제 첫 프로젝트를 시작도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제 모든 시간과 열정을 다 받칠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럴 마음도 없습니다.” 내가 말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선가들이 어떤 동기에든지 돈을 내지는 않죠? 그들은 새로운 것과 무엇인가를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찾기 위해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선택을 합니다. 그게 당신이 해야 할 일입니다. 선택하세요.” 그녀가 말했다.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충고 부탁드립니다요? 어떻게 선택을 하시나요?” 내가 물었다.

그녀는 등을 뒤로 젖히며 기지개를 켜다. 갑자기 피곤한 것 같았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내가 그녀의 발목을 잡은 것인지 궁금해졌다. “무엇보다도 제 팀과 회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GTY의 후보들로 보려고 노력하죠. 그리고 비록 그들이 내 GTY가 되지는 못하지만 모든 사람은 내 GTY 라는 생각을 해요.” 내 얼굴에 나타난 당혹스런 표정을 보며 계속 말을 이었다.

“달리 말해, 모든 사람이 누군가의 GTY 후보가 되겠지만, 그 사람들이 제가 제공하려는 걸 꼭 필요로 하지는 않는 듯 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단순히 돕는 다기보다는 서로 더 뛰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문화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CEO로서의 내 임무 중 가장 큰 부분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 회사와 내 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서로 합심해 일한 결과로 더욱 뛰어나게 된다

는 거죠. 이론상 어떤 분야에서는 그들이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될 거예요. 그렇죠? 내 임무는 회사를 이끌어 가는 것이지, 회사 내에서 가장 현명하고, 잘 나고, 가장 유능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랍니다.”

“그럼, 당신의 목표는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들을 주위에 두려고 노력하는 것이군요.” 나는 그녀의 생각을 마무리 지으려 말했다.

“비슷해요, 그러나 제가 의미하는 바와 정확히 일치하진 않는군요. 이상적인 최종결과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GTY는 거기에 도달하려는 과정이죠. 저보다 더 재능 있는 사람을 채용하려고 하진 않아요. 애정과 욕구 그리고 추진력과 열광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서로에게 모든 걸 줌으로써 서로에게서 최선을 이끌어내도록 독려합니다. 차이를 아시겠죠?”

나는 이해했다. “좀 더 크게 봐서 멘토링 프로그램의 일종이군요?”

그녀는 자신의 목을 두 손으로 조르는 행동을 취했다.

“멘토링은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멘토와 멘티의 역할을 지정할 수 없고 게다가 뭔가 멋진 일이 일어날 걸 기대할 수 없어요. 본질적으로, GTY는 사랑의 활동이죠. 그걸 정할 수는 없어요. GTY를 격려해 줘야하죠. 오해하지는 마세요. 전 세계적으로 특별한 공동체, 학교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이 존재하죠. 당장 그들에게 신의 가호가 있기를 그리고 더 많은 힘을 그들에게 주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몇몇 훌륭한 협력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들에게도 영광을. 그러나 대부분 그들은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스티브, 이걸 생각해보세요. 프로그램이나 계획의 일환으로 각 임원을 부하직원의 ‘멘토’로 배정을 하는 대신, 항상 누군가에게 주는 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궁극적으로 그렇게 되길 기대하는 문화를 만든다고 해봐요. 그건 프로그램이 아니죠. 마술이에요.”

“YSC와 같은 건가요?” 나는 티모시를 떠올리며 물었다.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 도달하진 못했어요. 그러나 시도 자체만으로 그만한 가치가 있죠.”

“솔직히 말해, 이 프로젝트가 모든 사람에게 항상 잘 적용되지는 않아요. 우리의 삶이 실수투성이인 게 현실이죠. 그죠? 솔직히, 그곳에서 사람들은 아주, 아주 근본적인 방식으로 상당히 심각한 정신적 어려움을 겪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어떤 일에도 굉장히 무관심하죠. 어떤 사

람들은 정신병환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열하거나 몹시 기분 나쁘거나 혹은 비슷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제 경험상, 아주 소수의 사람들을 말한 거예요.”

그녀는 거의 평정심을 잃은 듯 잠시 말을 멈췄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성장하고 번창하며 기여하고 차이를 만들어내길 원하죠. 이들이 바로 제가 격려하고 계발해주고, 관계를 쌓으며 제 회사를 세우고 크게 하는 사람들이죠. 최소의 공통분모를 기반으로 사업을 운영하진 않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존재하는 자선사업 욕구를 가꿀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할 거입니다.”

함께 일하고 싶은 여성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말로, 수년간 다른 사람에게서 그런 감정을 가졌던 게 몇 번이었는지 손으로 셀 수 있을 정도다. 나는 촉망 받는 CEO들을 너무나 많이 만났다. “물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제 자신의 예를 통해서입니다.” 캣은 말을 이었다. “전반적으로는 회사를 살피고 더불어 항상 은밀한 방식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인 제 GTY프로젝트들을 세심히 살피죠. 개인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사람과 특별히 제가 제공하는 것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항상 찾고 있어요.”

“궁극적으로 당신을 대체할 사람을 찾는다는 말씀이신가요?”

“항상, 그렇죠. 그러나 대부분 적절히 밀어 올려주고 제공한 조언과 지원으로 급성장할만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잠재력과 열의와 일의 도덕성 그리고 추진력과 마음이 조합된 사람을 찾는 거죠. 제가 굉장히 믿는 사람 말이죠. 그들이 CEO인 저를 대체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마케팅에서 수치를 처리하는 분야나 전략적 사고 의사소통 능력 분야에서는 제 기술과 재능을 뛰어넘을 거예요. 저는 CEO로서 갖춰야하는 모든 이런 분야에서 꽤나 다재다능하고 적어도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우리 팀의 일원이 마케팅의 귀재가 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면 저는 정말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훌륭합니다, 캣. 진심으로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CEO의 자질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상관없어요.” 그녀는 늦은 시간이라 피곤한지 하품을 했다.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해요. 제가 IT 매니저라고 칩시다. 제 기술이 결국은 IT산업에 새로운 표준이 되길 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제자신의 입지를

강화한다거나 승진을 하는 데 이용할 게 아니라 제 팀에 있는 적당한 사람을 GTY함으로써 팀과 팀 동료들이 주목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판매나 구매, 재무와 인사관리 그리고 그 밖에 어떤 분야에서든 마찬가지죠.”

“좋습니다.” 나는 그녀의 말에 수긍했다. “저는 CEO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리더십의 위치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스티브. 당신은 ‘모든 사람’이라는 말의 의미를 여전히 모르고 있어요.” 캐이 말했다.

“네 ... 그럼 이게 경영실천은 아닌 거죠?”

“그래요.” 캐이 미소 지었다. “저는 YSC에서 인턴으로 일하게 되었을 때부터 저만의 GTY 프로젝트를 찾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를 위해 일한다고해서 제가 줄 게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는 아니죠. 그리고 왜 내 동료들 중 누군가가 나보다 아니면 내 상사보다 잘 되도록 도와주려는 노력을 하지 말아야 하나요? 이걸 지위나 직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인간성 문제예요. 제한이 없어야하고 결단코 멈추지 말아야하죠.” 캐이는 목소리를 높였다.

나는 다시 한 번 토미와 내 프로젝트인 스파울딩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토미와 더불어 누구를 도와주려 선택할 수 있을까? 몇 명의 후보자들이 갑자기 마음 속에 떠오르면서 내 안에 뭔가가 찌르르 하는 느낌이 들었다.

“캐.” 하고 부르는 내 목소리에 약간의 불안이 느껴졌다. “당신은 이 프로젝트를 위해 시간을 어디에서 뺏을까? 어떻게 모든 시간을 것처럼 줄 수 있고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겁니까? 자신은 위한 시간은 언제 갖죠? 회사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압도당하지 않는 방법이 있나요?”

“와우!” 그녀는 웃으며 손을 들어 올려 내 말을 끊고 말했다. “엄청난 질문이네요. 정말로 단순한 답 한 가지를 드리죠.”

그녀는 내 얼굴에 새겨진 기대감을 보면서 천부적인 배우 자질을 내비치며 잠시 멈췄다.

“저는 십일조를 합니다.”

“뭐라고요?”

“당신도 알고 있죠. 십일조 현금 말이에요. 소득의 십 퍼센트 정도를 가지고 정기적으로 교회나 자선단체 혹은 여타 단체에 기부하는 걸 말하죠.”

“네. 저도 십일조 헌금이 뭔지는 압니다.” 약간 짜증이 나서 말했다.

“같은 거예요. 제가 돈 대신 시간에 대해 얘기하는 걸 빼고는요. 저는 어느 부분에 일주일간 육십에서 칠십 시간 일을 할까 계산합니다. 내 시간의 십 퍼센트 정도를 주면 GTY프로젝트에 일주일에 여섯에서 일곱 시간을 쏟아 붓죠. 그 거면 충분해요. 만일 제 시간이 모두 소진되면 시간이 날 때까지 더 이상 일을 떠맡지 않아요. 당신도 십일조를 할 수 있어요. 만일 원한다면, 일하는 시간과 노는 시간 혹은 깨어있는 시간에 근거해서 할 수 있어요. 그건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린 거랍니다. 효과 있게 시간 배분하는 방법을 찾는 게 열쇠예요. 처음에는 하나의 프로젝트에 당신이 설정한 십일조 시간 모두를 집중하거나 여러 시간으로 골고루 나눌 수 있어요. 이 또한 당신에게 달린 거죠. 결국 당신시간이니까요.”

그 아이디어가 충분히 이해될 때까지 조용히 잠시 앉아있었다. 나는 그 생각에 허점을 발견하길 고대하며 그 개념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시간 십일조 방식은 간단하면서도 명쾌한 방식이었다.

“캣, 인턴으로 YSC에 입사했을 때 GTY프로젝트의 대상으로 상관들 중 한명을 고른 적이 있나요?” 캣이 좀 전에 말한 걸 상기하며 물었다.

그녀가 웃었다.

“물론이죠. 그랬죠.”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라고 물었다.

“바로 제가 그 증거예요.” 그 CEO는 답했다.

제 26 장

캐이 전기 스위치들을 끄러 방안을 이리저리 재빨리 움직여 다니며 무대 뒤쪽 문 위에 달린 빨간색 비상구 표시등만이 남아있을 때까지, 나는 무대에 앉아 있었다. 빅 제프의 말처럼, 기타들을 한곳에 모으고 나서 캐이 문 옆 패널을 열어 경보장치를 가동시켰다. 문을 열고 늦은 밤 아니 이른 아침 상쾌한 바람을 맞았다.

내 차는 상점가 건물의 다른 쪽에 주차되어 있어서, 캐이의 하이브리드 SUV만이 이곳에 남은 유일한 차였다. 신사인 내가 그녀 차가 주차되어 있는 곳까지 모셔다 드렸다.

“이봐요, 캐이.” 캐이 뒷좌석에 기타를 집어넣을 때 말을 했다. “주말동안 이 기타를 보관해주면 어떨겠소?” 나는 그녀의 기타 옆에 내 기타를 밀어 넣었다.

그녀는 놀라서 나를 쳐다보았다.

“이 기타 좋아하시죠? 진정 이 기타를 팔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다시는 이 기타를 볼 수 있을 거라 기대도 하지 않았을 테고요. 그래서 ... 가세요. 그 기타 가지고 좀 연주하십시오.”

그녀가 나를 껴안았다.

“감사해요. 부탁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 그녀는 목이 멘 듯 얘기했다.

“기쁩니다. 그리고 오늘 밤 시간 많이 내주어서 감사드립니다. 오해하진 마십시오. 공연은 정말 최고였습니다. 대화도 제게는 정말 소중한거예요. 어느 것이 좋은 것인가에 대해 많은 걸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네.” 캐이 웃으며 말했다.

그녀는 내가 문을 열고 있는 동안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대 뒤에 앉아 시동을 걸었다.

“사실, 내가 하는 걸 할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캐이 말했다.

“그게 뭔가요?”

“일주일에 하룻밤, 보통 일요일마다 혼자서 아님 신뢰하는 사람과 함께 앉아서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 일주일과 앞으로의 일주일에 대해 생각합니다. 주제는 없어요. 계획된 시간도 없습니다. 저는 단지 생각하고 반성합니다. 그런 행위에서 머리가 맑아지는 걸 믿지 않을 진 모르겠지만요. 전 늘 샌디에이고에 있는 칼레도니아 선교원에가요. 그곳은 항상 열려있고 비어있죠. 오래된 돌과 나무에서 풍기는 뭔가가 저를 평안히 만들어주죠. 제 비밀장소랍니다. 한 번 가보세요. 당신에게 평화를 주는 곳이 있어요?”

나는 없었다.

“어쨌든, 너무 즐리기 전에 출발해야겠어요. 다음 주 쯤 사무실에 들르면 더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죠.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제 마지막 사무실 방문보다야 더 낫겠죠.”

캣이 다시 웃었다. “결코 제가 만회할 기회를 주지 않는군요?”

“안됩니다.” 나는 문을 닫고 손을 흔들면 말했다.

그녀는 떠났고 나는 내 차로 돌아왔다. 그녀에게 오래된 김슨 기타를 빌려준 것을 정말 잘했다고 생각이 들었다. 걸으면서 차가워진 손을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그러자 주머니 안에서 익숙한 느낌의 접힌 종이쪽지가 만져졌다.

나는 돌아서서 캣의 주의를 끌려고 공중에서 그 쪽지를 흔들며, 캣에게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너무 늦었다. 포웨이 길 아래로 사라져가는 그녀의 미등을 봤다.

이건 이미 터무니없는 짓이다. 내가 아는 한, 그녀는 지금도 이쪽지의 존재를 몰랐다. 그리고 그건 옳지 않다. 차라리 일찌감치 그것에 대해 뭔가를 해야만 했다. 그리고 캣과 그녀의 쪽지가 다시는 서로를 놓치지 않도록 직접 그녀의 손에 그 쪽지를 건네주기로 결심했다. 문득 언제 어디서 그 전달식을 해야 할 지 분명해 졌다.

제 27 장

칼레도니아 선교원은 샌디에이고 올드 타운 근처 그늘진 거리 끝 아늑한 곳에 자리하고 있었다. 멕시코 음식점 옆 거리에 차를 주차하고 인도를 걸어 하얀 회벽으로 치장된 스페인 풍 건물을 향했다. 여러 층으로 된 종탑에는 일요일 늦은 저녁 어둠 속에 저절로 켜진 가로등 그늘이 드리워져있었다. 정원 문으로 가는 돌길을 따라 걸으며, 용설란과 야자수 그리고 만개한 사막의 꽃들로 우거진 조경으로부터 깊은 평온함을 느꼈다. 그날 밤 그 문이 잠겨있기를 정말로 기대했다. 문이 활짝 쉽게 열려 거대한 이중원목 문 쪽으로 난 계단으로 미끄러져 날아오를 뻔했다.

소박하고 희미하게 불이 켜진 예배실로 조용히 들어갔고, 검소하게 장식이 없는 신도 석 사이에 드문드문 몇몇 검은 윤곽을 보았다. 누구도 나를 돌아다보지 않아서, 캣이 만약 있다면 이들 중 가려내야 했다. 어쨌든, 그녀가 일요일 저녁마다 이곳에 온다는 말을 한 건 아니며 오늘 밤 이곳에 왔더라도 언제 올지는 완전 내 추측이었다.

뒤에서 몇 번째에 있는 신도 석에 앉아 진정하려했다. 눈을 감으니 몇 분 만에 달콤하게 꿈도 꾸지 않은 채 깜빡 졸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깜짝 놀라 몸을 펴고 주변을 둘러보며 잠을 깬다. 말할 수 있는 거라곤, 오직 두 사람만이 이곳에 남아있었다는 것이다. 상대방이 내 자리에서 몇 줄 앞에 있어서, 혹시나 캣 일지 몰라, 일어서서 그 사람이 알아채지 못하게 얼굴을 흘깃 볼 요량으로 중앙 통로를 따라 걸어 내려갔다. 불행히도 아니었다.

실망은 했지만 놀라운 일도 아니어서 문 쪽으로 되돌아왔다.

나의 뇌가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분간하기도 전에 깜짝 놀란 목소리의 속삭임을 들었다.

“스티브? 당신이예요?”

심장이 쿵쾅거렸다. 캣이었다. 그녀는 내가 ... 음 ... 골똘히 생각하며 앉아

있던 곳에서 두 줄 앞, 통로의 건너편 쪽 어두운 곳에 앉아있었다.

“여기서 뭐하고 있어요?” 그녀가 속삭이듯 물었다.

그녀가 첩제하기보다는 재미있어하는 것 같은 사실에 고무되어 건너가 그녀 옆자리에 앉았다.

“당신을 찾고 있었습시다.” 라고 답했다.

비록 그녀가 권위 있는 CEO의 이미지와는 여전히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 않지만, 금요일 밤 미용실에서 입었던 로커 스타일 보다는 덜한 팬츠 슈트를 입고 있었고 더 중요한 건 신발을 신고 있다는 점이였다.

“정말로요? 왜요?” 그녀가 물었다.

나는 그녀에게 쪽지를 건네주었다.

“찰스나 진이 당신에게 이 쪽지에 대해 말했습니까?” 내가 물었다.

그녀는 접힌 종이를 바라보았다. “뭐에 대해서요?”

“자자, 읽어 보십시오.” 내가 말했다.

그녀가 쪽지를 읽는 동안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만약에 감정이 남아있다면 어떤 내색을 할지 궁금했다. 그녀는 얼굴에 감정이 다 드러났다. 몇 초가 지나자, 놀람과 사랑 그리고 회한과 고마움의 흔적이 보였고, 그녀의 조그마한 얼굴에 스쳐간 다양한 낫빛이 무엇인지는 하느님만이 알 것이다.

“어떻게 ... 어떻게 이걸 가지고 계세요?” 라고 묻는 그녀의 얼굴에 눈물방울이 또르르 굴러 목을 타고 아래로 떨어졌다.

“그게 제 ... 당신의 기타케이스에 있었습시다. 그 안에서 발견했죠. 그게 제 자신보다 남이 잘 되게 하기라는 여정을 시작케 한 거죠. 그걸 사무실에서 당신에게 주려고 했습시다. 그제 밤, 헤어지고 나서야 그 쪽지를 기억한 겁니다. 그래서 ...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시다. 임무 완수했습시다.” 나는 주위사람들이 실없는 말장난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몸짓을 곁들이며 말했다.

그녀는 몸을 기울여 내 볼에 입을 맞췄다.

“당신 직원 찰스가 이것에 대해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건 믿을 수 없군요.” 나는 이 자리에 없는 찰스를 책망했다.

“이런 ... 이 방법이 훨씬, 훨씬 낫네요! 그렇게 생각하죠?” 내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벌떡 일어서서 재빨리 돌아섰다. 그곳에 찰스가 있었다.

“도대체가, 찰스?” 나는 소리 질렀다.

그는 입술에 손가락을 댔다. “스티브, 말조심하시죠.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잊지 말자고요. 목소리를 조용히 내세요.”

켓과 찰스는 나를 놀리며 크게 웃었다.

“당신은 항상 상관 주변을 따라 다니십니까?” 내가 물었다.

“누가 누굴 얘기하는 거요.” 그가 웃으며 말했다.

“찰스는 일요일 밤에 여기서 종종 저랑 만나요.” 켈이 말했다. “그리고, 스티브 당신이 아는 것처럼 그는 자기 상관주변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좋아요, 좋아. 당신을 쫓아다닌 게 아니군요.” 나는 말했다.

“제 말은 찰스의 상관이 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켈이 말했다.

“상관이 아니라고요?”

“네, 아니에요. 아주 정반대죠.” 그녀는 웃었다.

“이해할 수 없네요.” 나는 혼란스러워하며 대답했다.

“다시 소개하죠. 스티브, 당신에게 YSC사의 설립자이자 회장이신 찰스 롤랜드 씨를 소개합니다.” 라고 켈이 말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찰스가 손을 내밀며 말했다.

제 28 장

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보통 때 같았으면, 우선 예상치 못한 일에 허를 찌르는 재담을 내뱉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은 예외다. 말 그대로 말문이 막혔다.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찰스는 너무나도 신이 나서 말했다. “캣 캐서디는 알다시피 자신을 복제하라라는 GTY프로젝트의 세 번째 원리의 한 예입니다. 캣이 YSC사의 문을 걸어들어 온 첫날 그 순간부터 제 GTY프로젝트였습니다. 당시 저는 CEO로서 신입사원들에게 우리가 일하는 곳과 그 가치 그리고 비전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죠.”

“그때 찰스가 GTY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GTY는 모두 찰스의 용어예요.” 캣이 말했다. 캣은 찰스보다도 더 이 일이 재미있는지 빙그레 웃었다. “그리고 출근 첫날, 찰스가 우리 각자에게 자신보다 남이 잘 되게 하기 프로젝트를 찾으라며 도전 의식을 북돋웠어요.”

“‘이곳에서 인정받길 원하나요?’ 라고 찰스가 물었죠. ‘그럼 당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이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쓰십시오.’ 저는 아직도 그 말을 기억해요.”

“그럼요, 그 말을 기억하고 있죠.” 찰스가 말했다. “캣, 당신이 바로 지난 주 새로 들어온 사원들에게 똑같은 말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캣은 처음부터 자신보다 남이 잘 되게 하는 천재였습니다. 채 한 달도 안 되어 제 사무실에 와서 내가 그녀의 첫 프로젝트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뛰어난 의사 전달자라며, 그녀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옳았습니다. 수백만 번 했던 잠깐의 오리엔테이션 연설을 제외하고, 의사소통이 늘 저의 취약점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이젠 다르죠.” 캣이 말했다.

“네, 더 이상은 약점이 아닙니다.”

“당신이 캣의 프로젝트였단 말입니까?” 나는 약간의 안정을 취하고 말했다.

“초기에만 그랬죠.” 캐이 설명했다.

“그렇습니다.” 찰스도 캐이의 말에 동의했다. “꽤나 빠르게 제가 형세를 역전시켰거든요. 그녀 자신도 모르는 그녀안의 자질을 보았습니다. 제 후임자를 찾은 겁니다. 10년 아닌 그즈음 하여 그녀는 정확히 후임자가 되었죠. 그녀는 내가 했던 것보다 훌륭한 CEO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제 자리를 내주고 회장의 지위는 유지하면서 오히려 고문의 역을 맡았죠. 이제 저는 여기에서만 그녀에게 도움이 된답니다.”

“당신은 자신을 복제했군요.” 내가 말했다.

“정답입니다. 캐이 저를 닮아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점이 많습니다. 그녀가 CEO의 자리를 물려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찰스가 말했다.

“그는 저를 통해 자신보다 남이 잘 되게 하기 행위를 복제하고 있었어요. 저에 대한 찰스의 투자는 지금처럼 관대하고 완벽하게 무조건적이진 않았어요. 그는 우리관계에 양도할 수 없는 추가사항을 덧붙였습니다. 자신의 도움에 대한 일종의 대가로 제게 기대한 한 가지는 제 자신보다 남이 잘 되게 하기 프로젝트를 정기적으로 발굴해야한다는 거예요. 제가 GTY한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그들 자신의 프로젝트를 찾고 등등 등등해서 시종일관 진행되는 거죠.” 캐이 말했다.

“그게 GTY의 한 가지 조건입니다.” 찰스가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 똑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도움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베풀고, 당신이 가르친 사람들이 또한 또 다른 사람에게 베풀라고 요구하라.”

“무한하군요.” 내가 말했다.

“무한함을 위하여.” 찰스가 말했다.

그가 일어서자 나는 그를 새삼 바라보았다. 찰스에 대해 생각해보면,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판단했던 이상으로 생각했어야 했다. 찰스는 항상 자신에 대해 확신과 자기과신 그리고 만족감을 보였다. 그는 거의 뚜렷한 성취감과 성공을 말하였다. 또한 그냥 그렇게 호감 가는 인물이었다. 나는 빅 제프의 어린 시절 처키와의 만남 이야기를 회상했다. 이제 모든 게 분명해졌다.

“그래서, 찰스 아니 처키라고 불러야할까요?” 나는 캐이와 같이 서서 말했다.

“YSC는 6학년 때 꿈의 결과물인가요? 이 계통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임직원 채용 취업알선 회사를 소유하는 건 다른 사람들이 꿈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가장 그럴듯한 방법인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 연결을 짓는 건 우습군요.”

“이유는요?” 내가 물었다.

“회사의 이름은 중학교 때 정말 내 꿈을 가지고 비웃고 괴롭히던 사람들에게 주는 교묘한 선물입니다. 저는 이게 그들을 비웃는 나만의 방식이라고 생각하죠.”

“왜 그런가요?” 내가 물었다.

“약자인 YSC가 뭘 의미하는지와 관계가 있어요, 스티브.” 캐티 답했다.

“좋아요. YSC가 무슨 뜻인가요?” 내가 물었다.

캐트와 찰스는 서로 작당한 듯 쳐다보았다.

“자, 친구. 소수의 사람만이 그 약자에 숨겨진 이름을 알죠. 그리고 내 어릴 적 이야기가 숨어있어요. 누군가 예전에 성공은 최고의 복수라고 말했었죠. 그래서 나는 내 이름을 가지고 회사이름을 지었습니다.”

“잠깐만요.” 나는 서서히 깨닫는 바가 있었다. “농담 마세요. 회사이름이 형편없는 척?”

“딩동댕.” 찰스 롤랜드가 답했다.

생각했던 만큼이나 웃겼지만, 역설적인 유머에 엄청나게 놀라서 말이 안 나왔다. 그건 찰스의 꼬리표였다. 만나지 불과 며칠밖에 되진 않았지만, 이미 찰스를 오랫동안 알고 지낸 느낌이 들었다. 아마도 그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걸 가르쳤기 때문이었다.

그랬다. 그가 나를 가르쳤다.

이제 분명해졌다. 우리가 커피숍에서 처음만난 후 찰스는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자신보다 남이 잘 되게 하기의 세계로 학습 여행을 도왔다. 그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했다. 플루메리아, 진, 빅 제프 그리고 캐티, 이들은 항상 스타와 전문가로서 소개되었다. 결코 찰스가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이 일을 실행에 옮긴 장본인이며, 나에게 따라오라고 쿡쿡 옆구리를 찌른 사람이었다. 그는 내게 그의 안목과 시간과 관심을 주었다. 그리고 대

가 없이 자신의 친구들과 만나게 했다. 이제 그 이유를 알았다.

그가 왜 나를 훌륭한 수혜자로 여겼는지 모른다. 너무 좋아서 믿기지 않는다. 부인하지 않겠다.

나는 찰스 롤랜드의 최근 GTY 프로젝트였다.

칼레도니아 선교원 출구 쪽으로 향하는 통로를 걸으며, 두 명의 엄청난 동료들 경외심을 가지고 바라보았다. 어떤 까닭인지, 그들은 내게 자신 보다 남이 잘 되게 하기의 횃불을 나르는 걸 도와 달라 했다. 나는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싶지 않았다.

이제 뭘 해야만 할까? 스스로에게 그걸 알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친구들로부터 약간의 도움을 받고서.

그리고 나서 아름답고 낡은 기타를 운명적으로 구입한 지 단 며칠 만에, 찰스 롤랜드 그리고 켈 캐서디와 함께 교회를 빠져나와 조용히 그 밤 속으로 사라졌다.